

Yun Aiyoung

윤애영 尹愛永

Press (Selected)

103 rue de la Convention 75015 Paris FRANCE
Tel /Fax: +33-(0)1 45 54 05 17, Mobil: +33-(0)661 551 200

Seoul: +82-(0)10 8912 7452
Mail: yun.aiyoung@gmail.com



꿈과 현실 속 숨은그림찾기

비디오 아티스트 **윤애영**

비디오는
흩어진 기억의 흔적들을 주어 담고,
이미 지나간 순간을
영상을 통해 기억 속에 새겨지고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날려 보내고
앞으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내 영혼은 비디오 영상에 융합되고 녹아버려
하나의 작품이 되어 혼연일체를 이루지요.

여러 공간과 여러 시간에서 동시적으로 삶을 영위하며 꿈을 꾸는 그녀는 영상이 움직이는 순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고 순간의 삶이 시간 속에 함께 존재한다고 믿는다. 무의식의 풍경, 자의식의 도달을 보여주는 대형 설치작품인 「비밀의 정원」을 통하여 바르셀로나의 메트로놈 미술관, 생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국립미술관, 프랑스 생프랑스 아트센터, 바스 노르망디 현대미술센터등 유럽 전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녀의 꿈과 현실의 세계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오랫동안 파리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얼마나 계셨는지요? 비디오 영상 설치 작업은 어떠한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늘 저의 생각과 의도를 페인팅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었어요. 재학시절 매일 못으로만 쿵쿵거리며 작업하는 저에게 교수님께서 “네 아버지 목수니?”라고 할 정도 이었으니까요. 저는 작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들을 찾아 헤매었고 평면의 2차원적 세계를 뛰어넘기 위한 모색을 항상 시도했죠. 89년 미대 졸업 후 여전히 풀지 못한 갈증을 풀기위해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파리 보자르 재학시절 우연히 파리의 차이나타운 근처의 허름한 건물 안에서 처음 비디오작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매력을 느끼며 비디오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했고 나의 욕구를 비디오영상 설치작업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과 파리에서의 비디오영상작업의 흐름과 경향을 소개해 주세요.

유럽이나 파리는 실험적 정신과 단순한 깊이에서 철학을 찾는 것이 단연 돋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80년대 말 90년도 초 많은 크고 작은 비디오 페스티벌들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많은 예산으로 제작되어 발표되는 것과 달리 주로 이곳저곳 작은 카페에서



비밀정원 2005 Video installation

서로 보여주고 발표하는 작가들의 만남의 시간들로 이루어졌죠. 허름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진지하게 자신들의 작업을 보여주고 토론하는데 감동 받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윤애영 작가님은 테크놀로지 작업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만 주 활동무대가 외국 이어서 작가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선생님의 작품세계와 그간 파리에서의 작업한 활동과 평가를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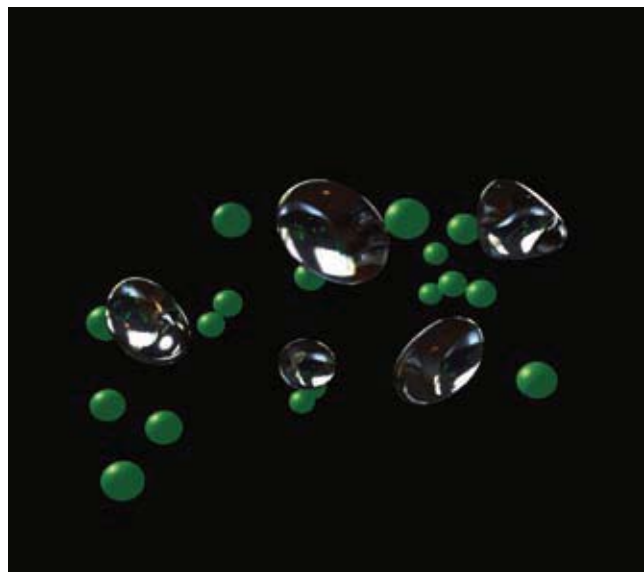
보자르 졸업과 동시에 파리 외곽에 자리 잡은 악스날 이틀리에 개방전에서 발탁되어 화랑과 연결되어 전속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화랑을 통하여 유럽 전역 독점계약을 하게 된 저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러시아, 이태리 등 여러 나라에서 초대 개인전, 국제아트페어, 비엔날레, 페스티벌 등 여러 전시를 통하여 활동하고 있지요. 현재는 파리, 룩셈부르크, 두바이 3개 전속화랑이 제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꿈의 세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일상생활 일기를 쓰기보다는 꿈 일기 쓰는 것을 더 좋아했고 지금도 꿈속의 의식들을 자주

적어놓아요. 꿈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 너머 알 수 없는 시간여행을 한다고 생각해요. 장자의 나비의 꿈(胡蝶夢)처럼 내가 어딘가에 또 다른 시간 속에 내가 존재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을 잘 때 꿈속의 다른 시간, 평행선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어요.

저의 작업은 현재라는 진행형에서 오늘날 코드에 맞는 시간퍼즐조각을 찾고자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자의 나비의 꿈(胡蝶夢)은 장자의 철학에서 나온 하나의 이야기를 당시 그 시대의 언어인 ‘나비’를 통해 이야기 했다면, 저는 ‘작업’이란 아버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시대의 언어로 표현방법이 진화되었다고 보면 되지요. 시간여행, 흔적, 암시들을 주위 모아 오늘이란 시간에 맞추어 시간 속에 숨겨진 숨은그림찾기(꿈, 우주, 과거, 현재, 미래 인간 삶 세계에 대한 의문 호기심에 대한 갈증)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이란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의(정치, 문화, 인간, 삶, 히로애락, 전쟁, 탄생, 죽음, 전쟁, 폭력 등) 세계를 다시 한 번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는 삶의 실험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Find
the Hidden Picture



비누방울 2009 3D Video, Single channel

국제아트페어 두 군데에 출품을 하셨는데 작품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요. 작품도 훨씬 감각적이고 아름다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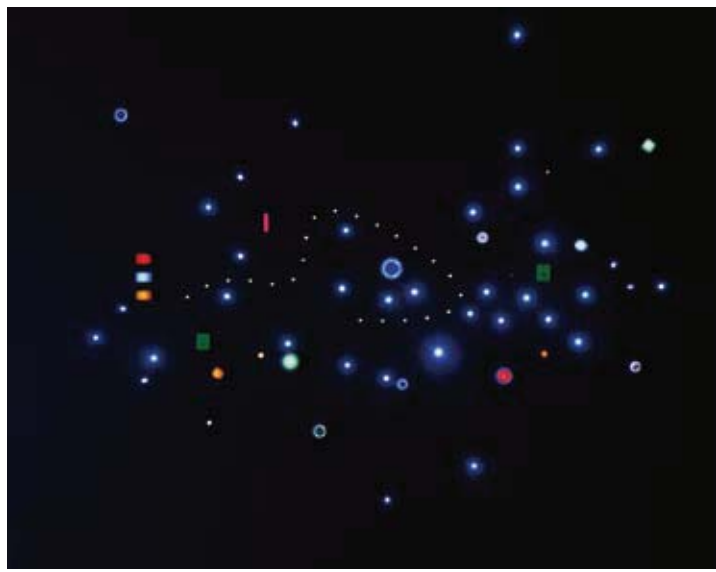
항상 빛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저는 빛을 이용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타임기든」 연작들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제아트페어에서 선보인 「Unknown space」는 검은색 알루미늄 판 위에 버튼과 LED, 스위치를 이용해 만든 작품으로 버튼을 누르는 동작행위로 새로운 차원의 시, 공간세계를 관객이 직접 만들거나 또는 그 신비의 세계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였습니다. 스위치 하나가 세상을 만들어내고 또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나의 버튼(스위치)이란 오브제를 이용했지요.

하나의 빛 속에는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빛이 모여 집이 되고 마을이 되고 도시, 나라, 지구, 우주가 되며, 그 너머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동경, 호기심에 대한 느낌으로 작업을 한 것이지요.

미술시장이 전반적으로 컬렉터의 취향에 맞게 유행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 영상은 회화작품에 비해 컬렉션이 많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컬렉터는 어떤 분들인지, 컬렉터와의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10년 전 파리의 전속화랑을 통해 스페인의 아르고 아트페어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물론 화랑도 작품판매는 기대를 하지 않고 저의 작품을 알린다는 의도였죠. 그런데 오픈 바로 당일 유명한 컬렉터(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컬렉션 하면서 화랑을 운영하시는 린다 고원)한 분이 제 비디오설치작품을 2개나 산거예요. 재미있는 일은 그 당시 컬렉터 분의 실수로 제 작품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인 가격으로 송금을 했지 뭐예요.



미지의 공간 2010 혼합매체 80x100cm

물론 화랑에서 정정은 했지만요. (웃음) 당시 저의 전속 화랑은 3년 동안 아르고에 참가했지만 아르고 아트페어에서 한 번도 작품을 팔아본 적이 없었는데 작품 판매에 대해 무척 기뻐했고, 저 또한 진심으로 제 작품을 사랑하고 컬렉션 해준 것에 대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후 화랑에서는 이듬해 아르고 아트페어에서 화랑부스 외에 저의 개인부스를 하나 더 얻어 크게 비디오 설치를 발표하게 되었고, 아르고 아트페어에서 컨택이 되어 스페인 바르셀로나 메트로놈 파운데이션 미술관에서 초대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초대전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선 2008 video installation

비디오영상작업이 미술시장에서 특별한 장르로 취급되어 여류작가로서 쉽지 않는데 생활은?

작업을 하면서 여류작가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작업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 비디오 작업이 행해지는 곳을 찾아다니며 직접 시도해보기도 하고, 그 당시 컴퓨터 없이 하는 수작업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편집도 부정확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전문적인 스튜디오에 가서 작업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허락되지 않았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원하는 내 작업을 위해 끊임없이 KBS, 삼성, LG 지사장님들께 도움을 청했고 양해를 얻어 그곳의 기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 아트를 하며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작업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창작이 아니라 수수께끼 같은 시간의 열쇠, 이 세계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에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숨은 그림찾기에 필요한 비디오라는 재료를 가지고 저는 끊임없이 작업을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작업이란 나 스스로 삶의 캔버스 위에 나의 모든 육신과 영혼을 녹여 시간과 매체의 붓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연금술사가 되는 것 입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작품이 되어 춤추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전시계획은?

내년에 슬로바키아 포프라드 미술관에, 갤러리 아트사이드(중국), 갤러리 알베르 에르나무에서 초대 개인전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술시장에서 비디오는 이제 더이상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과학문명 발달에 따른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발달할수록 앞으로 수많은 매체를 찾아 작업하는 붓의 행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대중에게 전달하며 그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상상하고 느끼게 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에 맞추어 대중들에게 새로운 의식의 향연을 향한 연금술사가 되어 더 멋지게 또 다른 시간여행을 하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에디터 정나연

최고의 테크놀로지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인간이 로봇이고 로봇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타임기든 2008 light insta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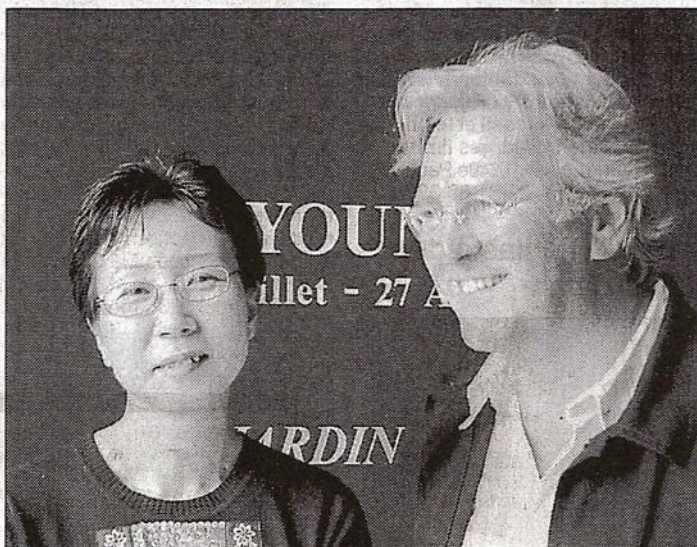
L'artiste coréenne expose au Pavillon de Normandie Dans le jardin secret d'Aiyoung Yun

Jusqu'au 27 août, Aiyoung Yun expose au Pavillon de Normandie. Cette artiste coréenne, invitée par le Centre d'art contemporain de Basse-Normandie, fait partager son rêve d'un jardin secret.

« Il s'agit d'un sentiment très fort. J'ai voulu recréer des petits fragments qui restent de rêve », décrit Aiyoung Yun, l'artiste qui expose au Pavillon de Normandie jusqu'au 27 août. Après une formation aux Beaux-Arts en Corée et à Paris, Aiyoung Yun a déjà exposé à Saint-Petersbourg, Lyon, Barcelone et au Japon. Elle présente pour la première fois ses œuvres en Normandie. Gilles Forest, directeur du Centre d'art contemporain de Normandie, a été séduit par son travail « intemporel. Ses œuvres me touchent. J'aime les différents niveaux de lecture, et le fait que tout le monde puisse s'y retrouver ».

Cette exposition est un jardin secret. Un jardin ? Pour Aiyoung Yun, c'est un lieu fondamental. « C'est un endroit où tout le monde peut se reposer. C'est aussi un endroit avec plein de secrets, plusieurs chemins possibles. Plusieurs découvertes inattendues. Il faut y prendre son temps. » Un secret, aussi. « Mais c'est un secret à venir percer, à découvrir. Et ce n'est pas seulement le mien. Ce jardin existe aussi pour que chacun y laisse son propre secret. J'espère que le public va déposer dans ce jardin un peu d'esprit et de réflexion. »

L'exposition s'appuie sur les nouvelles technologies : du son, des



Gilles Forest (à droite), directeur du Centre d'art contemporain de Basse-Normandie, est heureux d'accueillir l'artiste coréenne Aiyoung Yun, au Pavillon de Normandie, jusqu'au 27 août.

images, du mouvement. Ici, sur un caillou, est projetée la silhouette d'un homme à la marche saccadée. Là, un arbre de lumière, un jardin de fleurs aux multiples chemins. « Il ne faut pas voir les nouvelles technologies comme telles, mais comme un instrument qui exprime au mieux notre humanité », précise l'artiste. Utilisant au début des supports plus classiques, peinture et lithographie, Aiyoung Yun ne cesse d'explorer d'autres techniques. Mais toujours avec la même source d'inspiration : « Mes rêves. » « J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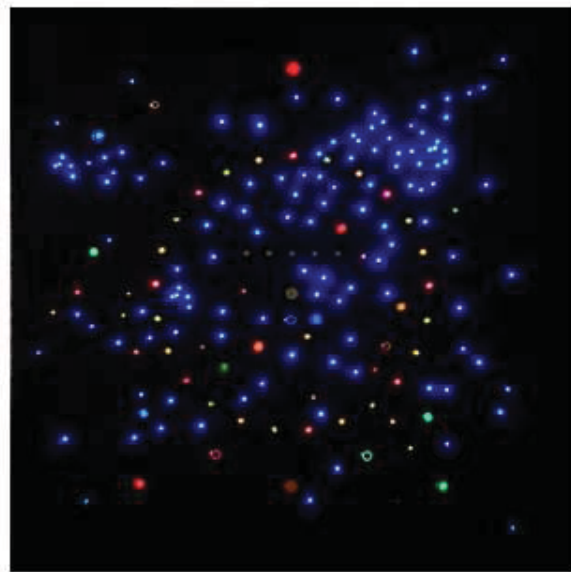
n'écris pas souvent sur la vie quotidienne. Depuis mon enfance, je me souviens de mes rêves. Le matin, j'ai souvent besoin de les raconter à mon mari. » C'est maintenant aux Normands de venir partager son univers onirique.

M. L.

□ **Pratique.** « Jardin Secret », au Pavillon de Normandie, quai Cafarelli. Du mardi au dimanche, de 14 h 30 à 19 h 30. Entrée Libre. Jusqu'au samedi 27 août.

[아침의 갤러리] 미지의 공간

설치작가 윤매영 씨의 '미지의 공간'이다. 야간 비행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갖가지 색깔 크기 모양의 빛이 반짝인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작가는 서울과 파리를 오가는 밤 하늘에서 영감을 받았다. "빛 하나하나에 모든 세계가 있고 그것이 모이면 또 다른 세계를 형성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현대 문명 하에서는 그 빛이라는 것도 결국은 스위치에 의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작품에는 수십 개의 스위치와 버튼이 붙어 있다. 누르면 화면 속 LED 빛 몇 개가 꺼지거나 켜진다. 작동하는 스위치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저 감상만 하는 관객도 있고 호기심에 스위치를 눌러보는 사람도 있다. 작가는 "호기심과 탐구심의 유무에 따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갈리지만 그냥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매영 김성수 이광기 장성은 최수환 홍승혜 등 한국의 젊은 작가 6명과 일본의 중견 설치작가 유리치 히가시오나의 작품이 'LIGHT ON'이라는 주제로 전시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조현화랑, (051) 747-8853.

강필희 기자 flute@kookj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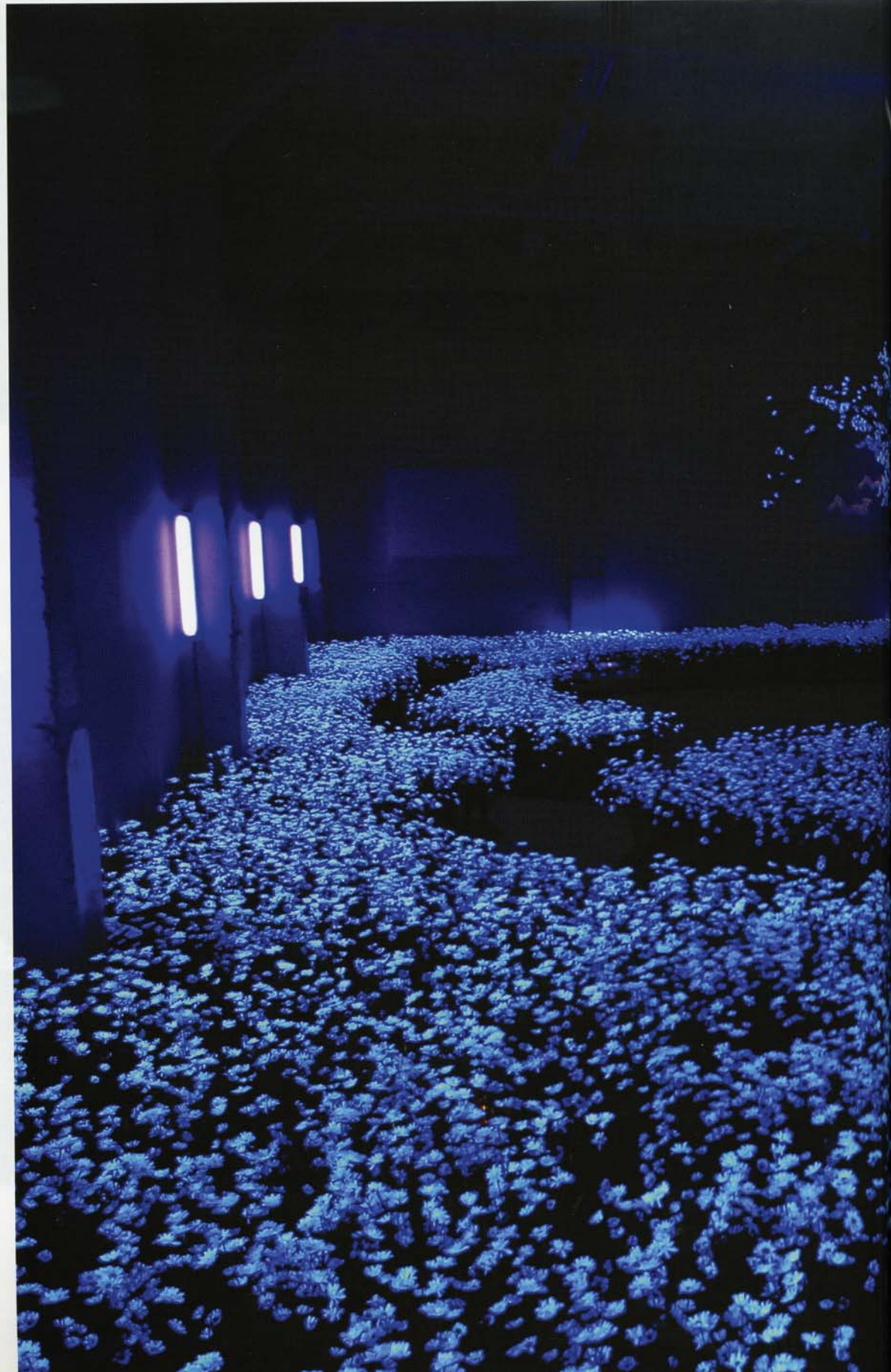
입력: 2010.02.15 20:06

©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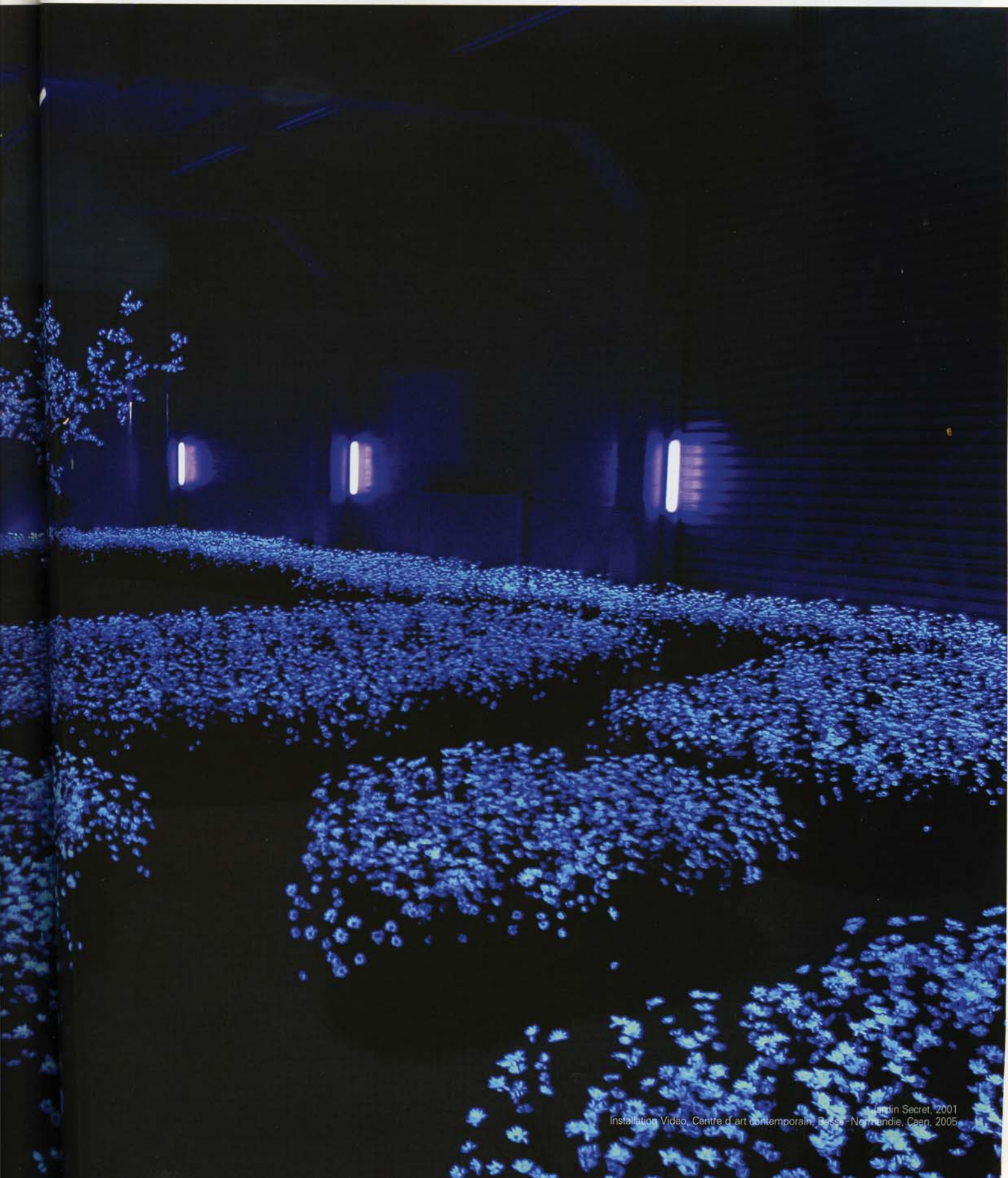
corp-o-talk

‘비밀 정원’을 다시 방문하며

윤애영 Yun Aiyoung



스페인의 열정은 투우사의 붉은 깃발이 말해 주듯 강렬하고 역동적이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스페인인들의 타들어 갈 듯한 열정은 한 예술인이 보여 주는 작품에 의해 잠시 멈춰버린 듯했다. 윤애영의 500㎡ 규모의 설치 작품, '비밀 정원Jardin Secrete'은 차가움, 정돈됨 그리고 냉철함을 주는 듯 하나, 이 정원은 실제의 정원이 아닌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꿈의 세계다. 이 세계 안에서 관객들은 감정과 생각의 논리 사이에서 중력 없이 떠돌게 된다. 이 느낌을 다시 기억해 보기 위해 윤애영의 '비밀 정원'을 다시 방문해 보기로 했다.





Jardin Secret, 2001
Installation Video, The State Russian Museum, St. Petersburg, Russia, 2002

클라라신 '비밀 정원'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나?

윤애영 비디오 설치 작품 '비밀 정원'은 바르셀로나의 메트로놈 재단 Foundation Metronom 초대전(2001)에서 처음 선보였고,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국립미술관(2002), 프랑스 생프랑수아 아트센터, 바스 노르망디 현대미술센터(2005)에서 재연된 바 있다.

'비밀 정원'은 간단히 설명하면, 꿈의 정원, 시간의 정원, 의식의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제목 그대로 신비스런 삶의 모든 것을 찾아가는 공간을 비디오 영상 설치로 재현한 작품이다. 정원은 내 꿈의 표현이고 나무는 내 영혼의 이미지다. 수없이 많은 꿈속에서 나는 또 다른 내 모습을 만난다. 나는 새로운 시공간 속에서 또 다른 '나'가 되어 여행한다. 때로는 새가 되어, 때로는 물고기가 되어, 또는 구름이 되어 떠도는 영혼이 된다. 나에게 꿈속의 시간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재의 나와 함께 존재하는 또 다른 시공 속의 모습이다. 마치 장자의 나비 이야기에서처럼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시간에 의문을 갖는 것처럼 나는 또 다른 나 자신이 어딘가에 동시에 존재함을 느낀다. 이러한 동시성과 삶에 대한 갈증을 '비밀 정원'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내가 체험한 시간의 여행이 아니라 관람자 개개인 각자가 또 다른 의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그들만의 시공간으로 여행하여 다음날 아침 이슬이 되어 나의 정원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클라라신 대형 설치 작업이라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을 눈으로 보기 보다는 몸 전체로 체험하게 하는 것 같다. 큰 규모를 통해 의도한 바는 무엇이었나?

윤애영 500㎡ 규모의 전시장 전체 공간을 이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설치하였다. 정원에는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여러 갈래의 길들이 나 있고, 관객들은 이 신비의 산책에 초대된다. 정원에는 야생에서 피는, 화려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쓰지도 않는 청순한 꽃 마가렛이 가득 피어 있고, 매화꽃으로 만발한 나무가 서 있다. 마가렛 사이사이, 나뭇가지 사이에 투명한 스크린들이 걸려 있다. 스크린 위로 2차원 평면이 아닌 3차원적 비디오 영상들이 마치 어슴푸레한 기억과도 같이, 또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흔적과도 같이 너울거린다.

'비밀 정원'이 설치된 전시장에는 보물찾기하듯 이러한 영상을 찾아다니는 사람, 숲 속에서 거닐듯 정원을 산책하는 사람, 나무 밑에 편안히 누워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 관객들은 작품 안으로 들어가 꿈속에서 산책하듯 산책을 한다. 막혀 있는 길도 있고 열려 있는 길도 있다. 산책을 하면서 나무 사이에, 꽃 틈새에 있는 영상들을 발견하기도, 때로는 그냥 지나쳐 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느 길이 막다른 골목인지 안내하지는 않는다. 관객이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유하며 자신의 호기심에 맡긴 채로 직접 느끼고 찾으며 자신만의 새로운 신비의 세계를 여행하길 바란다.

클라라신 '비밀 정원'을 만들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작품이 있었나?

윤애영 2000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아르코 아트페어에 피이드칼베르 갤러리의 초대로 비디오 영상 설치 '교차Intersection'을 출품하였다. 이를 계기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메트로놈 재단의 초대를 받아 '비밀 정원'을 제작하게 되었다. 메트로놈 재단 및 프랑스 문화성 AFFA, 바르셀로나 프랑스 문화원, 스페인 문화성 등의 후원을 받았다. 작품 '교차'에는 안개가 짙게 낀 숲 속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나무들, 그 사이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움직이는 인물이 등장한다. 정렬된 나무들 사이를 여행하는 것으로 시퀀스가 시작된다. 전시장 정면의 나무와 물속의 풍경이 결합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전시장 공간에는 여러 개의 투명 천 스크린이 배치되고, 그 스크린들 위로 별거벗은 채 뛰어가는 아이의 이미지가 투사되어 배경의 풍경과 교차하거나 분리된다. 새 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웅장한 사운드가 퍼지는 공간 속을 배회하는 아이와 함께 관람객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여행에 동반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단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것, 그 '과정'의 시간에 있다는 것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아마 작품 '교차'가 '비밀 정원'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라신 당신의 작품에는 작가 자신의 초상화, 자화상과도 같은 이미지들이 종종 있다. 모델을 쓸 수도 있는데 자신이 직접 표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Intersection, 2000
Video loop projected in a darkroom, National Museum of Art, Osaka, Japan, 2002



Jardin Secret, 2001,
Installation Video, The State Russian Museum, St. Petersburg, Russia, 2002

Jardin Secret, 2001,
Installation Video, Fondation Metronom, Barcelone, 2001

윤애영 작품 속의 나는 작품을 위한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나의 의식을 몸(신체)으로써 전달하는 매개다. 실제 촬영에 들어가면 난 나의 의식 속으로 빠져 들어가 움직이게 된다. 나의 몸 동작 하나하나의 나의 또 다른 의식의 공간으로 들어가 새로운 시간 안의 삶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내 이미지가 작품 자체가 되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나무를 그리기 위해서는 대나무가 되어야 한다. 춤추지 말고 춤 자체가 되라”라는 라즈니쉬의 말처럼 말이다. 주어진 나의 시간에 현재의 나와 영상 속의 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클라라 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많은 시간을 파리에서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많은 예술인이 사랑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매력을 느꼈던 점이 있는가?

윤애영 파리에 거주하면서 나무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 파리는 내가 나무를 알게 되고, 나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조금씩이나마 느끼게 한 곳이다. 그리고 나무를 만나게 된 장소가 바로 파리의 카페다. 카페는 많은 예술가의 모임 장소이자 수많은 예술사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카페는 나의 두 번째 아틀리에가 되었다. 카페에서 파나체

한 잔을 마시며 주위를 바라볼 때 난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어 버린 듯하다. 그리고 항상 또 다른 나의 육신이 분리되어 파나체를 마시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낀다. ‘지금’이라는 현실의 나와 다른 시간에 존재하는 내가 만나는 장소인 것이다. 어디든 내가 가는 곳에 카페가 있으면 늘 기쁘다. 그곳은 나에게겐 마치 내가 다른 시간으로 가는 도중 잠시 들리는 주막집과도 같은 마음의 휴식처다.

클라라 신 여성이자 이방인으로서 보수적인 나라에서 작가 생활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 나갔는가?

윤애영 작업을 할 때 여성이란 생각을 하면서 작업하진 않는다. 여성이기에 힘든 것이 아니라 때로 주어진 주변 상황들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이방인이다. 한국인으로서 프랑스에 거주하며 떠도는 이방인, 지금의 현실과 또 다른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이방인, 땅 위에서 하늘의 구름을 사모하는 이방인, 지독한 의식의 고독과 싸우며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자초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떠도는 내 영혼에 축배를 마시며 지낸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질문들은 호기심, 의식의 갈증들을 불러일으키고 나의 존재성을 일깨워 준다.



Jardin Secret, 2001,
Installation Video, Centre d'art contemporain, Basse-Normandie, Caen, 2005

새로운 무엇, '작업'이라 불리는 보이지 않지만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날 이끌고 있다. 그 순간들이 기쁨으로 가슴에 내려앉을 때면 나 역시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을 피우는 나무처럼 다시 새로운 의식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클라라신 존경하는 작가가 있는가?

윤애영 자신의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모든 작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화려한 치장보다는 깊은 사고로 자신을 통해 세계를 느끼고, 삶의 신비를 찾아 노력하는 분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클라라신 후배 작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윤애영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충실하길 바란다. 춤추지 말고 춤이 되고, 노래할 때는 노래가 되어라. 작업하며 가슴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충실하면 어느 날 주어진 어떤 삶의 문앞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PN

글 클라라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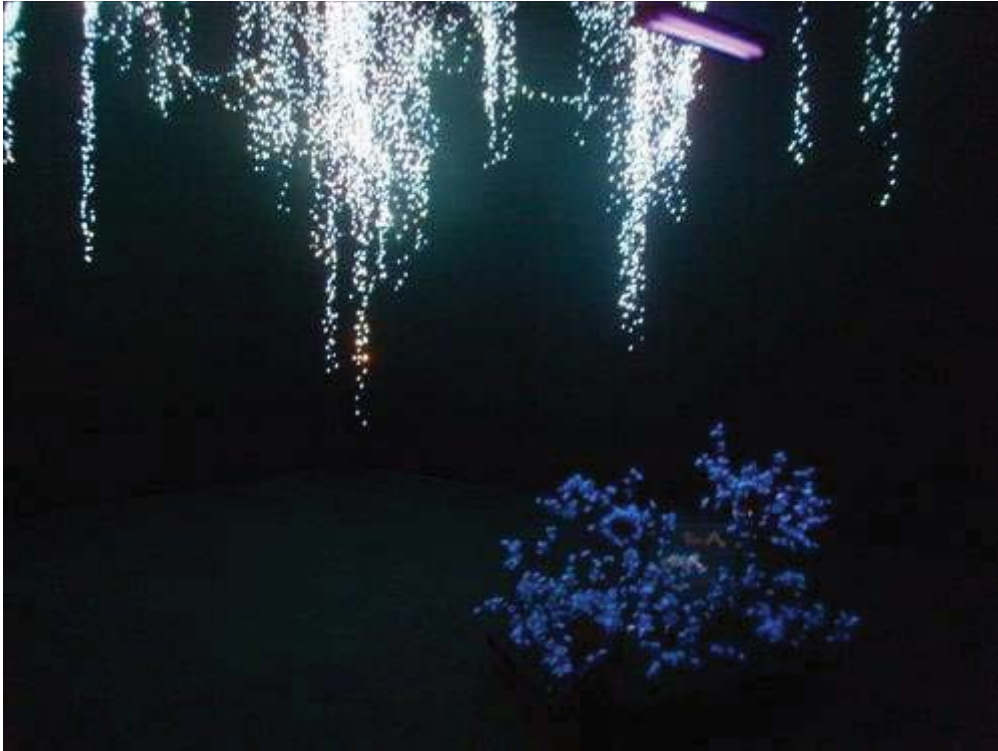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미술사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매 회사 아르큐리알을 거쳐, 갤러리 알베르 베나무 Galerie Albert Benamou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윤애영 Yun Aiyoung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디오/설치 작가로, 샹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국립미술관, 스페인의 ARCO 등 세계적인 미술관, 전시 공간 등에서 그 작품이 전시된 바 있다. 많은 평론가들의 그의 작품을 주의 깊게 관찰해 오고 있으며, 그의 비디오 설치 작품은 프랑스 국립 현대미술관 컬렉션 F.N.A.C, 한국 국립 현대미술관 및 비중 있는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정원이 가진 의미는...현대 미술작가들이 꾸민 '정원방문기'전



조명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윤애영의 '시간정원'.

- 예부터 정원은 이상향, 에덴 동산의 유혹과 타락, 베르사유의 정원에서 보이는 권력 등 여러 가지 은유로 사용됐다. 강남구 신사동 코리아나미술관이 코리아나화장품 창립 20주년 및 미술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12월 6일까지 여는 '정원방문기(Art Through Nature)'전은 정원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자리다. 설치작가 박화영(40)의 정원인 '크랄릭 폴카 가든'에 들어서면 폴카 음악이 흐른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화면에는 남산을 찍은 수천장의 사진들이 음악에 맞춰 흐르고 또 다른 벽면에는 가상의 '크랄릭'시 시청앞 광장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화분에 식물처럼 심어진 토끼의 무리들이 있다. 토끼들은 박수를 치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움직인다. 언뜻 유쾌하고 즐겁기는 하지만 작가의 집에서 찍은 산타워가 상징하듯 도시의 권력과 인공적인 성격 등이 숨어 있어 화분에 심어진 토끼처럼 기이한 풍경을 낳는다. 각박한 도시 사람들에게 정원엔 허식을 벗게 하는 공간인 것 같다는 안성희(42) 작가는 전시공간을 인공 잔디로 깔았다. 벽면에는 작가가 서울, 런던 등 여러 도시에서 찍은 정원 사진과 함께 이들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의 짙은 이야기가 적혀 있다. 코리아나화장품 유상옥 회장과 딸인 코리아나미술관의 유승희 부관장이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사진도 걸려 있다.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가 윤애영(44)의 작품 전시공간인 '시간정원'에는 수많은 조명들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망사로 된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들은 부유하는 듯하고 그것을 꽃들이 감싸고 있다. 구석진 곳에 창처럼 배치한 헤엄치는 영상은 영혼의 문처럼 느껴진다. 이창원(36)이 홍화잎을 선반에 정교하게 쌓아 뒤러의 그림 '아담과 이브'를 그림자로 표현해낸 설치작 '무너지기 쉬운 낙원', 문경원(39)이 떨어지는 나뭇잎을 디지털 영상으로 소화한 영상물 '다이아리 2008', 독일 주택의 뒷마당을 늘 타자일 수밖에 없는 유학생의 처지를 빗대 찍은 듯한 이윤진(36)의 사진 연작 '뒤뜰'도 볼 수 있다.
- (02)547-9177 편완식 문화전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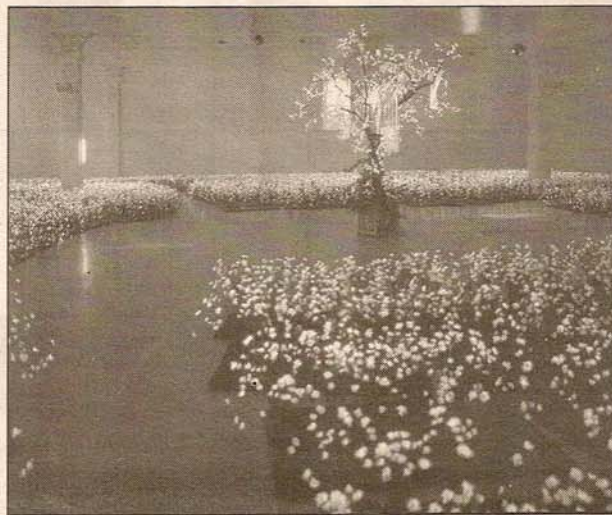
Jusqu'au 27 août 2005 au pavillon de Normandie :

L'artiste coréenne Aiyoung Yun dévoile son "jardin secret"

Après avoir exposé à Moscou, Londres ou encore Madrid, Aiyoung Yun a réalisé son installation multimédia dans les salles d'exposition du Pavillon de Normandie. Le public est invité gratuitement à découvrir son "jardin secret", à entrer dans un monde étrange et merveilleux, onirique et tournoyant, qui ne peut laisser indifférent.

Un jardin de marguerites artificielles et phosphorescentes pousse à la lumière noire d'une grande salle du pavillon de Normandie. Au centre de ce jardin, des hologrammes de corps nus tourbillonnent dans les branches d'un amandier en fleurs. Les visiteurs s'y promènent au son d'une cascade et du vent, découvrant ici et là de petits personnages cachés dans les fleurs. Pour définir son Jardin secret, Aiyoung Yun utilise la métaphore du rêve : "Toute

la nuit, au cours de mes rêves, je nage comme un poisson, je vole au milieu des nuages comme un oiseau... Mon âme plane dans le vent, ne sachant pas ce qu'elle va rencontrer en chemin... Ni où trouver le sens de la vie... Le jardin représente mes rêves, et l'arbre garni d'images, mon âme." Aiyoung Yun tient à créer un lien étroit entre sa création et le spectateur : "Après leur visite, un peu de l'âme de



chaque spectateur reste ici et devient un élément de ce jardin." Les enfants dont l'esprit ne cherche pas à rationaliser les

choses comme le font les adultes sont particulièrement sensibles à l'œuvre de Yun.

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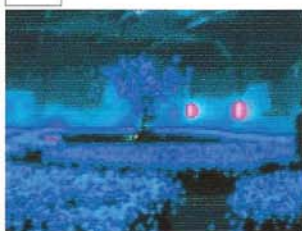
L'Epée de Damoclès

rions avant que le ciel ou n'importe quelle tuile (au chocolat) ne nous tombe sur la tête...

« [La vie n'est pas un long fleuve tranquille](#) | [Page d'accueil](#) | [Desmotslition](#) »

28/09/2005

Caen et installation vidéo d'Aiyoung Yun



"Jardin Secret" d'Aiyoung Yun

Cet été 2005, dans le pavillon "Normandie" au bord du bassin St-Pierre et bien j'ai été agréablement surpris et même émerveillé (n'hésitons pas avec les

grands mots!) par la partie nommée "jardin secret" de l'installation vidéo présentée par une dénommée Aiyoung Yun, une artiste d'origine Coréenne .

J'ai eu l'impression d'être plongé dans un tout petit monde onirique, hors du temps. J'avais quitté l'environnement réel pour un rêve éveillé.....L'art contemporain n'est pas forcément ma tasse de thé, mais là, j'ai été subjugué par ce jardin.

"Jardin Secret" d'Aiyoung Yun - Cette artiste vit et travaille à Paris depuis 1989, a fait des études d'art à l'université Ehwa (Corée) et à l'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 Arts de Paris (ENSAD). Au départ pratiquait la peinture, le dessin, la photographie, et réalisait parfois des installations et des performances. Aujourd'hui elle ne se sert quasiment plus que de la vidéo pour s'exprimer. Les rêves et les songes sont très présents dans ses réalisations-

L'installation vidéo fut proposée par le Wharf, Centre d'Art Contemporain de Basse-Normandie.



10:35 Publié dans [Blog](#), [Normandie](#) | [Lien permanent](#) | [Envoyer cette note](#)

Trackbacks

Voici l'URL pour faire un trackback sur cette note : <http://l-epeededamocles.blogspot.com/trackback/220425>

Ecrire un commentaire

비디오 '꿈' 작가 윤애영 -1

어느 날 장자는 꿈에 나비가 되어, 날개를 팔리며 꽃 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닌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자신이 장자인지도 모른다.

그러다 꿈에서 깨어보니, 자신은 나비가 아니라 장자이다. 장자는 사색에 잠긴다. 조금 전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을 때 자신이 장자인지 몰랐다. 꿈에서 깨고 보니 자신은 장자이다. 꿈에서 깨어난 자신은 정말 장자인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장자는 묻는다 :

"지금의 나는 과연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로 변한 것인가?"

장주몽접(莊周夢蝶), 유명한 장주(莊周)의 나비(蝶)의 꿈(夢) 이야기이다.

수천 개의 아틀리에

윤애영 비디오 작가의 아틀리에 수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아틀리에에는 점점 더 많아 질 것이다.

전파상 아틀리에 - 우선은 그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칭 '전파상' 아틀리에부터 소개하기로 한다.

카페가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띄는 15구의 어느 넓은 정원에 한편으로는 커다란 아파트가 그리고 이 아파트와 마주하여 문화성 소속의 4개의 아틀리에가 나란히 있다. 첫 번째 아틀리에에는 루마니아 작가가, 두 번째 아틀리에에는 프랑스 조각가, 세 번째 아틀리에에는 바로 윤 작가의 아틀리에이고, 네 번째 아틀리에에는 더블린에서 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튀니지 출생의 프랑스 작가 아틀리에이다. 네 명의 예술가들은 비록 서로 국적이 다르고 작업방식도 많이 다르지만 예술 이야기, 삶이야기를 나누며 친하게 지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윤 작가는 가장 젊은 뿐더러 이곳 아틀리에의 입주기간(2002년)도 가장 짧다. 이웃 아틀리에의 한 작가는 윤 작가가 아틀리에에 입주하기前, 한 할머니 화백님이 그곳에서 오래 작업하셨는데, 그 분은 피카소의 친구였다고 한다.

윤 작가의 아틀리에로 들어가면 3면의 벽에 바닥부터 천정까지 조금의 여유 공간도 없이 상자가 가득가득 쌓여있다. 상자에는 전시되었던 작품들이 분해되어 담겨있다. "상자 속에 작품들이 숨쉬고 있어요. 가끔은 이 상자들을 열어 맑은 공기도 쉬게 해주고 손볼 곳은 살피서 돌봐줍니다"라고 윤 작가는 말한다. 한번

전시 후에는 대형 상자가 6개 혹은 7개가 나오고, 그동안의 전시에서 생긴 수많은 나무 상자는 지하 까브(창고)에도 그리고 갤러리나 미술관의 보관창고에도 있다. 또한 집 안에 조그마한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는 작품의 한 부분이었음직한 오브제들이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여기저기 숨어있다. "저의 인생에 그리고 저의 생활은 이처럼 나무상자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무상자들 속에 있는 작품들이 계속 숨쉴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도 비디오 작가의 중요한 한 역할"이라는 윤 작가의 말이 단지 아틀리에에 있는 상자들만을 볼 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기자가 윤 작가님께 아틀리에를 보고 싶다고 하자, "저는 전파상밖에 안 하는데요"라고 말한 이유를 깨달았다. 이 아틀리에에서는 전기 작업이라든가 컴퓨터 작업, 그리고 소품 등을 실험해보고 세부적인 것은 설치를 해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본격적인 작업은 전시장에서 직접 되어지기 때문이다.

3면의 벽이 상자로 뒤덮여 있는데, 신비하게도 한 면의 벽 반쯤은 아무 장식도 없이 하얗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는데, 이 벽도 결국은 벽이 아니라 스크린이었다. "이 벽에다 비디오 프로젝트를 합니다." 윤작가의 설명은 커다란 창문의 양쪽에 걸쳐있는 낡은 두꺼운 검은 커튼에 대한 궁금증도 동시에 풀어 주었다.

카페 아틀리에 - 윤애영 작가는 아틀리에 주변 카페의 개폐점 시간을 모두 알고 있다. 카페가 문을 열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카페에 홀로 가서 커피한잔을 놓고 장시간 사람들 혹은 풍경을 바라본다.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웃기도, 인상을 쓰기도 때로는 슬퍼하거나 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옆에 혹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관심 밖에 있지요. 그럴 때는 제가 마치 꿈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흔히 꿈속에서 나 자신은 안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요. 또한 카페 테라스에서 행인들이 저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을 보면 제가 잠들어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결국 제게 카페는 꿈속에 있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이처럼 카페는 윤 작가에게 끊임없이 장자의 나비의 꿈을 체험하게 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꿈속의 현실' 혹은 '현실의 꿈속'인 카페에서 그는 구상을 하고 글을 적고 계획을 짠다. 구상이 잘되면 잘될수록 카페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진다.

보통사람들은 일이 급하면 급할수록 작업실에 머물러 일을 하지만, 윤 작가의 경우는 반대로 카페에 가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러나 그에게 단골 카페는 없다. 카페 종업원 혹은 주인이 그를 의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장자는 단지 장자일 뿐이지 더 이상 나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전시장 아틀리에 - 전시가 있을 전시장 자체가 윤애영 작가에게는 아틀리에이다. 카페 아틀리에에서 영감



과 구상을 하고, 전파상 아틀리에에서 세부적인 실험과 편집을 하고, 마침내 작품이 전시될 전시장에서 작품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단시일에 끝나는 작품부터 여러 달이 꼬박 소요되는 작품도 있기에, 규모에 따라서, 미술관 혹은 갤러리의 전시는 베르니짜주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윤 작가의 아틀리에이다.

이러한 여러 아틀리에 가운데에서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아틀리에에는 바로 '삶'이라는 아틀리에이다. 윤애영 자신, 가족, 지인들, 하물며 지나가는 행인들, 나무 한 그루와의 만남,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의 매 순간들은 그의 작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재료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 열기

윤애영은 충청북도 증원군 엄정면(부 윤종명, 모 이길주)의 1남 5녀중 막내로 태어났다. 언니들이 그리는 그림일기, 혹은 국어책에 나오는 그림일기를 보며 미술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미술반에 들어가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이화여대 미술대학에 입학한다. 미대에서 작업을 하며, 평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답답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과 친구들과는 페인팅을 할 때 윤애영은 천 조각을 가지고 혹은 붓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아버님이 목수시냐고 왜 매일 못만 두들이나며 지적도 하셨지만, 그는 평면의 2차원적 세계를 뛰어넘기 위한 모색을 중단하지 않는다.

윤애영은 89년 미대 졸업 후, 여전히 채우지 못한 갈증을 풀기위해, 5년 계획으로 예

술의 도시 파리의 문을 두드린다.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파리 국립 고등미술학교(E.N.S.B.A 이하 보자르)까지 왔지만, 이 곳에서도 그를 충족시킬 만큼 특별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갈 등한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맛보지 못했던 석판화 작업을 발견하고 이에 흥미를 느낀다. 석판화 작업과 사진, 설치 작업등으로 차츰 전개해 가며, 새로운 도전과 표현 방식을 실험해나가는 과정에서 비디오를 접하게 됨으로서 영상으로써의 시간표현과 또 다른 차원으로서 작업을 시도하게 된다.

비디오에 대한 첫 만남은 윤애영이 이화여대생일 때 워커히에서 백남준 선생님의 비디오 작품을 보았을 때이

다. 많은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는 파리 보자르에서도 윤애영이 수학할 당시에는 아직 비디오 아트가 없었고, 그가 졸업할 94년도 무렵에야 보자르에 비디오 아트가 소개된다. 따라서 그는 학교와는 별개로 이미 92년도부터 혼자서 비디오 작업이 행해지는 곳을 찾아다니며, 이를 직접 시도해 본다. 그 당시 컴퓨터 없이는 수작업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편집도 부정확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전문적인 스튜디오에 가서 작업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다. 윤애영은 당시 KBS, 삼성, LG 지사장님들께 도움을 청했고, 양해를 얻어 그곳의 기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었다며, 비디오 아트를 하며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이처럼 도움을 주시는 분들 덕분에 계속 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함을 표한다.

파리. 뿌리 깊은 나무에서 피는 영원한 꽃

비디오 작가로서는 미국이 더 유혹적인 나라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윤 작가는 설명한다 :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는 새로운 것을 바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같이, 특히 파리와 같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가득한 곳에 새로운 것을 건설한다는 것은 오랫동안의 신중한 숙고 이후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 수천 년 된 소중한 문화유산을 파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건설한다 할지더라도 이미 기존에있는 문화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니 비록 새로운 것이 있더라도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제가 도불할 당시에, 파리에 비디오 아트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기계가 낙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예 기계가 없는 곳에서는 새로운 기계를 곧바로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 구식기계나마 잘 사용해왔던 곳에서는 익숙해진 구식기계를 내던지고 낯선 새 기계를 도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도불을 결정한 이유는, 뉴욕과 비교하여 파리에 새로운 것은 적지만, 그 대신 이곳에는 뿌리가 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저는 뿌리 깊은 의식이 있는 유럽을 선택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한번

꽃이 피면 영원한 꽃이 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에 접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파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많은 희비가 겹쳤지만, 윤 작가는 새로운 문을 두드리는데 한번도 주저하지 않았다. 주어진 매 순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기에, "작업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충실하려고 애쓰고 또한 그러기에 매순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저는 놀때도 최선을 다해서 놀고, 작업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역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춤추는 자가 되지 말고 춤 자체가 되라>는 인도의 신비주의 철학자 까비르 말처럼,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처럼 놀면서도 아이들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아이들 자체가 되어 놀 때 너무도 즐겁습니다." 하물며, 윤 작가는 잠을 잘 때도 기쁨으로 얼른 잠들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잠을 자면 그곳에 예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 작가는 알 수 없는 새로운 미지의 문을 항상 두드리고 그 문 뒤에서 발견되는 세상에 기뻐 놀라워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문을 두드린다. 그의 "작업은 창조라기보다는 발견"이라고 한다. 완전한 "무에서의 창조"(creatio ex nihilo)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단어이고, 삶의 신비를 찾는 여행자로서 자신의 작업은 "새로운 문 뒤에 있는 발견"과 같다고 한다.

2005년 윤애영은 프랑스 작가와 결혼한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작품 활동을 계속하시는 예술가이시라 그녀가 작품 활동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실 뿐더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때때로 남편은 윤 작가가 현실 속에 없는 여자 같기도 혹은 꿈꾸는 소녀 같다고 한다. 윤 작가 남편의 말은 그녀의 삶과 작품 저변에 흐르는 커다란 흐름을 대변한다 : 장주몽집(莊周夢蝶)!

<심은록/ 파리지성>

다음호에는 <비디오 '꿈'작가 윤애영 2부>가 계속됩니다.

비디오 '꿈' 작가 윤애영 -2

"수 많은 형용사를 동원하여 산딸기의 맛을 설명하더라도, 직접 그 맛을 보아야만 그 새콤 달콤한 맛을 느끼듯이, 제 작업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작품 속으로 들어가 숨쉬고 호흡하며 관객들 각자의 상상력이 어울려질 때 비로서 제 작업이 완성됩니다."

윤애영 비디오 작가는 그의 작업으로, 그리고 그의 꿈 속으로 관객들이 들어오기를 그래서 더이상 관객이 아닌 바로 작품 혹은 꿈 속의 주체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작업을 할 때, 윤 작가는 어느정도 기본적인 전체적인 구성은 가지고 시작하지만, 어떤 정형적인 틀을 정해놓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미리 규정해놓고 이를 따라한다면, 과거의 내가 작품을 하는 것이지, 작업을 하며 창작과 발견의 환희에 젖어 있는 현재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저는 작업을 할 때, '순'이라는 매체를 통해 또 다른 내가 나타나서 나를 조정하고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도 존중합니다."

"저항하는 인간은 아름답다"

2차원적 평면(회화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탐구 속에 탈출을 시도하고, 본인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던 윤애영 작가가 유학 초기 파리 보자르에서 석판화 과정을 지나, 비디오 설치와 퍼포먼스(행위예술)로 작품을 전개한 것은 자연스런 과정으로 보인다.

퍼포먼스와 영상설치를 연합한 비디오 설치작품 <저항하는 인간은 아름답다>(1995)는 조&윤 이름으로 발표된 공동작품이다. 어두운 공간 중앙에 있는 높이 190cm 내경80cm의 밀폐된 투명 캡슐은 보이지 않는 인간한계를 상징하는 벽이며, 캡슐내부에는 증기로 가득 차있는데, 이 증기는 실존의 불투명성과 우발성(opacité, contingence)을 상징한다. 캡슐 안에 있는 한 인간은 오랜 노력 끝에 힘들게 이를 깨고 나온다. 그는 캡슐 밖에 있는 복종으로 인해 얻어진 안정과 한움큼의 자유에 만족해 자신의 알(망사 천으로 상징)에 안주하여 웅크리고 있는 소극적인 인간의 의식을 깨우려고 노력한다. 퍼포먼스가 끝나면 빛이 사라지고 현정에 설치된 비디오 프로젝터로부터 저항의 몸

짓을 담은 인체의 영상이 캡슐과 그 후면에 설치된 스크린 위에 여러 겹의 변형된 형상으로 비추어진다. 이 작품에서 퍼포먼스는 '실존'을 상징하고, 비디오 영상설치는 실존의 <흔적>을 상징한다.

비디오 설치 <흔적>(1999/2006)은 작가가 현재까지 연작 작업으로 계속 전개해 오고있는 작품으로, 돌 위에 사람의 영상을 직접 투사한다. 돌덩이 위에 투영된 알몸의 인간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쫓는 듯, 무언가에 쫓기는 듯 걸어가다 쓰러지고 또다시 걸어가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까뒤의 "시지프스의 신화"를 연상시킨다. 돌위에 투사된 인간이 돌의 재질과 자연스럽게 섞여, 돌과 인간은 하나로 합쳐져 숨쉬는 돌로 살아난다.

작가에게 있어서 비디오는 흠어진 기억의 흔적들을 주어 담고 그리고 이미 지나간 순간의 영상을 통해 기억 속에 새겨지고,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날려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맞이한다. 영상이 움직이는 순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순간의 삶이 시간 속에 함께 존재한다. 이처럼 인간은 시간 속에 잠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고 마는 찰나적인 존재이지만, 작품 <저항하는 인간은 아름답다>와 <흔적>은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와 그 한계에 대한 저항을 비디오 영상 매체를 통해 時空을 넘어서고 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실존론적 한계에 저항하는 동양적 까뒤와 사르트르의 고뇌가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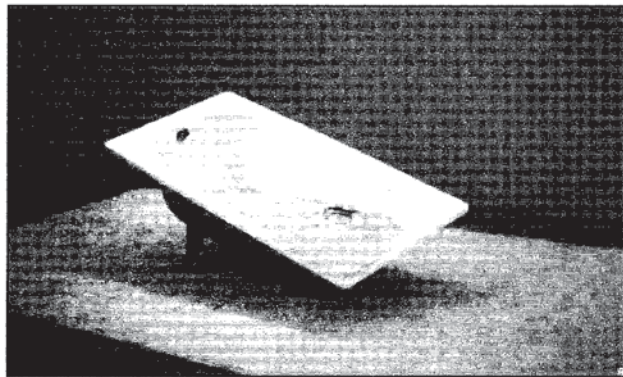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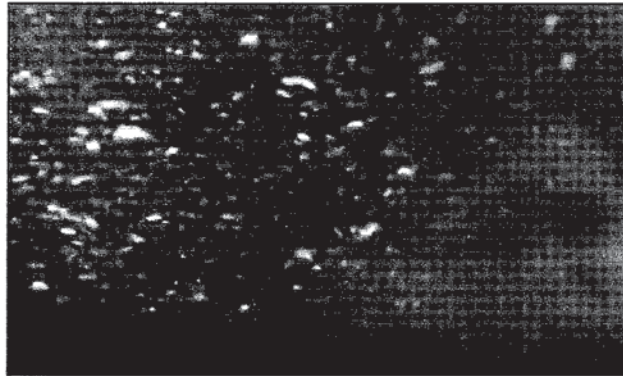
"심연"

前아트프레스 및 르몽드 미디어아트 평론가인 장 폴 파르지가 지적한대로, 조와 윤은 "남성&여성, 빛과 그림자 그리고 고품적 상징과 현대적 신호"로 나타나는 갈등과 화합의 이중주를 오랫동안 연주하며 공동작업을 해왔다. 99년이후부터 윤애영은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이중주를 연주하다가 독주자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끝없는 고통과 빈자리의 공허함은 <심연 3D>(2000)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은 2천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 프랑스 파리에서 기획한 전시로 빠리의 까르나발레 미술관에서 열렸던 "3차원의 파리"(Paris en 3D) 전시(2000.10.3-12.31)의 초청 작품이다. 이 전시는 철단

의 테크놀로지 예술의 역사와 이 시대 미래의 영상을 대표 할 수 있는 입체영상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시장 안에 낮설게 놓여있는 하나의 커다란 배럴통을 발견하게된다. 이브의 자손인 인간은 호기심에 못이겨 통 속을 들여다 본다. 배럴통 양쪽으로 마련된 입체안경을 끼고 통 안을 쳐다본다. 작품 "심연"은 입체영상으로 제작되었으며, 깊이가 1미터 밖에 안되는 배럴통 속을 쳐다보는 순간, 관람객은 끝이 없는 심연과 공허를 마주치게 된다. 입체영상으로 처리된 육체는 배경과 분리되어 관객들 눈 앞에 허상으로 떠다닌다 : 마치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노예상"을 연상시키는 한 남자가 빠리의 어두운 골목에서 혹은 세느강 위에 떠돌고 있다. 혹은 웅크리고 앉은 한 여자가 파리의 밤하늘에서 공기보다 더 가볍게 부유하고 있다.



장 폴 파르지가 "윤애영은 비록 200 리터 짜리 통이 아닌 작은 찻잔을 사용했을 지라도"심연"을 잘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상 오브제에 심연을 담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3차원적 단순한 일상세계를 통해 허공의 침상에서 잠을 자는 듯한 심연의 끝, 한 없이 깊기만한 심연의 나락에, 4차원적 영혼상태를 구체화시켜 표현해 냈다.

"비밀의 정원"

2000년대 초부터, 윤작가는 나무를 나타내는 작업을 많이 했다.

"저는 나무가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들 영혼과 같다고 느낍니다. 언젠가 좌절되고 삶에 지쳐 헤아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때, 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하늘과 나무를 하염없이 바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무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라보았던 나무의 가지는 거의 찢리고 하물며 기



동까지 찢렸는데도, 남아있는 가지 끝으로 새 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지가 찢리고 기둥이 찢리면, 더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말입니다."

비디오 설치 <비밀의 정원>은 바르셀로나의 메트로놈 재단 초대전(2001)에서 처음 보여졌고, 이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국립미술관(2001), 프랑스 뽕퐁스 아트센터, 바스 노르망디 현대미술센터(2005)에서 재연되었다.

500m2전시장의 전체 공간이 하나의 작품으로 설치였으며, 작품을 감상 하기위한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는 정원에서 관객들은 신비의 산책에 초청된다. 정원에는 야생에서 피는 화려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쓰지 않는 청순한 꽃 마가렛트가 가득피어있고, 매화꽃으로 만발한 나무가 발견된다. 마가렛트 사이사이 혹은 나무가지 사이 사이에 투명한 스크린들이 걸려있고, 그 위에는 더이상2차원적 평면이 아닌 3차원적 비디오 영상들이 마치 어슴프레한 기억과도 같이, 혹은 우리 자신의 영혼의 흔적과도 같이 머물거린다.

"비밀의 정원"이 설치된 전시장에서는 보물찾기하듯 이러한 영상을 찾아 다니는 사람, 숲속에서 거닐듯 정원을 산

책하는 사람, 하물며 나무 밑에 편안히 누워 휴식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꿈속에서 산책하듯이 산책을 합니다. 어떤 길은 막혀있기도 어떤 길은 열려있기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나무사이에, 꽃틈사이에 있는 영상들을 발견하기도, 때로는 그냥 지나쳐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느 길이 막다른 골목인지 관객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작가는 "관객들이 정원을 거닐며 가지게되는 수많은 상상력과 감정들이 보이지 않는 이슬이 되어 내려 앉아,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고 말한다.

"떠도는 시간"

한국에서 파리로 오며 비행기 창문을 통해 손에 만져질 듯 보이는 구름바다를 보며, 저위를 걸어볼 수 있다면 혹은 날아볼 수 있다면 하고 누구나 한번쯤은 잠시라도 상상해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이 시각화 된 것이 바로 "떠도는 시간(구름)"(2006)이다.

이 작품에서는 발가벗은 어린 꼬마가 구름바다 위로 걸어간다. 때로는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며 목적지가 보이지 않은 곳을 향해 계속 걷고 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지

를 모르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우리의 삶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끝없이 걷는다는 것이지 않을까요?"

"떠도는 시간(구름)"(2006, 비디오, 2mm), "떠도는 섬"(2002, 비디오설치). 제목 그대로 시간과 공간이 떠돈다. 우리는 '과거'(시간)에 '서울'(공간)이라는 섬에 잠시 머물렀듯이, '현재'는 '파리'라는 섬 위에 잠시 머물고 있다. 時空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정체성도 떠돈다: 한국인도 프랑스인도 아닌 떠도는 정체성. 윤애영의 삶도 작품도 항상 이 섬에서 또 다른 섬으로 부유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바다 표면 위에서 볼때 섬이 세상과 떨어져 따로 존재하고 부유하는 것 같아보이지만, 실제로 섬은 수면 아래의 땅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윤작가는 삶과 작품을 통해 체험하게 된다. 단지 보여지는 현상만 섬이지. 심층에서 섬은 결코 섬이 아니다. 모든 것이 깊은 곳에서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꿈속으로의 초대

"작품의 주제를 어떻게 찾으시나"는 질문에 윤애영 작가는 "마치 우리가 어떠한 주제의 꿈을 의식적으로 꿀 수 없고 꿈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저는 주제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제가 제게 다가옵니다"라고 대답한다.

"꿈은 만질 수 없지만 생생한 경험입니다. 저는 또 다른 어떤 시간 속에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꿈 속에서는 제가 동시에 프랑스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새가 되어 혹은 물고기가 되어 '이중적, 삼중적 동시 공간체험'이 가능하며, 또한 어린시절과 현재 자신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역시 '이중, 삼중적인 시간체험'이 가능합니다. 여러 공간을 난다는 이러한 사실도 한번 깨어나면 영원히 잊혀버리는 또다른 우리의 중요한 실존이자 현실이라고 봅니다. 제게 꿈속의 삶은 저의 또다른 2층의 삶입니다."

윤작가는 한 때 인도의 신비주의자 리즈니쉬나 신비주의 철학자 까비르에게 심취했었으며, 이 세계에서 보여지는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관심의 주대상이었다. 그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면 모두 좋았고, 그것

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더욱 좋았다. "물 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고 한다" (까비르, "천국으로 가는 시" 中)는 것은 마치 "군중속에서 고독"을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너무나 물질적인 것 만을 바라보는 세상에 비물질적인 것이 외면당하고 있다. 세상에 사람이 점점 가득차가는데도 사람들은 더더욱 외로와하고, 사랑과 관심이 목말라한다.

현대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존재의 망각"을 말했듯이, 윤애영작가는 우리에게 또다른 종류의 "망각"을 일깨우고자한다. 존재에 대해 사유하는 노력과 경탄을 통해 동물이나 기계와 구분되는 유일한 존재자인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점차적으로 망각하고 있다. 꿈과 신비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지나치게 대상화함으로써, "신의 죽음"(니체)에 이어 "너무나 이른 인간의 죽음"(미셸 푸코)을 맞이하게 되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 이후 현대문명에 이르기까지 "ready made"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의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hic et nunc"(지금 여기)라는 즉각성, 현재성에 함몰되어 "언젠가 혹은 다른 어느곳에"라는 신비성, 초월성, 무한성을 잊어버렸다. 어린 사과나무 묘목에게 지금 당장 사과를 맺으라고 요구하는 결과론적 사고, 혹은 사과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목적론적으로 기다리는 "hic et nunc"의 시대를 윤애영은 거부한다. 반대로 그는 사과묘목의 어린 아름다움에 신기해하고 감탄하며, 뜨거운 햇볕과 눈보라를 이겨내며 자라고 있는 사과나무를 꾸준히 지켜보며 순간순간을 놀라운 눈으로 관찰한다.

그렇다고 윤작가가 현대 문명을 거부하며 복고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대로 그녀는 우리에게 '익숙한' 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낯설어진' 신비의 세계로 초대한다. '문명'과 '신비'의 우위를 가려 양자선택을 강요하는 이원론적인 도식이 아니라 '문명의 언어로 신비'를, '첨단 테크놀로지로 꿈을 시각화'하는 노력을 윤애영은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평론가 장 폴 파르지는 "윤애영은 가장 현대적인 작업을 하면서 사고가 테크놀로지에 점령되어 인간적인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테크놀로지를 넘어선 단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Paris에 거주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있는 비디오 설치작가 윤애영의 비디오 설치

작품은 이미 프랑스 국립현대미술 컬렉션 소장(F.N.A.C),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등 그리고 여러 비중에 있는 개인 또는 갤러리 콜렉처너에게 소장 되어 있을 정도로 그의 작품은 가치를 인정받고있다.

윤 작가는 파리 중심의 갤러리 지역에 위치한 '알베르 배나무', '마미아 브레티쉬', 룩셈부르크에 있는 '특시' 갤러리의 전속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의 초대로 서울국제 아트 페어인 KIAF(KIAF) 전시와 개인전 및 비엔날 빌레너브 전시등 여러 전시를 위해 부지런히 작업 중에 있다.

그는 현재 갤러리 알베르 배나무

<심은록 /파리지성 >

윤 애 영 YUN Aiyong

- 1962 충청북도 증원군(중주)출생. 충북 제천에서 초.중.고.
- 1988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 1989 도블
- 1993/8 파리 8대학 조형 예술학과 학사(Licence) & 석사(Maitrise) 졸업
- 1993 파리 국립 고등 미술학교 졸업 (E.N.S.B.A. 일명 파리 에콜데 보자르)
- 1994 교환 장학생 (파리국립 고등 미술학교 - 영국 윈체스터 미술대학)
- 1995 다나에 (Fondation Danae)미술재단 .설치미술가 초대작가 . 프랑스
- 1996 보막쇄 예술 재단상 - 혼합매체 부문. 비디오 퍼포먼스 "COMA", 프랑스
- 1997/9 삼성 문화재단 선정작가, 파리 삼성 아틀리에 입주 활동
- 1999 제 12회 이브리(Ivry s/seine) 도시 조형물 공모전 준우승. 크레닥CREDAC 이브리 아트센터(Ivry Art center), 프랑스
- 2001 이브리 아트센터-크레닥 Le crédac (Centre d'art d'Ivry) 초대작가 아틀리에 입주활동, 프랑스

주요 개인전

- 2006 갤러리 특시, 룩셈부르크
- 2005 노르망디 현대 미술아트센터, 빠비옹 노르망디, 경(Cean), 프랑스
- 2005 레드 브리지 아트 갤러리, 볼로다(Vologda), 러시아
- 2005 2인전(Paris-New york), 갤러리 2x13, 뉴욕
- 2003 생풍 아트센터, 생풍(리옹), 프랑스
- 2002 러시아 국립미술관, 상트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 2001 풍다시옹 메트로놈 (Fondation Metronom), 바로셀로나, 스페인
- 2001 뮤지움 샤토 미술관 (Meusee Chateau), 안느시 (Annecy), 프랑스
- 2000 아르코 국제 아트페어 (ARCO), 갤러리 피이드 깔베르, 마드리드, 스페인
- 1998 갤러리 레 피이드 깔베르, 파리, 프랑스

그외 다수 개인전

주요 최근 전시

- 2007 - 디지털&비디오 아트페어(DIVA), 갤러리 마미아 브레티쉬,루브르 앙티케르, 파리
- 비엔날 테살로니, 테살로니, 그리스
- 비데오-사진 페스티벌, 타슈켄트 & 키바, 우즈베키스탄
- 레지스탕스, 국제 비디오 스크린 우먼스 코스, 뉴욕
- 아트 파리, 그랑팔레, 알베르 배나무 갤러리, 파리
- 프라질(펄링크), 현대 메다어 아트 미술관, 베르린,독일
- 베니스 비데오 아트페어, 갤러리 마미아브레티쉬, 베니스, 이태리
- 프라질(펄링크)/ 레지스탕스,말라 스타니카, 스키푸, 마케도니아
- 뉴 미디어 아트 문화 센터, 로꼬모티바, 마케도니아
- 2006 - 펄링크,유럽 현대미술 비엔날, . 에코스, 에단버르그/ 바르소비,폴란드
- 3인전, 몽파르나스 뮤지움, 파리
- 슈이트 프레엔, 빠샤즈 드 레츠, 파리
- 2004 - 뉴 블랑슈, 다지바오 이마쥬, 피에르 마리큐리 대학전시관, 파리
- 2003 - 기시아트 갤러리, 상트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 한 민족의 빛과 색,이와테(Iwate) 국립 미술관, 동경, 일본
- 파리 국제 아트페어 피악(FIAC), 파리, 프랑스
- 2002 - 아르 트랑스메디아, 다나에 재단 미술관, 히온, 스페인
- "비디오 포름 "(VIDEO-FORMES), 르제 큐이오 뮤지움, 클레르몽 페랑, 프랑스
- 또다른 이야기, 국립 현대 미술관, 과천 / 오사카 국립 미술관, 일본
- 서울 시립 미술관 개관전, 한 민족의 빛과 색, 서울 시립 미술관,서울
- 신체풍경,삼성 로맹미술관, 서울
- 2001 - 3차원의 허상 (Illusion de en 3D), 인스티튜 프랑스, 스투트가르트, 독일
- 2000 - "3차원의 도시 파리"(Paris en 3D), 카르나발레 뮤지움, 파리

그외 다수 단체전

Parisjisanng 26.03.2008 3/3

알림. <예술가와의 만남>은 2주간 쉽니다.

2주 후, 신성희 화백님과 함께 다시 독자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Торжественный момент открытия галереи. Его ждали три года...

ФОТО АНАТОЛИЯ СМОЛИНА

На «Красном мосту»

1 декабря в Вологде, в Заречье, у Красного моста, открылась частная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галерея, позаимствовавшая имя у моста. Три года без своего постоянного помещения галерея «Красный мост» активно действовала в культур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Даже количественные результаты её работы впечатляют. Здесь выставились 26 художников из Вологды, Ярославля, Курска,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Проведено пять пленэров в Италии, Вологде, Тотьме, Костроме и Плесе. Собрана тысяча единиц хранения для будущей галереи. В ходе бурной выставо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ыпито 650 литров шампанского.

Три года Вологда ждала появления новой галереи, собрание которой оформится по тр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наследие, традиции и новаторство.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Иван Поздняков назвал дело её создательницы, известного вологодск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Нинель Коминой, подвигом. И заметил, что «она «похорони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монополию на развитие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оцессов в культуре».

Один из крупнейших искусствоведов и знатоков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 Иван Порто из Москвы определил вологодское событие старорусским словом «невидаль». В нынешней России открыти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алереи с нуля - настоящая невидаль в самом добром, изначальном смысле этого слов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фонда всемирно знаменитого музея Гугенхайма в Нью-Йорке Семен Михайлович к событию открытия новой галереи приравнял личное открытие: «Вологда -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регион с фантастическим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отлично разбирающимися в искусстве, что в России большая редкость».

Авторы концепции галереи - её хозяйка Нинель Комина и искусствовед Галина Деметьева - для торжества ее открытия выстроили впе-



Художница Аюнг Юн и начальник департамента имущ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толий ПАК.

чатляющую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вертикаль. Выбрав точкой отсчета творчество художников начала XX века и обозначив, кто мы и откуда, они очень вовремя вернули в культурную жизнь Вологды динамичный девиз из того времени. Учащие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вобод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мастерских провозгласили в 1919 году в Вологде: «Провинция спит, она инертн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искусству. И перед нами стоит огромная задача разрушить такое отношение к искусству. Мы ищем и говорим, что жизнь есть движение, а потому кто не движется, тот не живет. Мы не говорим, что за нами будущее,

его создадут люди будущего, а говорим: за нами должно быть настоящее».

Как замечательно, что настоящее, благодаря создателям «Красного моста», будет у нас всех. Проект открытия галереи привел в «Тайный сад» кореянки Аюнг Юн, живущей в Париже. Её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я, занявшая второй этаж новой галереи, как воплощенный на земле райский сад, чарует и завораживает магией одухотвор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нем каждому по-своему уютно, тепло и комфортно. Мир возвращенной и обретенной красоты подарил «Красный мост» вместе с талантливой художницей.

Галерея «Красный мост» открылась, заставив ахнуть своих самых первых, искушенных посетителей. Романтический подарок к Новому году и Рождеству оказался удачным и ярким.

Наталья СЕРОВА.

— ВПЕЧАТЛЕНИЕ —

Таинственный садовник Аюнг Юн

Серое небо, слякоть, угрюмые лица - так иногда хочется увидеть что-то светлое и доброе, которое поможет вырваться из гнетущей тоски! В ближайшие два зимних месяца жители и гости Вологды имеют хорошую возможность не впасть в депрессию.

Дело в том, что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что открывшейся галерее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расный мост» вас приглашают в таинственный фосфоресцирующий сад. В центре этого сада цветет миндальное дерево. На ветвях дерева - прозрачные экраны: вы видите летящую над потоком воды женщину. Вы слышите шум водопада, порывы ветра, когда ходите по дорожкам сада, где среди искусственных цветов расцветают видеопроекции. В саду вроде бы темно, но благодаря спокойствию и умиротворенности, парящим в нём, человек вдруг вспоминает, что, оказывается, можно жить спокойно, без спешки и гнева.

Автор мультимедийной инсталляции - корейская художница Аюнг Юн, живущая в Париже. Она - одна из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х молодых видеохудожников в мире, автор персональных выставок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Лондоне, Мадриде, Париже.

Художница говорит:

- Для меня Россия - это мост между моей родиной и Францией.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я пролетала над Россией на самолете, мне очень хотелось открыть для себя эту неизвестную, удивительную страну. Поэтому я и решила познакомить жителей Вологды со своим творчеством, пригласить их в свой «Тайный сад». Каждый посетитель моего сада становится моим другом, он видит мои сны и мечты, которыми я охотно делюсь с друзьями. Надеюсь, что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зашедший в мой сад, найдет здесь что-то свое, родное.

Аюнг Юн считает, что людям со всего мира, собирающимся в «Тайный сад»,

есть о чем помолчать друг с друго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делиться самым главным, слова не обязательны. Нужно просто попытаться заглянуть в свою душу и, увидев добро, поделиться им с другими.

Видео-арт заинтересовал художницу с тех пор, как она стала в детстве рисовать. Аюнг Юн очень хотела «оживить» свои рисунки и, став уже настоящим мастером, она решила знакомить людей со своим творчеством только при помощи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й.

Жанр видео в современном искусстве - самый молодой и самый, пожалуй, впечатляющий. Крупные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редко проходят в России, в остальной Европе их тоже не очень много.

Пригласившая французско-корейскую художницу Нинель Анатольевна Комина, директор и владелица галереи «Красный мост», сказала:

- Наша галерея осуществляет этот некоммерческий проек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без спонсорской поддержки. Мы считаем важным в наше сложное и хмурое время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каждому человеку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прекрасному и получить новые яркие впечатления. Проект «Тайный сад» - это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добрых, челове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людьми. Мы должны стать добрее и уметь разговаривать друг с другом, преодолева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ую вражду. Я уверена, что тихий, спокойный и добрый «Тайный сад» Аюнг Юн поможет нам в этом.

Петр ДАВЫДОВ.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я «Тайный сад». Фрагмент.

Мост в будущее

Первая вологодская частная галерея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обрела собственный дом.

ЭКСПОЗИЦИИ галереи «Красный мост» уже не первый год вызываю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публики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 время своей работы галерея заняла определенную культурную нишу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и, собрала вокруг себя разнообразное и интересное сообщество художников,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самые разные течения и направления.

До недавних пор, все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Красным мостом» выставки проводились «в гостях», в различных зала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Обретение галереей собственного здания стало огромным рывком вперед. Здесь можно явить миру всю мощь наработанной за годы выставочной практики, достой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произведения из собствен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оллекции, насчитывающей около 1000 единиц хранения.

Особо отметим, для постройки здания подвижники культуры не выпрашивали деньги, ходя с протянутой рукой по властным кабинетам. Новый дом по Набережной VI армии, 143 — заслуга владелицы галере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ницы Нинель Коминой, е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соратников и помощников — людей, влюбленных в искусство, не ждущих «монаршей милости».

«Сегодн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онополии на произведения искусства пришел конец», — с улыбкой констатировал один из высоких гостей, пришедших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галереи.

Работа на новом месте началась с проекта необычного и непривычного для нас — экспозиции «Тайный сад». Масштабные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и вообще редкость в российских выставочных залах. Видеохудожница Аюнг Юн, кореянка, живущая в Париже, до знакомства с Нинель Коминой даже не подозревала о существовании такого города, как Вологда. Тем радостнее для нее стало знакомство с новой публикой, которой госпожа Юн с волнением представила свое творение.

Аюнг Юн метафорически назвала свою инсталляцию «Тайный сад» «сновидением». «Ночи напролет в моих снах я плаваю, как рыба, я летаю в облаках, как птица... Моя душа парит вместе с ветром, не ведая, с чем она встретится... и где найти смысл жизни... «Сад» представляет мои сны, а дерево с образами — мою душу», — рассказала художница.

В темном зале зрителю предлагается побродить по тропинкам в поле белых маргариток. В центре зала возвышается дерево, усыпанное белыми цветами. С его ветвей свисают полупрозрачные ткани, на которые проецируются образы. На этих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ых экранах — нагие тела, плывущие и растворяющиеся в потоке воды. Прогулка по «саду»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журчанием воды и шелестом листьев.

Если творение Аюнг Юн можно назвать синтезом эстетики и технологии, то галерея «Красный мост», несомненно, синтез любви к искусству и деловой инициативы.

Юлия Низенко ■



мероприятие



Нинель Комина и Аюнг Юн на открытии галереи.



«Тайный сад» воплотил сны и душу Аюнг Юн.

В ГАЛЕРЕЕ «КРАСНЫЙ МОСТ» РАСЦВЕТЕТ «ТАЙНЫЙ САД»...



1 ДЕКАБРЯ В ВОЛОГДЕ СОСТОИТСЯ ПРЕЗЕНТАЦИЯ КРУПНЕЙШЕГО КУЛЬТУРНОГО ПРОЕКТА ПОСЛЕДНЕГО ПЯТИЛЕТИЯ - ЧАСТНОЙ КАРТИННОЙ ГАЛЕРЕИ НА НАБЕРЕЖНОЙ 6-Й АРМИИ, 143.

Этот дом, известный местным краеведам как бывший особняк купцов Клушиных, был восстановлен в строгом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архитектурным оригиналом на средства некоммер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Красный мост». Вдохновитель и организатор проекта - руководитель «Красного моста» Нинель Комина - сообщила нашему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что работа галереи начнется с фантастически красивой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и, равных которой российская провинция еще не знала!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я -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овый жанр, своеобразный синтез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и автор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Одним

из крупнейших мастеров в этой сфере творчества считается известная французская художница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Аюнг Юн. Ее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я «Тайный сад», впервы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ная российской публике в Мраморном дворц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музея, имела оглушительный успех и целую библиотеку восторженных рецензий.

«Аюнг Юн удалось невысказанное, - писал один из рецензентов. - С помощью видеопроекторов, лазеров, трехмерных образов и звуков она конструирует мир своих внутренних фантазий и грез... В темном зале в

цент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флуоресцирующего сада цветет миндальное дерево, зал наполнен шумом водопада, и над этой феерической картиной проступает объемный образ обнаженной Аюнг, то ли грезящей наяву, то ли медитирующей...»

Именно эту инсталляцию художница представит воложанам во вновь открывающемся помещении галереи «Красный мост» на набережной 6-й Арм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ожидают много именитых гостей из мира культуры,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ессы и поклоннико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содействие мероприятию оказывают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ведущие СМИ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включая «Газету 35»...

Михаил ЛЬВОВ.

Газета 35 30.11.2008



МИЛОВАЯ СКАЗКА

1 декабря в галерее «Красный мост» (Набережная IV Армии, 143) появился удивительный мистический уголок –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я молодой художницы кореянки Аюнг Юн под названием «Тайный сад».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я – новый для вологжан жанр, сочетающий в себе пространство, звук и видеообразы. В лилово-синих сумерках этого сада расстилаются усеянные белыми маргаритками поляны, среди которых вьются тонкие тропинки. Среди цветов прячутся маленькие видеофантазии: то маргаритка подмигивает вам глазом, то среди стеблей бежит малыш... А в центре зала – огромное хрупкое цветущее миндальное дерево, на ветвях которого колыхнутся полупрозрачные двойные-тройные экраны и на каждом из них – под звуки ветра, воды и шепота листьев прокручиваются небольшие видеофильмы. Рассказать об

этом сложно – это надо видеть и слышать. Призрачный, мистический мир Тайного сада заставляет остановиться среди вечной суеты и суматохи и заглянуть в себя – куда ведет твоя дорожка? «Ночи напролет в моих снах я плаваю как рыба, я летаю в облаках как птица... Моя душа парит вместе с ветром, не ведая, с чем она встретится... и где найти смысл жизни... «Сад» представляет мои сны, а дерево с образами – мою душу», – говорит художница. Это поистине новый, необычный вид медитации в пространстве, созданном руками талантливой и тонко чувствующей Аюнг Юн.

Соединение мира образов и чувств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лазерными и видеотехнологиями породило новый вид искусства у которого большое будущее – это выводит нас за рамки живописи и музыки, соединяя их в философскую сказку наяву.

Наталья НОВИНСКАЯ



1 декабря в нашем городе открылась уник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Арт-галерея «Красный мост» представила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художницу, творящую в жанре видео-арт. Течение это в мировом искусстве новое, а для нашего города вообще сенсационное. Парящие в движении картины, цветущий в полумраке сад – такое увидишь не каждый день! Главная виновница этого действия, Аюнг Юн – личность в мире известная и уважаемая. Перед открытием своей инсталляции художница дала нам интервью.

Влада Мир

ПРЕЗЕНТ: Почему Вы выбрали именно видео-арт как способ самовыражения и откуда Вы берёте идеи для своих работ?

АЮ: Я не могу причислить себя ни к одной из наций. Я – над этим, именно это я воплощаю в своих инсталляциях. Образы, парящие в воздухе – это я, мое видение себя.

ПРЕЗЕНТ: Почему Вы выбрали именно видео-арт как способ самовыражения и откуда Вы берёте идеи для своих работ?

АЮ: Если бы я хорошо пела, я бы стала певицей, если бы я хорошо танцевала, стала бы танцовщицей. Но я не умею ни того, ни другого. Единственный способ выразить мою душу – это мои инсталляции. Все, что вы видите в них – это образы из моих снов, я парю во сне меж пространством и временем, и хочу, чтобы именно это чувствовали посетители выставки.

ПРЕЗЕНТ: Инсталляция называется «Тайный сад». Почему?

АЮ: Все пространство в зале покрыто полумраком, звучит необычная музыка, вас окружают волшебные цветы. В саду множество дорожек,

одни переходят в другие. Где-то вы зайдете в тупик. А где-то вам встречу попадутся бегущая девочка, парящий во Вселенной человек... Всё это создает необычайно полную картину таинственности. В моем саду человек размышляет, находит успокоение и становится частью этой тайны.

ПРЕЗЕНТ: Вы побывали во многих городах мира, может, и Вологда вам чем-нибудь запомнилась?

АЮ: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теперь мой «Тайный сад» зашёл и в Вологде.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я увидела ваш город полностью, хотя очень хотелось. Больше всего меня потрясла архитектура. Ваши маленькие деревянные домики – просто чудо!

ПРЕЗЕНТ: А русские люди вам чем-нибудь запомнились?

АЮ: Русские – очень весёлые, а ваши девушки – очень милые. Мне бы хотелось пообщаться с русскими побольше, но мешает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Приходится объясняться практически на языке жест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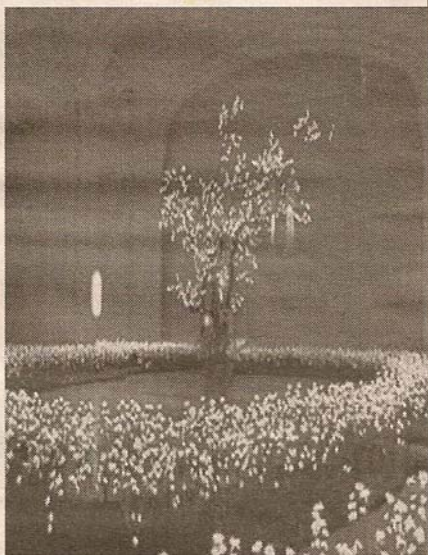
ПРЕЗЕНТ: Можем ли мы надеяться, что впечатления от России отразятся в ваших новых работах?

АЮ: Я постоянно перелетаю из Франции в Корею, нахожусь где-то между Европой и Азией, как и ваша страна. Россия в этом смысле очень значима для меня. Идея следующей выставки – секрет, но мои впечатления от России слишком сильные, чтобы остаться незамеченными.

Посетить выставку
вы можете по адресу:
Набережная 6 Армии 143.
Цена билета: 50-100 руб.



В Вологде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прошло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очного сезона галереи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расный мост» в новом здании.



ФРАНЦУЖЕНКА ОТКРЫЛА В ВОЛОГДЕ «ТАЙНЫЙ САД»

В рамках открытия нового сезона в галере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уникаль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екта – выставка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й под названием «Тайный сад» кореянки Аюнг Юн, живущей и работающей в Париже. В пространстве «темного зала» соединяются высокие технологии, европейский психологизм и восточная красота. «Тайный сад» - это воссозданный с помощью видеопрооекций, лазеров и трехмерных образов, и звуковой мир воспоминаний и фантазий Аюнг Юн. Данная выставка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 галерее вплоть до конца января. Посетить ее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входной билет для взрослых стоит 100 рублей,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студентов и пенсионеров - 50. Помимо этого, в рамках открытия сезона в галерее «Красный мост» будет выставлена экспозиция из коллекции галереи, а также полотна мастеров начала XX века из собрания Волого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ко-архитектурного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заповедника, причем ряд произведений будет экспонироваться впервые.

재불 여성작가 8인 '한·불수교 120주년' 기획전

『파리 함혜리특파원』 30대에서 80대까지 3세대에 걸친 재불 여성화가들의 다양성과 활력을 보여주는 특별 기획전이 파리 시내 유명화랑 파사주 드 레츠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개막됐다. 24일까지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번 전시회는 주불 한국문화원(원장 모철민)이 한·불 수교 120주년을 맞아 기획했다.

이성자, 방혜자, 진유영, 윤희, 한순자, 한명옥, 윤애영, 구정아 등 8인의 재불 여성작가가 회화, 조각, 비디오, 설치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성자(88) 화백은 재불 한국 작가 가운데 최고 원로다. 1951년 프랑스로 건너와 에콜드파리의 서정적 추상운동에 가담했다. 대지와 여성, 도시, 음악, 우주 시리즈 등 반세기가 넘는 기간에 만들어진 풍부한 회화와 판화의 세계가 시대별 대표작 중심으로 소개된다.

40여년간 빛을 탐구하는 회화 작업에 몰두해 온 '빛의 구도자' 방혜자(69) 화백은 빛이 쏟아지는 공간 속에 입체적으로 회화를 설치했다.

진유영(60)씨는 사진과 회화의 경계에서 대상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시도하는 작가. 이번 전시회에서는 높이 2.9m, 길이 13m의 대형 풍경화 '다가강-한강'을 선보이고 있다. 조각가 윤희(56)씨는 강한 열과 에너지로 단련된 흔적을 가진 조각작품 설치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사했으며 한순자(54)씨는 회화와 디지털 애니메이션, 설치를 통해 색과 형태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무명실, 감자, 쌀 등 일상적인 재료를 사용해 인간의 조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일깨우는 한명옥(48)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무수히 많은 쌀알을 쌀아올린 '쌀의 벽'을 선보였다. 멀티미디어 설치 작가 윤애영(42)씨는 꿈과 기억의 이미지를 비디오로 재구성한 '비밀의 정원'을 소개했다. 퐁피두센터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는 구정아(39)씨는 제작과 전시의 상식적인 개념에 도전하는 '우스랜드'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김애령 전시기획자는 "이번 전시에 초청된 8명은 재능과 용기, 인내를 바탕으로 프랑스에서 독창적인 세계를 개척한 작가들로 그들의 예술과 삶에 대한 관점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형성한다."고 소개했다.

lotus@seoul.co.kr

| 기사일자 : 2006-06-02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글로벌코리안] 한인 여성 작가들, 파리서 특별전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유명 한국인 여성 미술가들이 공동 전시회를 열었다. 한.불 수교 120주년을 맞아 주불 한국문화원(원장 모철민)이 특별히 기획한 행사다. 1951년 프랑스에 건너와 50년 넘게 작품활동 중인 이성자 화백(회화.판화)을 비롯해 방혜자.진유영.윤희.한순자.한명옥.윤애영.구정아씨 등 8명의 회화.조각.비디오.설치 작품이 '파사즈 드 레츠' 갤러리에서 24일까지 전시된다. 가장 연장자인 이성자(88) 화백은 반세기가 넘는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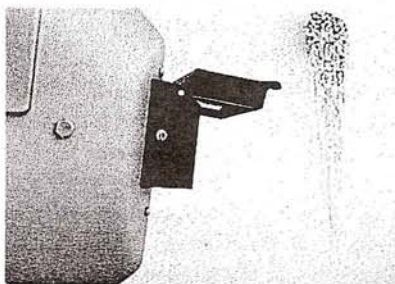
간 자신이 프랑스에서 제작한 작품 중 시대별 대표작들을 모아 전시회에 출품했다. 40여 년간 빛을 탐구하는 회화 작업에 몰두해 '빛의 구도자'로 불리는 방혜자(69) 화백은 빛이 쏟아지는 공간 속에 입체적인 회화 작품을 설치해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조각가 한명옥(47)씨는 무수히 많은 쌀알을 쌓아올린 미니어처 만리장성 '쌀의 벽'을 선보였다. 백남준에 이어 풍피두 센터에서 개인전을 연 두번째 한국작가인 구정아(38.데생, 설치)씨는 '우스 랜드'라는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다양한 문화의 기억과 하찮은 일상, 동심과 장난기가 뒤섞인 상상의 나라를 통해 작가의 정신세계를 투영하고 있다. 전시회를 기획한 큐레이터 김애령씨는 "이번 전시에 초청된 8명의 작가는 프랑스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성장했을 뿐 아니라 재능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개척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그들의 예술과 삶에 대한 관점, 인내와 끈기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철민 문화원장은 "한.불 수교 120주년을 맞아 세대를 대표하는 재불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역사적인 조망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의 120년 수교 역사는 한국 근대미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1927년 이종우 화백이 한국 작가로는 처음 프랑스로 향했고, 여성화가로는 나혜석씨가 27년과 28년 파리에 처음 거주했다. 이후 50년대 들어 한국 근.현대 주요 미술가들이 프랑스에 터를 잡기 시작했다. 현재 프랑스에서 미술수업을 받는 학생과 한국 작가들은 500명이 넘는다고 한다. 파리=박경덕 특파원



Le temps qui flotte



Un mois après sa réouverture, la galerie Toxic, 2, rue de l'eau à Luxembourg, inaugure déjà, ce soir dès 18 heures, sa deuxième exposition. *Floating Time* est une installation vidéo de l'artiste coréenne Yun Aiyoung, née en 1964, qui vit et travaille depuis 1989 à Paris (jusqu'au 3 janvier, du mercredi au samedi de 14 à 18 heures). **jh**



Mutations

La galerie Toxic démarre sur les chapeaux de roue. Après une brève exposition de groupe inaugurale, Armand Hein montre actuellement, dans son nouvel espace du 2 rue de l'eau, une exposition monographique de l'artiste Yun Aiyoung (née en 1964 en Corée du Sud, elle vit et travaille depuis 1989 à Paris). Dans *Floating Time*, Yun montre des photographies, une installation lumineuse et surtout quatre installations vidéos, qui créent un univers onirique, jouissif (photo du haut : ©TPC). Les deux arrières-salles, complètement plongées dans le noir pour accueillir *The Trace* et *Floating Island*, deux installations impressionnantes, avec des projections de figures humaines perdues dans le monde, illustrent le mieux ce propos. L'exposition dure encore jusqu'au 3 janvier et sera suivie, trois jours plus tard, par *Screenmemory*, une exposition monographique de l'artiste français Olivier Dollinger (photo du bas ; la galerie est ouverte du mercredi au samedi de 14 à 18 heures ou sur rendez-vous au téléphone 26 20 21 43 ou 621 26 47 80 ; e-mail : toxicgalerie@voila.fr). **jh**

➤ Luxembourg: exposition Aiyoung Yun à la galerie Toxic

Flottements lyriques

Le galeriste Armand Hein consacre la deuxième exposition de sa nouvelle galerie à l'artiste coréenne Aiyoung Yun, née en 1964 et qui vit depuis 1989 à Paris.

SOPHIE RICHARD-REISEN

Dans ses photographies et ses vidéos, Aiyoung Yun nous présente la réalité de manière décalée, de sorte qu'elle finit par évoquer un monde parallèle, un espace rêvée et fantasmagorique. C'est un univers «*souvent tourné sur lui-même*» explique l'artiste, ce qui ne signifie pas qu'il est fermé aux autres. Au contraire, il se présente comme un «*cocon accueillant, dans lequel l'esprit flotte dans un état second, alors que le corps se promène*».

L'installation vidéo et sonore *Floating Island* (2003) est présentée dans une pièce entièrement plongée dans le noir. Un socle est recouvert de fleurs d'amandiers artificiels, dont les pétales en tissu blanc accrochent parfaitement la lumière bleuté phos-

phorescente. L'île qui flotte au milieu de cette étrange installation est en fait un corps féminin. Cette femme nue est projetée sur deux écrans en voile transparent, ce qui donne l'impression de trois dimensions. Son corps se meut librement, comme en apesanteur, dans un espace bucolique, comme l'esprit dans un rêve.

SECONDES D'ÉTERNITÉ

Dans l'art d'Aiyoung Yun, la notion de «flottement» est primordiale: balancements entre deux mondes, entre deux pays, entre deux espaces; mais aussi errements entre deux temps, entre deux rêves. *Floating Time* (2006) est une vidéo qui montre le ciel filmé juste au dessus des nuages à partir d'un avion. Un personnage dénudé et des sortes de petites étoiles incandescentes sont projetés dessus. Pour Yung, cette œuvre exprime le vagabondage de la pensée, le sentiment que l'on peut éprouver lorsqu'on regarde un arc en ciel ou un paysage enneigé et que notre esprit erre et «*voyage vers le ciel*».

Traces (2001) explore la notion du temps qui s'écoule. La vidéo d'un homme nu qui mar-

che péniblement est diffusée sur un gros caillou à la surface courbe et lisse. Le personnage masculin se meut avec difficulté, on entend son pas lourd, son raclement sur le sol. Cette vidéo explore la notion de la vie qui passe et des hommes qui avancent et marchent sans toujours savoir où ils vont.

Des photographies sont également tirées de ses vidéos et installations. C'est, par exemple, le cas avec *Jardin secret* (2004), qui montre une nature onirique et mystérieuse, peuplée de fleurs et d'arbres étranges qui baignent dans une lumière tamisée bleutée. Ces photographies se présentent comme les jalons de l'univers artistique de l'artiste.

Les vidéos permettent de saisir toute la complexité de l'art d'Aiyoung Yun. Les courtes séquences filmées passent en boucle, comme des moments privilégiés éternels, comme des «*rêves qui ne durent que quelques secondes, mais qui expliquent tout*».

*Aiyoung Yun – «*Floating time*». Galerie Toxic 2, rue de l'Eau, L-1449 Luxembourg. Tél.: 621.26.47.80 ou toxicgalerie@voila.fr Du mercredi au samedi de 14.00 à 18.00h ou sur rendez-vous. Jusqu'au 3 janvier 2007.

The St. Petersburg Times

NO. 88 (822)

FRIDAY, NOVEMBER 22, 2002

WWW.SPTIMESRUSSIA.COM

St. Petersburg, RUSSIA

The St. Petersburg Times (daily newspaper)

Nov 22, 2002

things are rarely what they seem

by Andrei Vorobei
SPECIAL TO THE ST. PETERSBURG TIMES

exhibit In the novel "The Garden of Forking Paths," by Argentinean author Jorge Luis Borges, a Chinese governor named Tsui Pen turns down the throne in order to write a book and create a labyrinth. After Tsui's death, his papers were indecipherable, due to their incoherent and self-contradictory nature, and the labyrinth remained undiscovered. One of the book's heroes, Englishman Dr. Stephen Albert, discovers that the book and the labyrinth were the same thing, and that the key to solving the riddle is time.

Tsui Pen did not believe in unified, absolute time but, rather, in an innumerable multitude of timelines — a growing network of divergent, convergent and parallel lines. The "forking paths" in the novel's title refer to bifurcations in time, not in space. The hero in Tsui Pen's text was given choices and had to pick one. Instead, however, he chose all of them, producing several different versions of the future — similar to the concept in astrophysics of "sum-over histories" — that, in turn, multiply and diverge. Thus, his book remained an incoherent, contradictory, unfinished mystery.

The video installation "Secret Garden" that opened last week at the Russian Museum's Marble Palace is similarly unfinished, according to its cre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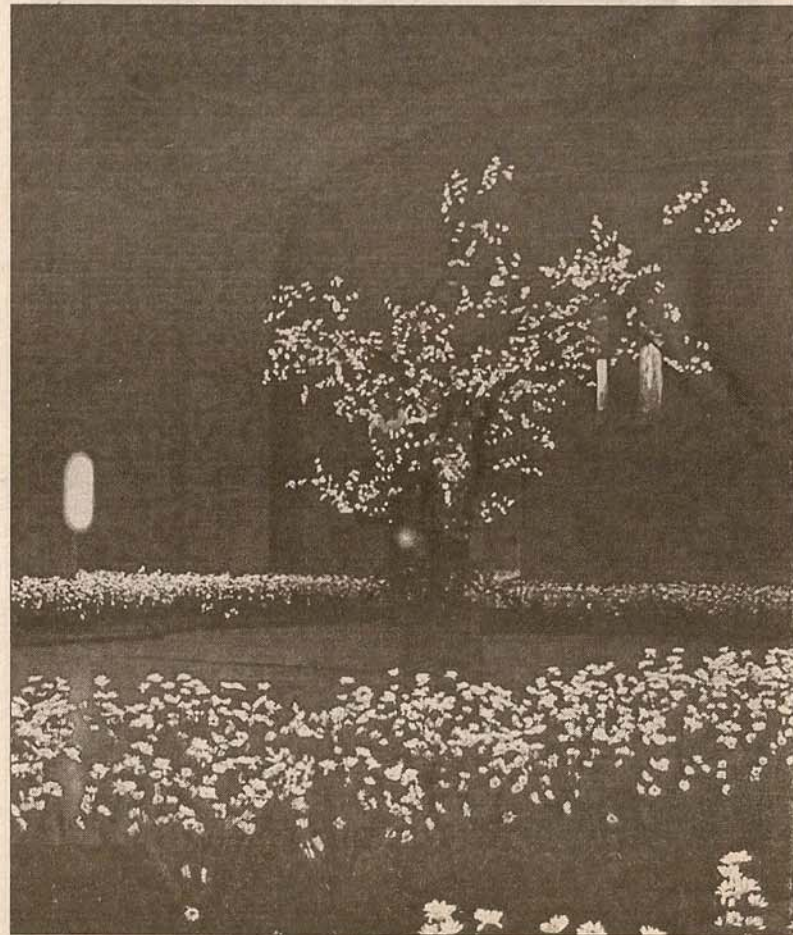
Paris-based Korean artist Aiyoung Yun, and is similarly open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understandings and choices. The work can be seen as an embodiment of Tsui Pen's "garden of forking paths" — a labyrinth of time offering multiple choices, and the simultaneous existence of parallel worlds.

The "Secret Garden" takes up two halls, and is interesting, among other reasons, for its three-dimensional resolution of space. It comprises an artificial, neon-lit dark garden with white chamomile flowers and a set of forking paths. The first part of the garden contains a spring almond tree set against a river backdrop. The tree is covered, not with leaves, but with videos of a naked man — a symbol of basic personality, stripped of individuality and social identifiers — floating in space.

According to Yun, "the installation is a confrontation of the conscious space, symbolized by the tree, and of the unconscious space, symbolized by water." The garden is accompanied by a score of artificially produced sounds from nature. The forking paths lead visitors to various video objects, "senses" that depend on the visitor's choices.

But beware, says Yun, for "among these sprawling labyrinths, you will find illusions most seductive and truths most elusive."

"Secret Garden" runs through Dec. 30 at the Marble Palace.



Aiyoung Yun's work is symbolic of the "garden of forking paths."

Душевные корейские сны

Русский музей показал фантастическую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ю

Масштабные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и в российских выставочных залах — редкость. А между тем жанр видео в современном искусстве — самый популярный и, возможно, самый впечатляющий. Луч видеопроектора — любимая «кисть» современных художников во всем мире. С его помощью можно создавать все — от простых рассказов о жизни до волшебных комнат, как у Аюнг Юн, чья выставка «Секретный сад» открылась вчера в Мраморном дворце.

Анна МАТВЕЕВА

Искусство и техника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и чаще всего состоят просто из нескольких мониторов или экранов, где происходит какое-то действие. «Секретный сад» Аюнг Юн гораздо масштабнее. Это больш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наполненное неясными образами и моментально «забирающее» зрителя. В эт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художница воспроизводит собственный внутренний мир, но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и собственную биографию: биографию наследницы древней культуры, уроженки страны — мирового технического лидера, много лет живущей в Париже.

В «Секретном саду» в одном зале сошлись высокие технологии, европейский психологизм и очень восточная красота — медитативная, с вниманием к каждой крошечной детали. Дневной свет заменен на лиловое свечение ПРК-ламп, обычно используемых на дискотеках. Весь зал превращен в поле белых маргариток, в ПРК-свете сияющих ослепительно белым. Зрителю предлагается бродить по переплетающимся тропинкам меж цветов. Среди маргариток разбросаны полукруглые небольшие экраны, на которых проецируются смутные изоб-

ражения — фигуры людей, картины из жизни. В центре зала висит усыпанное белыми цветами дерево. С его ветвей свисают полупрозрачные ткани, и на каждую из них проецируется свой образ. На этих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ых экранах — нагие тела, пловущие и растворяющиеся в потоке воды. Журчание воды и шелест листьев сопровождают ваши шаги в призрачном лиловом мареве.

«Сад, — поясняет художница, — это мои сны, а дерево в центре сада — это моя душа». И продолжает: «Наше «я», которое живет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не единственное. Мы живем и в других измерениях: наши воспоминания, наши мечты, наши сны — это тоже наши «я», которые мы не можем вспомнить, проснувшись». Это пространство снов, мечтаний, воспоминаний художница и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 в «Секретном саду», предлагая зрителю путешествие внутрь себя. Результат ее усилий, возможно, не всякому навеет те ассоциации, о которых говорит Аюнг Юн. Но одно неоспоримо — проект ослепительно красивый и захватывающий. А кроме того — весьма показательный синтез четкого высказыв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й техники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й эстетики. Как раз то, чему не грех поучиться отечественным художникам.

Художники и таможн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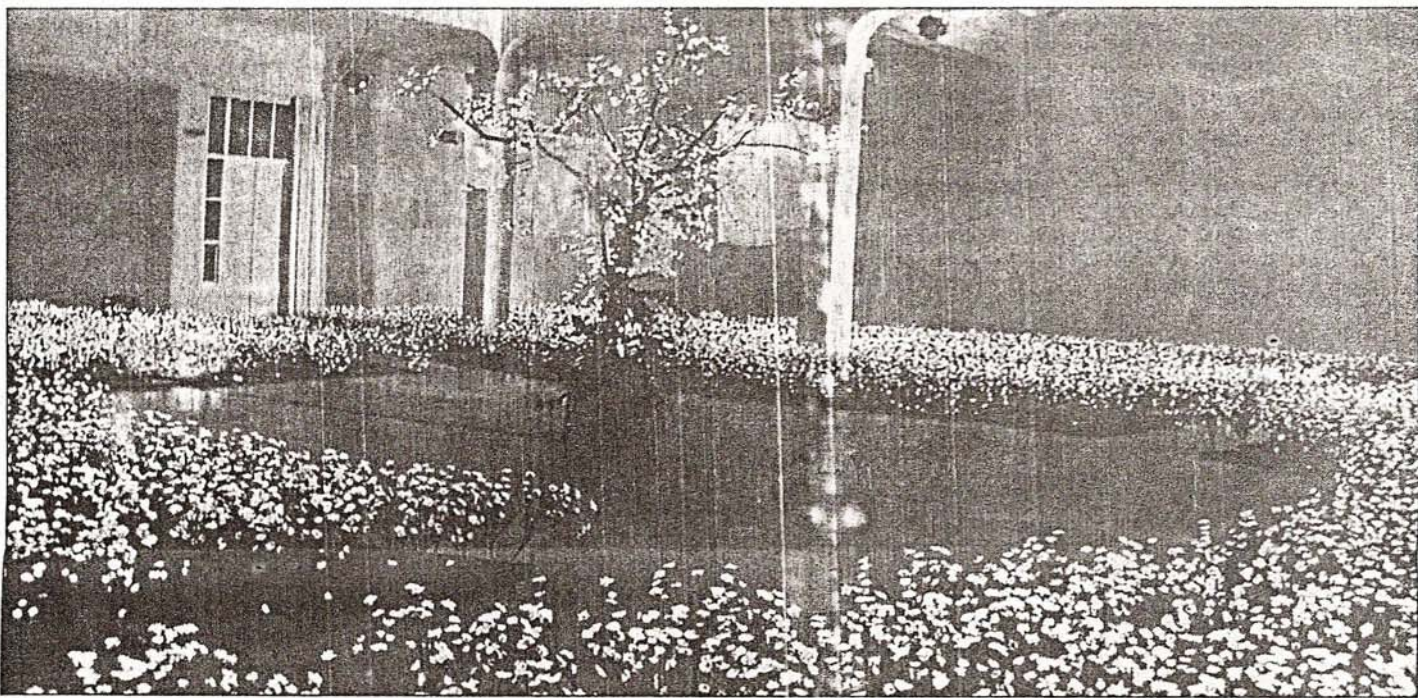
Отечественные художники, однако, учиться у Юн не спешат. Практически ничего подобного — то есть ничего в жанре крупномасштабной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и — наши творцы не делают. А наши зрители не видят: выставки зарубежного видеоискусства проходят у нас крайне редко. Для стороннего взгляда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дел неизбежно покажется странным: видео сегодня — любимейший жанр художников всего мира. Как в 70-х современное искусство обратилось к фотографии, увлеченное ее способностью быстро, просто, дешево фиксировать реальную жизнь, так сегодня художники как по команде взяли в руки видеокамеры. Любый западный музей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меет в своем арсенале несколько видеоработ, а на люб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их большинство. Почему же они почти неизвестны у нас?

Для наших художников жанр виде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тал более доступен — точнее, стала доступна видеокамера. Русский бум видеоарта уже начался, и в ближайш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с ждет его пик. Однако делать видеоискусство и выставлять его — не одно и то же, и выставочные площадки испытывают большие трудности в работе с видео. Дело даже не в дороговизне проекционной аппаратуры и не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тдельного затемненного помещения для каждой работы — эти проблемы есть везде. Увидеть последние достиж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идеоарта российскому зрителю чаще всего меша-

ют таможенные правила. Дело в том, что провезти через российскую границу подложкины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выставки видеопроекторов почти невозможно. Любую технику таможня воспринимает как потенциальный товар. Со всеми вытекающи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 таможня требует заплатить коммерческие пошлины, зачастую равные стоимости техники. В российских законах отличие культурного груза от коммерческого не оговаривается, поэтому никакие бумаги и справки о том, что техника нужна для выставки, а не для торговли, и будет вывезена обратно — справки хоть от музея, хоть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хоть от самого Господа Бога, — во внимание не принимаются. На моей памяти эстонские художники, которые везли в Петербург выставку своих видеоработ и в придачу к ней восемь телевизоров, на которых собирались эти работы показывать, — выставку, о которой российский музей с эстон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договаривался на министерском уровне за год, не смогли объяснить таможне, что не собираются торговать телевизорами, двое суток простояли на границе и в конце концов уехали обратно в Таллин. Обидно.

Поэтому тонкости видеоискусства российским худож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осваива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е ориентируясь на западный опыт. Поэтому же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ю Аюнг Юн в Русском музее можно смело назвать уникальной и советовать всем ее посетить. Другой такой случай может представиться в скоро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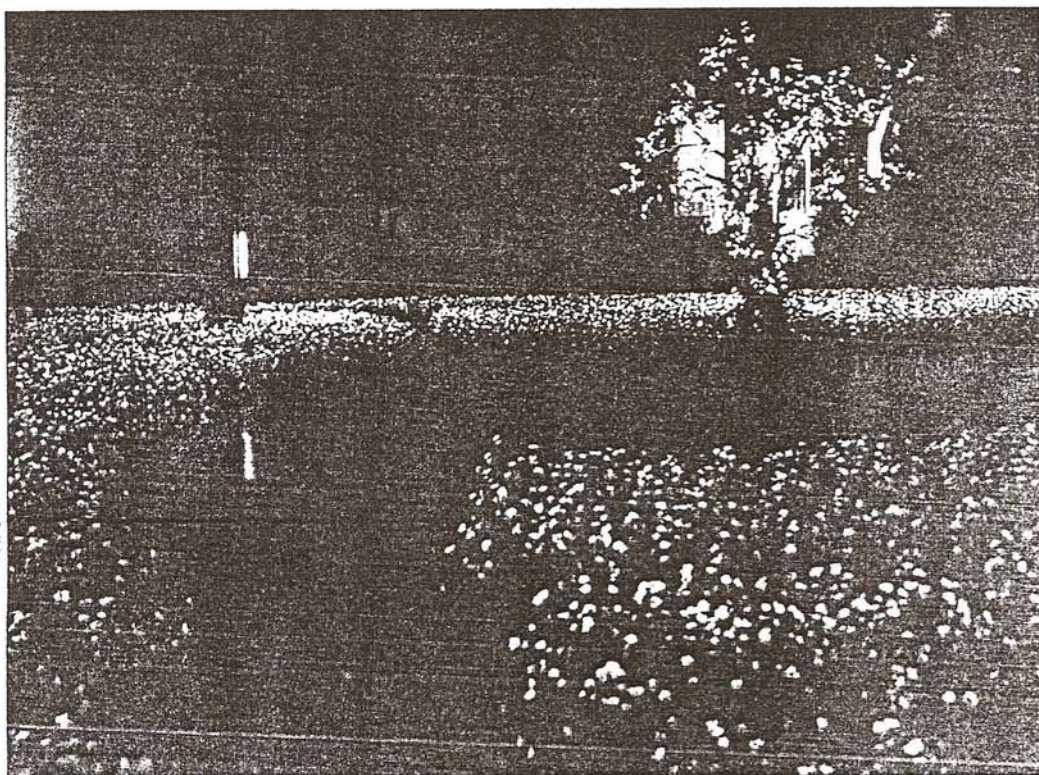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я «Секретный сад» Аюнг Юн блещит и трепещет

• СОБЫТИЕ ДНЯ

Тайный сад из трех тысяч ромашек



Именно столько цветов, миндальное дерево, а также десяток видео- и аудиосистем потребовались парижанке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Аюнг Юн, чтобы создать мультимедийную инсталляцию «Тайный сад». В среду художник представила ее в Мраморном дворце. Бродя по узким тропинкам ромашкового луга, можно неожиданно увидеть электронный «рояль в кустах» — небольшой экран с видениями Аюнг. в основном эротического содержания. «Ночи напролет в моих снах я плаваю, как рыба, я летаю в облаках, как птица. Моя душа парит вместе с ветром, не ведая, с кем она встретится и где

найти смысл жизни» — так пояснила свой проект Аюнг Юн.

Для тех, кто далек о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способа медитирования, в соседних залах Русский музей открывает сегодня выставку романтика с русским акцентом — Александра Орловского, посвященную 225-летию со дня его рождения. Блестящий рисовальщик прославился батальными пейзажами и карикатурами на известных людей своего времени, например архитектора Кваренги, изображенного в виде голого ангелочка, но в очках. Последний раз Орловского крупно выставляли в 1958 году.

Лев БЕРЕЗКИН

В корейском саду исполняются тайные желания

Аюнг Юн вырастила в Мраморном дворце миндальное дерево

В музеях все как в жизни и даже интереснее. Волжские бурлаки из всех сил тянут к берегу какой-то иностранный корабль... Александр Суворов со своими солдатами переходит через Альпы, и никто не требует от них паспортов с визами... А вот и Садо, находясь под водой, высматривает себе невесту среди дочерей морского царя...

Правда, стоит нам подойти к любимой картине поближе, например к той же "Девочке с персиками", чтобы насладиться красотой персиков и свежестью юности, как нас сразу же одергивает музейная сторожиха, пардон, смотрительница: "Руками не трогать! Ближе не подходить!"

К сожалению, из-за столь пугающих слов весь процесс "созерцания искусства" рассыпается в пух и прах! И персики нам больше не нужны! Обиженные, мы устремляемся в гардероб, получаем свое пальто и едем домой - к телевизору!

Бывают, конечно, исключения. Это когда мы сами становимся экспонатами какой-нибудь симпатичной инсталляции. И тогда мы можем делать все,

что нам заблагорассудится. Можем мечтать, фантазировать и грезить наяву.

Об одном таком исключении стоит рассказать подробно.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Мраморного дворца в двух больших залах открылся на днях "Тайный сад" корейско-французской художницы Аюнг Юн. Это вам не Репин, не Пикассо и даже не Сальвадор Дали. Это просто сказка, попав в которую мы начинаем чувствовать, как исполняются наши самые заветные желания.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ада, который не сразу стал тайным, Аюнг Юн подошла по-деловому, с чисто европейской хваткой. Садовую флору она тщательно сымитировала. Искусственная земля в "Тайном саду" выглядит как настоящая. А три тысячи

цветов, кажется это ромашки, тоже совсем как живые.

Посреди сада, как и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в сказке, должно стоять волшебное дерево. На ветвях неплохо бы разместить диких животных зверей. Но не будем забывать вперед. Аюнг Юн предпочла установить посреди сада цветущее миндальное дерево. Ни один из существующих зверей ей не приглянулся. Так что кошек или обезьян мы на дереве не увидим. Но зато среди ветвей крутится, вы не поверите, настоящее видео. Три бесконечных фильма. Во всех трех лентах играет одна и та же актриса - сама Аюнг Юн. В одном фильме она парит над озером, в другом - исполняет какой-то загадочный танец, а в третьем - спит. И ей снится, что у нее кто-то родился. Может быть, девочка, а может, мальчик.

В принципе, это видеokino в ветвях миндального дерева любой из зрителей может воспринять по-своему. Если долго

смотреть на парящую Аюнг Юн, то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начинает казаться, что и ты тоже летишь над озером. Корейская художница и музыку подобрала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медленную, медитативную. Благодаря музыке пространство в зале начинает набухать, а темнота - звенеть. И в этих звуках нам чудятся, мерещатся шикады и стрекозы...

Потом мы идем по тропинкам и среди фосфоресцирующих ромашек вдруг замечаем огромный глаз. Неужели это то самое Всевидящее Око? Если да, то не такое уж оно и страшное. Скорее, грустное...

Во втором зале "Тайного сада" в высокой траве бегает крохотный ребенок. Нет, не настоящий, а тоже из видеofilmа. Но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образ этот стремительный мальчик создает. Глядя на него, мы сразу же вспоминаем и свое босоное детство. И то, что с природой мы тогда были едины.

Не хочется говорить о технической стороне этой мощной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и. О том, что на ее создание ушло несколько "видиков", несколько специальных ламп с каким-то нежным и потусторонним светом. Просто приятно сознавать, что в данном конкретном случае вроде бы обычная техника сотворила чудо и создала мир на грани фантастики.

Ну а зрители в этот "Тайный сад" уже пошли косяком. В минувшее воскресенье там было около тысячи посетителей. В будние дни народу поменьше, и замечено, что по тропинкам "Тайного сада" гуляют влюбленные парочки. Подолгу стоят у миндального дерева. Шепчутся, загадывают желания. И конечно, целуются. Застывают в объятиях на десять - пятнадцать минут. И становятся частью инсталляции. Новыми Адамами и новыми Евами.

Михаил КУЗЬМИН

St. P. daily newspaper
"Smena" Nov. 20, 02

Сказка

Daily Newspaper
Nov. 19, 2002

3

Vetcherny Petersburg 19.11.02

НОВОЕ ИСКУССТВО

И расцветет миндальное дерево...

**В Русском музее —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я
корейской художницы
Аюнг Юн «Тайный сад».**

Видеоарт еще не очень хорошо знаком широкой петербургской публике.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в залах, принадлежащих Русскому музею, подобных выставок еще не был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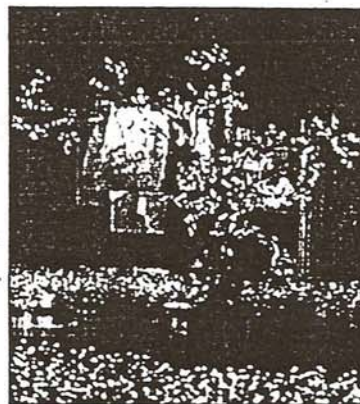
Аюнг Юн живет в Париже. А в качестве «материала» для своих видеопроизведений использует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ны.

Сад камней — давняя традиция стран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Тайный сад Аюнг Юн — отражение поэтического и сновидческого восприятия мира, воплощенное с помощью новейших технологий.

Два зала Мраморного дворца плотно зашторены темной тканью. Под ногами вырастают тысячи искусственных ромашек,

оживающих в таинственном сиреневом свете. Весь сад заполнен звуками природы — шумом воды и ветра. По середине — цветущее миндальное дерево, на ветвях которого развешены едва заметные в загадочном полумраке тонкие прямоугольные экраны. На них проецируются видеоизображения обнаженной художницы, левитирующей над потоком воды. Следующий зал — вновь дорожки сада и бесчисленное множество ромашек, а среди них — несколько цветков белой лилии. На их лепестках то здесь, то там вспыхивают оранжевым светом огоньки, из чашечек цветков раздаются какие-то голоса, будто эхо затерявшегося где-то далеко-далеко разговора.

На вернисаже художница сказала, что сад ее не оживает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в нем не появятся люди. В каком-то смысле этот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 в то же время живой организм удивительно самодостаточен, замкнут на своей тайне, ключом к которой могут стать лишь ощущения и воспоминания самих зрителей о дивных снах.

Виктория САФОНОВА

Aung Yun's "Secret Garden"

An artificial phosphorescent garden "grows" in huge dark rooms, with a flowering almond tree in the middle of it. On the tree's branches are transparent screens with video projections of the naked artist levitating above a stream of water. The noise of a waterfall blends with gusts of wind. Visitors walk along the paths of the garden, where video projections bloom among the artificial flowers. *By Olesya Turkina*



THIS MULTIMEDIA INSTALLATION by Aung Yun, a Korean artist living in France, will occupy the Marble Palace's exhibition halls from 13 November to 30 December 2002. Aung Yun is one of the most intriguing young video artists; she has had individual exhibitions in Paris, London and Madrid and has taken part in such influential international biennials as the FIAC in Paris, ARCO in Madrid and the Kwan Chu Biennial in South Korea. She belongs to the generation of artists that in the early 1990s combined in their work the experience of video art pioneers, like Nam June Paik and Vito Acconci, and the video

romantics that succeeded them, such as Bill Viola and Tony Oursler.

Aung Yun metaphorically calls her installation "The Secret Garden" a dream. "All night long in my dreams I swim like a fish, I fly in the clouds like a bird... My soul soars with the wind, not knowing what it will meet... and where to find the meaning of life... The "Garden" represents my dreams, and the tree with the images my soul", she says. "The Secret Garden" is a world of dream and reverie, where the customary following of day by night does not occur — the whole space is flooded by an even "black" light, rhythmically divided by the flashing of the video projections. There is no place here for habitual dimensions and the normal order of things. The tree bears fruit in the form of images of a naked person, little



spheres with video projections gleam cosily in the flowers, bringing to life the artist's dreams. The viewer feels like a traveller who suddenly finds himself in a mysterious country or in a dream, where objects change places, where the garden contains a soul that cultivates the viewer's soul. When speaking about this installation, Aung Yun recalls the famous dream of Choan-tsu, when it was not clear whether Choan-tsu was asleep and dreaming about a butterfly or whether the butterfly was dreaming about the man.

The shared experience of viewer and artist merges in a mysterious space, filled with "real" objects, ghostly video images and sounds. These images have a great deal of different meanings, reflecting the artist's experience of life. It could be said that the image of the traveller is connected with the artist's metaphorical perception of "an endless journey, when we don't know where we are going" — a reflection of Yun's enthusiasm for the philosophy of Krishnamurthy. Tangible objects, such as the tree and the flowers, bring the artist back "down to earth" to the material world, the world of logic and consciousness. The natural sounds of the water and the wind symbolise for Yun the world of unconsciousness, which can only be reached by following the "royal road of dreams" (in the words of Sigmund Freud). Aung Yun's multimedia installation "The Secret Garden" retains memory of the past, relived again and again by the artist, is linked to the present experienced by the viewer and carries in it the seeds of the future, which will possibly germinate again in our dreams. □

Secret garden: travel to 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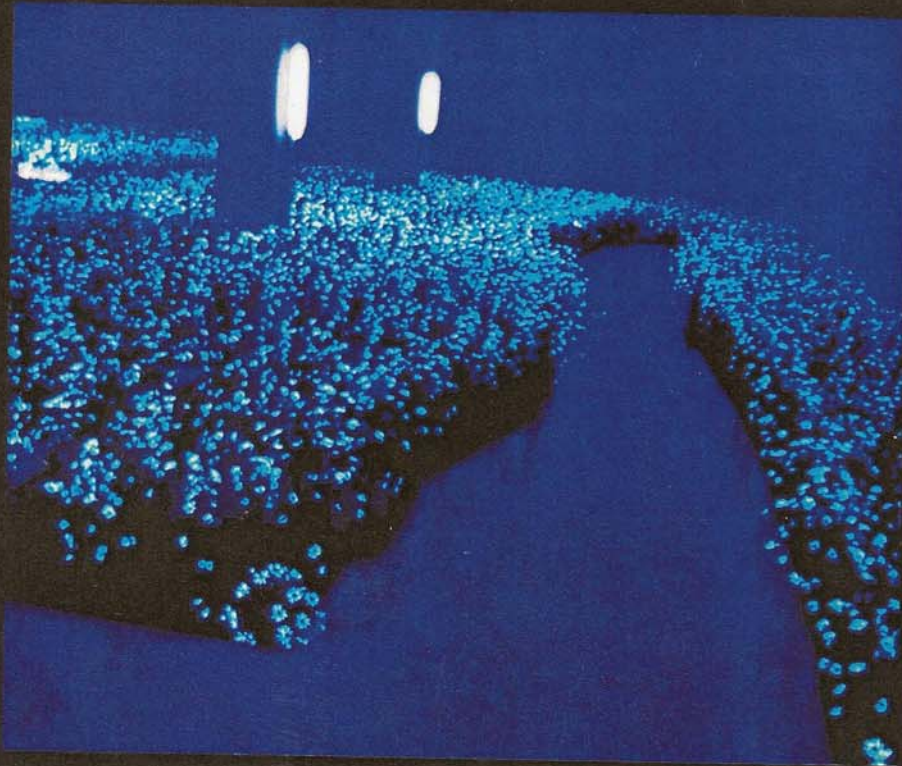
▲ The gate opens and you enter a magic garden with narrow paths hidden in the meadows, dotted with daisies. There is a tree in full bloom in the middle of the garden. The beams of blue light seize you, and white flowers began to shine. The trees are covered with shrouds made from transparent gauze, mysterious images move towards them. The naked figure flies above a torrent, one more figure spins in the air, the third one dances with her eyes shut. Suddenly another vision appears among daisies. It is a running girl across a face. You discover a "lively" flower, there are eyes on its lily petals, they stare in surprise

at you and blink. Next to it the sleeping spaceman stays in the air in a state of weightlessness. Each ghostly vision has its own significance: musical phrases, the water murmur, the rustle in a wind, the breathing of a sleeping person, the snatches of conversation...The garden lives, moves, it looks populous and is filled by sounds.

It's not a wonderland where Alice found herself, it's not a magic forest of a fairy, everything takes place in the Marble Palace. The outstanding exhibition, Secret garden, by the South Korean artist turned the concept of video-installation upside down. Two museum halls were completely reorgan-



Aiyoung Yun was born in 1964 in Korea. She has lived and worked in Paris for over than 10 years. She graduated from the Fine Arts Department of University Ehwa in Seoul (Korea), then finished the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Beaux-Arts in Paris, and completed her education at the faculty of Fine Arts in Paris VIII. Starting in the 1990s she has been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joint exhibitions: FIAC (Paris), ARCO (Madrid), KwangJoo (South Korea), Xeme Festival International Video and New Technology Arts, in Clermond-Ferrand (France), Paris in 3 dimensions in the Museum Carnavalet in Paris. The video-installation, the Secret garden, first was presented in 2001 in Metronom Foundation in Barcelona (Spain).



ized. The space was transformed. It looked like a forth or fifth dimensional area.

Aiyong Yun made an expanded self-portrait, or the installation of her inner world, her unconscious. According to the artist herself: "The garden repeats the sphere of my dreams, the tree with images represents my soul." Just as it happens in a dream, when usual places and trivial situations appear connected or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a strange, whimsical way, the every-day reality transforms into a mysterious, illusory world.

Dreaming for Aiyong Yun is as important as reality. As soon as she wakes up, she hurries to write

down everything she saw in her dreaming reality. It looks

as she keeps a diary and registers all significant events for a day. The artist fails to separate her external world from the internal one even for herself. She declares: perhaps life is the dream, or maybe dream is the life.

The artist materializes intangible substances. Artificial flowers, black-light lamps, multimedia installations, reproducing sound and video images are only the methods and mechanisms helping Aiyong Yun to create a completely non-concrete illusory world, the world that lays beyond the time limitation. Nevertheless this world is a rather high-tech one and very palpable.

The spectator does not only observe the video-installation but is so strongly involved in it that it provides an attitude-effect. Time and space are the key terms of the installation. The picture corresponds to the perspective order and perfectly reproduces the space but yet remains the two-dimensional

image leaving the spectator outside the idea. This installation draws the person into the three-dimensional space, making him/her a true participant of the action. Aiyong Yun does not consider the end of the work on an installation as the finishing point of a process. The work continues by a spectator. The person is able to choose any path, is able to go slowly or quickly. A viewer observes images and thinks many sacramental thoughts, which are completely universal.

Following the paths of the magic forest, the dream-forest, the recollection-forest, we reach the centre of it where a tree stands in full bloom. It is the hub of the world, the symbol of the soul. There is a human standing there. This person is not aggravated by sex, gender, age or other "wraps" made up by society. The physical circulation through the Secret garden could be regarded as the repeating of a motion - spiritual impulses. The garden symbols make a human reflect upon his destiny, his Self, and his origin of self-consciousness.





текст _ мария коростелева

**АЮНГ ЮН
ПОД ШУМ ДОЖДЯ
И ЖУРЧАНИЕ ВОДЫ**



ИЗ ПЕТЕРБУРГА трудно понять, почему на Западе видео-арт считается важнейшим из искусств. У нас работы видеохудожников обычно крутят как короткометражки на альтернативном фестивале. Задавшись целью показать нам, что такое настоящее видео, Русский музей запустил специальную выставочную программу. Ее открывает живущая во Франции корейская художница Аюнг Юн.

«Тайный сад» Аюнг Юн выдержан в традиции гипнотических инсталляций, подчиняющих чувства зрителя.

В залах Мраморного, отведенных для сеанса, полностью потушен свет и окна затянуты черной тканью. На полу – сотни искусственных маргариток, похожих на россыпь болотных огоньков. На эти цветочные поляны приземлились зеркальные шары, по которым скользят бегущие человечки.

Далее – настоящий сад, где цветет роскошное миндальное дерево. На его ветвях раскачиваются полупрозрачные экраны. Там, свернувшись в позу эмбриона, под шум дождя и журчание воды дремлет сама художница.

И здесь становится ясно, что и маргаритки, и миндаль, и неизвестно куда спешащие люди – всего лишь гигантская проекция ее сна.

Но для Аюнг Юн сон не менее реален, чем спящий. Дитя востока, она верит, что человек параллельно проживает несколько жизней: он может плавать в океане вместе с рыбами,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рхать по лугам вместе с бабочками. А видео – лишь средство, которое как гипнотический сеанс позволяет увидеть одновременно и явную жизнь, и тайный сад.



> Французский институт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Галерея Les filles du Calvaire
Samsung Electronics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Южной Кореи
Куратор Олеся Туркина

русский музей > мраморный дворец <
13.11–30.12 Аюнг Юн
ТАЙНЫЙ САД
>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Я <

La debilidad de la fuerza es no creer más que en la fuerza (Paul Valéry)

EL MUNDO

CATALUNYA

AÑO XIII. NUMERO 4.310. PRECIO: 150 PTS / 0,9 EUROS.

DEL SIGLO VEINTIUNO
BARCELONA, MARTES 18 DE SEPTIEMBRE DE 2001

Una videoinstalación de la coreana Aiyoung Yun abre la temporada de Metrònom

MARIE-CLAIRE UBERQUOI

BARCELONA.- La artista coreana Aiyoung Yun, ha creado un curioso *Jardín Secreto* para la Sala Metrònom, que inaugura la temporada esta tarde. El visitante encontrará el suelo cubierto de margaritas, entre las cuales se han disimulado tres pequeños monitores. Un sendero conduce a un almendro del que cuelgan velos sobre los cuales se proyectan autorretratos de desnudos de la propia artista. «He querido crear un ambiente onírico en el que doy rienda suelta al inconsciente», explicó ayer la artista.

Nacida en Seul y residente en París desde hace diez años, Aiyoung Yun trabaja fundamentalmente con vídeo para realizar ac-

ciones y montajes multimedia, en los que le interesa mantener siempre una dimensión humana.

Con esta muestra, Metrònom sigue con su política de promover a creadores que trabajan con la fotografía y el vídeo. Así, en las pequeñas salas adyacentes se exhibe la serie de fotografías titulada *The Vanishing Tower* de la norteamericana Terry Hanlon. Se trata de fotomontajes digitales un tanto surrealistas, inspirados en la figura del cocinero francés Antoine Carène (1783-1833), que fue el chef de personajes como Talleyrand, del Zar Alexandre I y del Barón de Rothschild.

«Me ha interesado su personalidad porque se hizo célebre con sus espectaculares creaciones cu-

linarias que eran auténticas esculturas comestibles, y porque contribuyó a crear el concepto de *power dining* (cenas de poder), en las que se tratan importantes negocios», comentó Terri Hanlon.

Las muestras de Aiyoung Yun y de Terri Hanlon podrán visitarse hasta el 9 de noviembre. A continuación se presentarán una instalación sonora de Peter Bosch & Simone Simons y el Festival de Músiques Contemporànies.

Para esta temporada Metrònom ha recibido por primera vez una subvención dos millones de pesetas de la Generalitat y 500.000 pesetas del Ministerio de Cultura, que se añaden a los 25 millones de pesetas que aporta anualmente el Ayuntamiento de Barcelona.

El 'padre' de las 'cenas de poder', en imágenes

La coreana Aiyoung Yun convierte Metrònom en un jardín onírico

JAUME VIDAL, Barcelona

Un extenso jardín en cuyo centro se sitúa un árbol en el que se proyectan cuerpos desnudos ha sido instalado en la sala principal de la Sala Metrònom. Es el *Jardín secreto* de la artista coreana Aiyoung Yun, que hoy se abre al público. La sala también exhibe, a partir de hoy, el trabajo realizado por Terry Hanlon sobre un curioso personaje del siglo XVIII: Antonin Carène, el inspirador de las *power dining* (cenas de poder).

Aiyoung Yun reside en París desde hace 10 años. A pesar del tiempo transcurrido desde que abandonó Seúl, sigue sintiéndose una extranjera. "Tengo la sensación de que mi espacio físico y temporal no está definido", explica. Este sentimiento de estar situada en un espacio irreal, casi flotando, y en un estado sensitivo en el que se entrecruzan el sueño y la realidad es el que ha querido transmitir con el montaje *Jardín secreto*, que hoy se inaugura en la Sala Metrònom de Barcelona (Fussina, 99).

La artista ha intervenido en toda la superficie de la sala principal de Metrònom creando un jardín de flores por el que el espectador puede circular por caminos entrecruzados. El punto central del montaje consiste en un árbol en el que se proyectan imágenes de vídeo en las que pueden contemplarse cuerpos desnudos. El desnudo

es para Yun, más que una alusión sexual, la representación básica de la existencia. "El jardín representa mis propios sueños, y el árbol con las imágenes expresa mi alma", explica la artista. El montaje, iluminado con una tenue luz fría, permite una implicación del espectador en la obra. Paseando a su alrededor se encuentran pequeñas sorpresas en forma de imágenes videográficas. La voluntad de la artista es crear un espacio muy atmosférico, de recreación virtual, que permita al visitante evocar sus propios sueños.

Personaje singular

También hoy se presenta en la Metrònom el trabajo de la artista Terry Hanlon, que junto con Deborah Slater y Fern Friedman fue miembro fundador de Eva Sisters, un grupo de *performances* multimedia que actuó a



La exposición de la coreana Aiyoung Yun en Metrònom. / CONSUELO BAUTISTA

finales de los setenta y a principios de los ochenta en los principales espacios de ebullición artística contemporánea de Nueva York, Los Ángeles y San Francisco.

Para esta ocasión, Hanlon presenta, bajo el título *The vanishing tower*, una serie de fotografías y un vídeo que hacen referencia a un singular personaje de finales del siglo XVIII. Se trata de Antonin Carène, considerado el fundador de la gran cocina francesa.

Carène, expulsado de su ho-

gar a los 11 años, pudo haber sido un pillete de poca monta, pero se introdujo en el mundo de la cultura mediante horas de estudio en bibliotecas. Esta actividad la realizaba en sus descansos como aprendiz de pastelero. Llegó a ser cocinero de grandes magnatarios, como el diplomático francés Tayllerand, el barón Rothschild y el zar de Rusia Alejandro I.

Su gran aportación fue la presentación artística de los postres con grandes construcciones de naturaleza arquitectó-

nica y sobre todo inspiró a Tayllerand a realizar espectaculares cenas que introducirían el concepto *power dining* (cenas de poder), en las que el diplomático se servía del impacto y de los efectos embriagantes de la cena para cerrar negocios o averiguar informaciones beneficiosas para sus intereses.

Las fotografías de Hanlon han sido realizadas con la ayuda de actores que escenificaban, con grandes dosis de ironía y humor, escenas alusivas al tema.

Aiyoung Yun juga a Metrònom amb la realitat i els somnis

Montse Frisach
BARCELONA

L'artista coreana resident a París Aiyoung Yun ha construït un camí entre el món oníric i el real en una videoinstal·lació.

En aquesta obra, que es pot veure a partir de demà a la sala Metrònom de Barcelona, l'espectador pot endinsar-se dins la peça pràcticament a les fosques, a través dels caminets que l'artista ha traçat a la sala gran de Metrònom, envoltats de margarides artificials. D'aquí el títol de la mostra, *Jardí secret*, ja que la intenció de l'artista és crear una atmosfera onírica i "un espai entre el



La instal·lació 'Jardí secret' convida a una passejada entre margarides

somni i la realitat". El final dels caminets és un arbre damunt del qual es projecten en uns vel·ls transparents unes imatges de somnis que l'artista ha tingut i en les quals, per exemple, ella mateixa, nua, sura sobre l'aigua. "És un somni que he tingut molts cops, i que crec que és bastant

general", diu l'artista.

A través dels caminets que formen les margarides, l'espectador, mentre passeja, també trobarà petites imatges en el terra: dues de projectades en monitors i una altra projectada en uns lliris.

La sala Metrònom també exposa una sèrie de fotografi-

es i un vídeo de l'artista nord-americana Terri Hanlon, inspirades en la vida d'Antonin Carène, un cuiner del segle XIX considerat el fundador de la gran cuina francesa.

"Carène és el creador dels sopars com a símbol de poder -explica l'artista-. Feia grans escultures de pastís i va inventar estris com la batedora manual. Va ser un personatge que va néixer molt pobre, va treballar com un gos i va acabar fent-se amb els personatges més poderosos de França gràcies a la seva espectacular creativitat", explica Hanlon. En els seus fotomuntatges, l'artista ha elaborat un paral·lelisme entre aquest personatge i contemporanis seus, com Talleyrand, i persones del segle XX.

.....

'Jardí secret', d'Aiyoung Yun; 'La torre que desapareix', de Terri Hanlon

● Metrònom

Barcelona. Fusina, 90

DEL 19 DE SETEMBRE AL 9 DE NOVEMBRE

LIBROS

IDEAS MÚSICA ARTE

VIERNES, 9 NOVIEMBRE 2001

Aiyoung Yun

METRÓNOM • FUSSINA, 9 • ☎ 93-268-42-98 • HASTA EL 9 DE NOVIEMBRE • BARCELONA **

■ La coreana Aiyoung Yun, que ha expuesto ya en Arco, se presenta ahora en Barcelona con una de las videoinstalaciones que le han dado fama por su carácter alegórico y marcadamente poético: "Jardín secreto", donde propone un campo de margaritas y unas imágenes oníricas, en este caso unos desnudos que se proyectan sobre un abanico de velos que se mueven.

- M. LL. B.

Centre d'Arts plastiques : entrez dans le rêve de Aiyoung Yun

**Présente du 13 septembre au 25 octobre,
l'exposition vidéo « Rêve » de Aiyoung Yun
vous fait redécouvrir le monde de l'imaginaire.
Dénuées de considérations temporelles,
les séquences projetées renvoient à un monde
où le fantastique a pris le pas sur le réel.**

A QUOI RÊVE donc Aiyoung Yun ? Présente du 13 septembre au 25 octobre au centre d'arts plastiques de Saint-Fons, cette artiste coréenne, installée à Paris depuis 1989, nous propose de la suivre dans son monde dénué de toutes considérations terre à terre. Pour la comprendre, oubliez les notions de temps ou d'espace, seul le bien-être et le ressenti comptent.

Juxtaposition de sons et d'images, « Rêve » se veut une œuvre avant tout sensorielle largement inspirée par le cinéma. Science-fiction ou « héroïc fantasy », Aiyoung Yun y puise des ambiances mi-réelles, mi-imaginées. Telle, cette image durant quelques secondes, d'une personne immergée dans un liquide à dominante bleue. Ralenti, temps réel ou avance rapide, les

images projetées défient le temps. L'objectif : oublier le monde qui nous entoure et se reconcentrer sur ses émotions.

Aiyoung Yun inaugure, à Saint-Fons, sa huitième exposition personnelle. Elle a jusque-là, pu présenter ses œuvres dans de nombreuses villes internationales : à commencer par le centre Georges-Pompidou ou le musée Carnavalet à Paris, le musée national de Russie à Saint-Petersbourg ou encore au Japon et en Espagne... Exposition à voir et à ressentir.

L.K

Exposition « Rêve » de Aiyoung Yun : du 13 septembre au 25 octobre au centre d'Arts plastiques, 12 rue Gambetta. Vernissage : vendredi 12 septembre à 18 h 30.

résonance

en résonance avec la Biennale d'Art Contemporain à Lyon et en région Rhône-Alpes



Centre d'arts plastiques de Saint-Fons
Aiyoung Yun, "Trace", 1999
photo : Aiyoung Yun

A Centre d'arts plastiques de Saint-Fons

"Rêve", Aiyoung Yun

Du 13 septembre au 25 octobre 2003
(vernissage le 12 septembre à 18h30)

Aiyoung Yun, née en Corée, vit et travaille à Paris depuis 1989. Elle utilise principalement la vidéo pour réaliser des installations multimédia dans lesquelles la dimension humaine est omniprésente. Très inspirée par le cinéma – en particulier le fantastique, la science-fiction, ou l'heroic fantasy – l'artiste cherche à suspendre le temps pour le rendre perceptible. En modifiant la vitesse de diffusion de ses images, Yun parvient à créer une atmosphère onirique et s'attache à inventer un langage propre, non verbal, composé avant tout de sensations.

A noter : Ben, du 4 novembre au 6 décembre 2003
(vernissage le 31 octobre à 18h30).

Centre d'arts plastiques de Saint-Fons
12 rue Gambetta – 69190 Saint-Fons
Ouvert du mardi au samedi de 14h à 18h
(entrée libre)
Infos : 04 72 09 20 27

www.paris-art.com

paris-art.com
(presque) tout l'art contemporain à paris

ACCUEIL

ACTUALITE

CALENDRIER

LIEUX D'ART

ARTISTES

NUMÉRIQUE

ALTERNATIVES

NOMADES

INTERVIEWS

SERVICES

PUBLICATIONS

ECHOS

REVUES DE PRESSE

TEXTES & ETUDES

ECHANGES

FORUMS

CONTACTS

PETITES ANNONCES

NEWSLETTER

LIENS

SONDAGE

ESPACE PRO

Moteur de Recherche

EDITEUR

Centre d'arts plastiques de
Saint-Fons
12, rue Gambetta
69190 Saint-Fons
T. 33 4 72 09 20 27
F. 33 4 78 70 45 58
email

Aiyoung Yun : rêve



La vidéo comme « médium » de prédilection. Un travail d'apatride en quête d'identité, où se révèlent la relation à l'autre et le comportement au sein de la société. Une analyse qui fait naître un besoin de distanciation avec le monde, pour se projeter dans un environnement mental proche du rêve.

À l'épreuve du temps et des origines
par Olivier Reneau (extrait, p. 3)

Yun est née à Séoul en Corée il y a 39 ans. Là-bas, elle découvre les enjeux des arts plastiques en suivant notamment l'enseignement artistique de l'université d'Ehwa à Séoul. Par la suite, au début des années 1990, Yun prend la décision de quitter son pays natal pour s'inscrire à l'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à Paris. Au départ Yun pratiquait la peinture, le dessin, la photographie, et réalisait parfois des installations et des performances. Aujourd'hui elle n'utilise exclusivement plus que la vidéo pour exprimer son regard sur la société et analyser son rapport à celle-ci. Une exploration souvent introspective à la fois teintée de réel et d'inconscient, de passé et de futur, de souvenirs et d'imaginaire, d'ici et de là-bas. Elle réalise ainsi des films aux apparences de rêves et de songes qu'elle diffuse sur écran ou qu'elle exploite dans des installations vidéo construites à partir d'objets du quotidien. Yun s'appelle en fait Aiyoung Yun mais, depuis le temps qu'elle habite en France, elle se présente tout simplement sous le patronyme de Yun.

(Texte publié avec l'aimable autorisation des éditions du Centre d'arts plastiques de Saint-Fons)

L'artiste

Aiyoung Yun est née en 1964 en Corée. Elle vit et travaille à Paris depuis 1989.

Olivier Reneau, Thomas Zoritchak

Aiyoung Yun : rêve

Centre d'arts plastiques de Saint-Fons

► Sommaire

— Éditeur : Centre d'arts plastiques, Saint-Fons

Sommaire

Olivier Reneau

— À l'épreuve du temps et des origines

Thomas Zoritchak

— Rêve

(조선일보/사람들)

[사람들] 비디오 아티스트 尹愛永씨 러 작품전 호평 (2002.11.25)

비디오 아티스트 윤애영(尹愛永·38)씨의 작품전시회가 러시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국립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윤씨 작품전은 개막 첫날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 등 언론들은 윤씨의 대표작 '비밀정원'과 함께 윤씨를 소개하며 '백남준 계보를 이을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박물관측은 당초 12월 30일로 잡혀있던 전시기간을 1월 중순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윤씨의 대표작 '비밀 정원'은 비디오 설치작업 형식으로 공간에다 데이지 꽃을 깔고, 사이사이에 다양한 길을 만들어 길과 꽃, 그리고 매화나무 속에 영상들을 숨겨놓아 관객들이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가며 영상을 체험토록 돼 있어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모스크바=鄭昶善특파원 bschung@chosun.com)

📖 검색 결과목록

vidéo**Aiyoung Yun • Jardin secret**

Aiyoung Yun réside à Paris depuis une dizaine d'années. Et c'est depuis cette époque où elle abandonna Séoul que l'artiste a le sentiment d'être une étrangère. *"J'ai la sensation que mon espace physique et temporel n'est pas défini"*, - explique-t-elle. Ce sentiment étrange de faire partie d'un espace irréel, quasiment flottant, et un état sensitif où se croisent le rêve et la réalité, c'est précisément ce que transmet l'installation **Jardin Secret**.

Dans ce jardin onirique le spectateur peut circuler parmi un réseau de chemins. Le point central de cette installation est un arbre sur lequel sont projetées des images vidéo de corps nus. Le nu est pour Yun la représentation basique de l'existence. Le bruissement des arbres dans le vent et le ruissellement de l'eau. Rendez-vous avec soi-même.

Beaucoup des images que j'utilise dans mes vidéos n'ont pas de signification concrète; elles me permettent de transmettre des sentiments et impressions que je ne pourrais décrire ni montrer d'une autre manière. La vidéo est pour cela un médium idéal...

**видео****Аюнг Юн • Секретный сад**

Более 10 лет назад **Аюнг Юн** покинула родной Сеул. В Париже она чувствует себя иностранкой: *"У меня ощущение, что я живу в неопределенном физическом и времен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Инсталляция **Секретный сад** воссоздает ирреальную, зыбкую атмосферу пересечения мечты и реальност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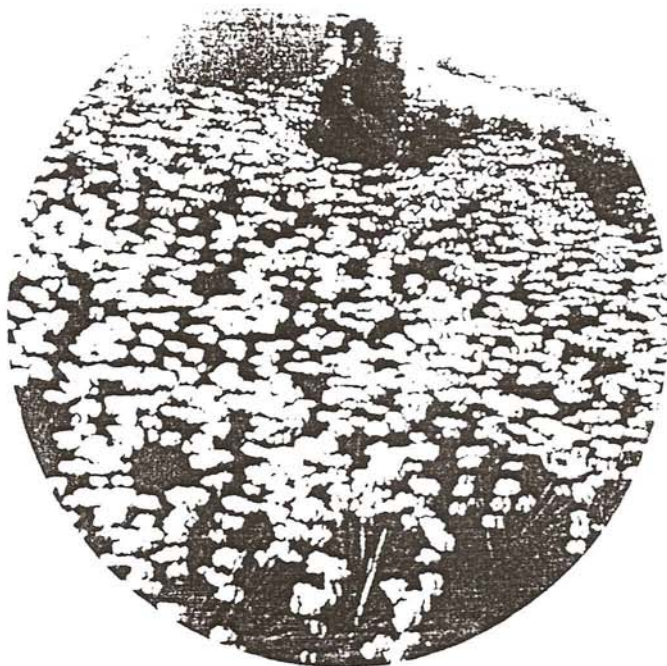
В центре сада, опутанного сетью тропинок, растет дерево снов, на которое проецируются изображения обнаженных тел. Они являются для художницы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м образом человеческо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Шум листвы, журчание воды, свидание с самим собой...

У большинства моих образов нет конкретного значения, они позволяют мне выразить чувства и впечатления, которые я не могла бы описать никак иначе. Для них видео является идеальным медиумом...

St. P.
Journal
on art
and city life

№ 12 2002

SPB Соборка.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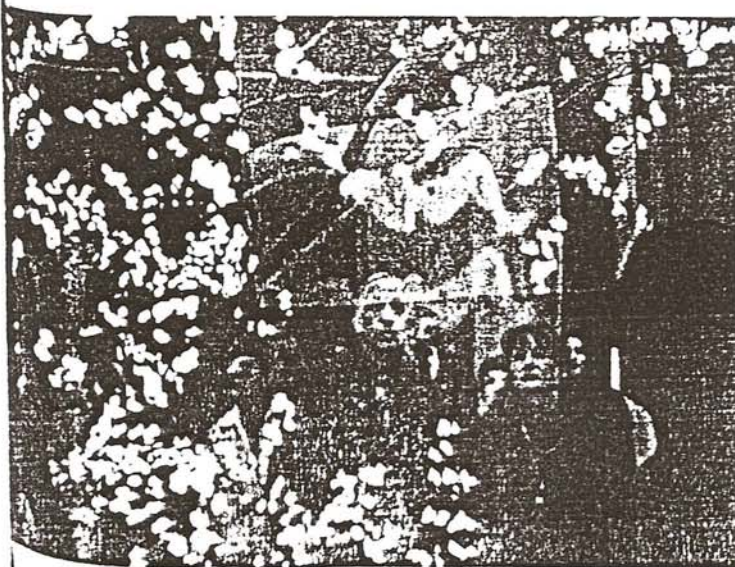


Во саду ли

Очереди – страшное дело, родимое пятно социализма, механизм унижения. Но когда стоят «за искусством», все-таки не так обидно. 13 ноября в Мраморном охочая до видеосарта публика ломилась на выставку «Тайный сад» кореянки из Парижа Аюнг Юн. «Сад»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клумбы с бесчисленными искусственными ромашками, цветущее миндальное дерево, «плодоносящее» тончайшими видеозкра-

нами, образы самой художницы, левитирующей над потоками воды. «Тайны» же у нее – не наследие родовых проклятий или продукты каких-нибудь комплексов, а обнаженная натура, соблазнительные приглушенные звуки, балансирование на грани легкокрылой бесплотности и уютной вещности. И как тут не поверить в то, что «задача художника – сделать нашу жизнь лучше». Эта – сделала.

Secret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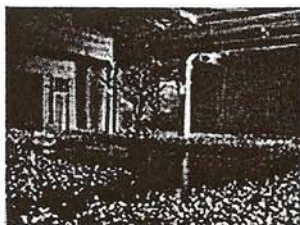


13.11.2002

Выставка.

Сад сновидений Аюнг Юн

[Надежда Штиль]



Сегодня в Мраморном дворце открывается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я "Тайный сад" корейской художницы Аюнг Юн, живуще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 Франции. Оказавшись в искусственном саду - среди синтетических не пахнущих цветов, под сенью миндального дерева в цвету, рядом с несуществующим водопадом, шум которого прорывается сквозь порывы столь же нереального ветра, - зритель увидит парящие образы спящей девушки. На прозрачные экраны, висящие на ветвях центрального дерева, проецируется видеосозображение. О своем проекте автор говорит: "Ночи напролет в моих снах я плаваю, как рыба, в облаках, как птица... Моя душа парит вместе с ветром, не ведаю, с чем она встретится ... и где найти смысл жизни... "Сад" представляет мои сны, а дерево с образами - мою душу".

Аюнг Юн - одна из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х молодых видеохудожников, автор персональных выставок, состоявшихся в Париже, Лондоне и Мадриде, участница таких влиятель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биеннале как FIAC (Париж), ARCO (Мадрид), биеннале Кванчжу (Южная Корея).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в Мраморном дворце выставка-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я Аюнг Юн является первой в задуманном Отделом Новейших течений цикле,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зрителей будут знакомить с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современного видеоискусства. 14 ноября на экспозиции состоится второй семинар из цикла Олеси Туркиной "Современное искусство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музея", предметом для разговора станет сам "Тайный сад", искусство, существующее между реальностью и сновидением.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я "Тайный сад" представлена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Француз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Корей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компания "Самсунг"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Корейского фонда искусства и культуры и галереи "Фий де Кальвар" (Пари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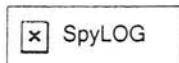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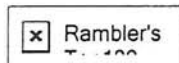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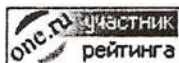
ARTERIA.RU - совместный новостной проект журнала

"Максимка" (с) тексты

и студии "Арт Пресс" (с) web дизайн.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атериалов arteria.ru необходимо получить разрешение редакции.

При цитировании материалов сайта в Интернет действующая гиперссылка на arteria.ru обязательн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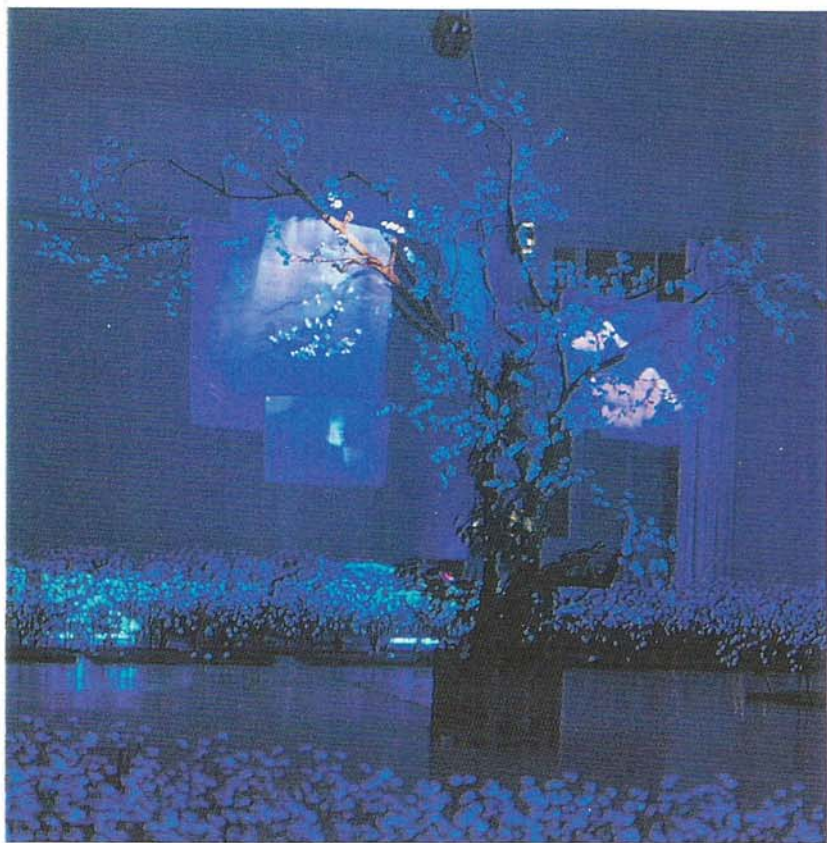
■ Мраморный дворец

В огромных темных залах вырос искусственный фосфоресцирующий сад, в центре которого — цветущее миндальное дерево. На его ветвях — прозрачные экраны с видеопроекциями левитирующей над потоком воды обнаженной женщины. Шум водопада смешивается с порывами ветра. Зрители проходят по дорожкам сада. Такова мультимедийная

инсталляция живущей во Франции корейской видеохудожницы Аюнг Юн. Экспозиция работает с 13 ноября по 30 декабря.

Миллионная ул., 5/1. Т. 312 9196.





в и д е о а р т Во время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и «Тайный сад» французской художницы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Аюнг Юн зрители попадают в мистический театр, где в темноте под таинственный шепот они проходят по дорожкам волшебного сада. В нем на громадные искусственные цветы и ветки деревьев проецируются причудливые изображения. Куратор выставки с русской стороны — Олеся Туркина.

• Русский музей, Мраморный дворец, с 13 ноября по 30 декабря



последнее из

[Антиквар](#) [СуперОбложка](#) [КиноКартина](#) [Газета "Культура"](#) [МелоМания](#)

[АрхиПроект](#) [Окно в Россию](#) [Культура в Законах](#) [Справочники](#) [Акции](#)

Рубрики

- [Первая полоса](#)
- [Одна неделя](#)
- [Ситуация](#)
- [Провинция](#)
- [Информация](#)
- [Событие](#)
- [Палитра](#)
- [Театр](#)
- [Музыка](#)
- [Кино](#)
- [Краски мира](#)
- [Под занавес](#)

Архив

- | | | |
|---------------------|---------------------|---------------------|
| 1997 год | | |
| №49 | №50 | №51 |
| 1998 год | | |
| №1 | №2 | №3 |
| №4 | №5 | №6 |
| №7 | №8 | №9 |
| №10 | №11 | |
| 1999 год | | |
| №1 | №2 | №3 |
| №4 | №5 | №6 |
| №7 | №8 | №9 |
| №10 | №11 | №12 |
| №13 | №14 | №15 |
| №16 | №17 | №18 |
| №19 | №20 | №21 |
| №22 | №23 | №24 |
| №25 | №26 | №27 |
| №28 | №29 | №30 |
| №31 | №32 | №33 |
| №34 | №35 | №36 |
| №37 | №38 | №39 |
| №40 | №41 | №42 |
| №43 | №44 | №45 |
| №46 | №47 | №48 |
| 2000 год | | |
| №1 | №2 | №3 |
| №4 | №5 | №6 |
| №7 | №8 | №9 |
| №10 | №11 | №12 |
| №13 | №14 | №15 |
| №16 | №17 | №18 |
| №19 | №20 | №21 |
| №22 | №23 | №24 |
| №25 | №26 | №27 |
| №28 | №29 | №30 |
| 2001 год | | |
| №1 | №2 | №3 |

КУЛЬТУРА

№50 (7357)
11 - 18 декабря 2002г.
еженедельная газета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Подписка на газету](#) [Реклама](#) [Проекты](#) [О газете](#)

Палитра

Сны из подсознания

Ольга АЛЕКСЕЕ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Тайный сад" Аюнг Юн

В Мраморном дворце открылась завораживающая экспозиция "Тайный сад" молодой корейской художницы Аюнг Юн. "Тайный сад" - поэтическая метафора, воплощенная Юн в мультимедийной инсталляции. Это укромное место, уголок забвения и волшебного сна, где нет смены дня и ночи - все пространство залито "черным" светом, где нет места привычному порядку вещей. На ветвях цветущего миндального дерева вместо плодов - экраны с образами левитирующей над потоком воды художницы. Шум водопада смешивается с порывами ветра. Среди искусственных цветов расцветают видеопроекции. Юн метафорически называет свою инсталляцию "Тайный сад" сновидением. "Ночи напролет в моих снах я плаваю, как рыба, я летаю в облаках, как птица... Моя душа парит вместе с ветром, не ведая, с чем она встретится... и где найти смысл жизни... "Сад" представляет мои сны, а дерево с образами - мою душу", - говорит художница.

Пространство "Тайного сада" наполнено "реальными" предметами, призрачными видеообразами и звуками. Эти образы, такие, как, например, парящая в воздухе фигура или идущий путник, обладают множеством значений.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образ путника связан с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художницы о "бесконечном путешествии, когда мы не знаем, куда мы идем".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являющееся в видеоинсталляциях изображение самой художницы символизирует ее разделение на Аюнг Юн, живущую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и Аюнг Юн, существующую лишь во снах, фантазиях и воспоминаниях. Говоря об этой инсталляции, художница вспоминает о знаменитом сне Чжуан Цзы, когда внезапно проснувшийся мудрец спрашивает себя, то ли Чжуан Цзы спал и видел себя бабочкой, то ли бабочка спит и видит сон о Чжуан Цзы. Осязаемые объекты, такие, как дерево и цветы, возвращают художницу "на землю", в материальный мир, мир логики и сознания. Природные звуки воды и ветра символизируют

А также 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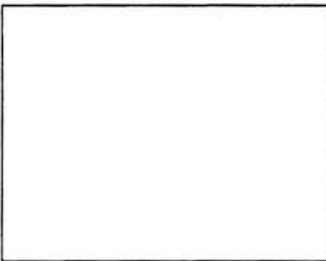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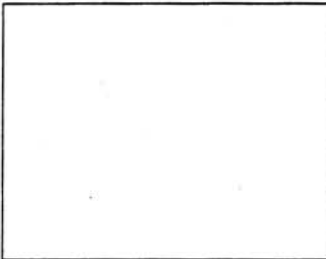
- Последний абстракции 75 лет на пу
- Как важно тронутым Дни Чюрлени Петербурге
- Бери свой карандаш, Орловский, сечу...
- Неудержим импровизац Выставка раи Бунина
- Абсолютно пространст Владимира
- Сны из под "Тайный сад"
- Подарки до Оссовский п картины в Ки
- Точильщик углом "Наше насле Бабина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47
№48	№49-50	
	2002 год	
№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19	№20-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для Юн область бессознательного.

7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новидения являются основным материалом художницы. Выросшая в Сеуле, Юн более десяти лет живет и работает в Париже, ощущая себя странником между двух культур, восточной и западной. Ее инсталляции, по словам самой художницы, "населены снами". Пограничное состояние между осязаемостью мира и его иллюзорностью, между реальностью и сновидением воплощается в пространстве "темного" зала, где соединяются скульптура и перформанс, матер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и постоянно меняющееся видеоизображение.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в Русском музее инсталляция - это скрупулезно воссозданный с помощью видеопроекций, трехмерных объектов и звуков Тайный сад воспоминаний.



[о портале](#) [✉ письмо редактору](#) [✉ подписка на новости](#) [✉ карта портала](#) [✉ форум](#) [✉ сообщи другу](#)

[реклама на портале](#)

<뉴욕-파리 한인 작가 교류전>

 프린트하기

<저작권©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래운 특파원 = 미국 뉴욕을 대표하는 한인 작가 2명은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한인 작가 2명은 뉴욕에서 각각 전시회를 갖는 '제1회 뉴욕-파리 한인 작가 교류전'이 열린다.

뉴욕 한국문화원(원장 우진영)과 파리 한국문화원(원장 모철민)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 행사에 따라 뉴욕에서는 정재규, 윤애영씨의 전시회가 10월4일부터 22일까지 맨해튼 '2x13 갤러리'에서, 파리에서는 변종곤, 이 일씨의 전시회가 10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 파리 가나 화랑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뉴욕 한국문화원 우진영 원장은 25일(현지시간) "세계 미술계를 대표하는 두 도시에서 활동중인 한국 작가들간의 교환 전시를 통해 세계 무대의 한인 미술가들이 보다 폭넓은 미술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전시회를 가질 정재규, 윤애영씨는 기존 관행을 파기하는 새로운 조형언어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 파리 미술계의 대표적인 한인 미술가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서울에서 미대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에서 작업해 온 두 사람은 사진과 비디오라는 매체를 주로 다루어온 중견 미술가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고 있다.

lrw@yna.co.kr

(끝)

<저작권 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

국제 미술계에 진출한

갤러리 현대

프랑스 파리 '퐁피두 센터'의 디종/콘솔시움 소장품전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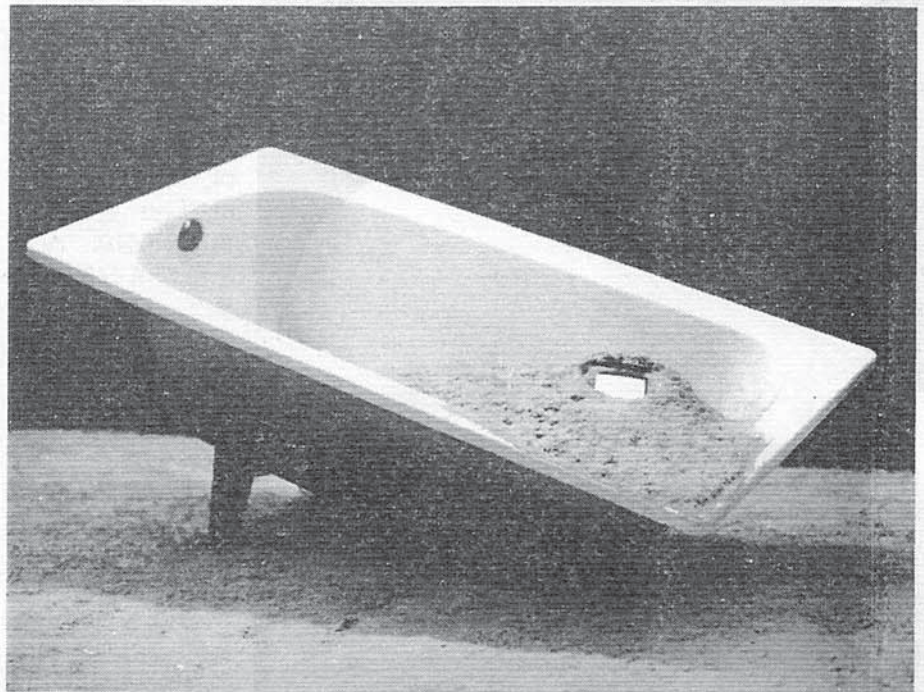
갤러리 현대는 1998년 12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파리 퐁피두 센터의 디종/콘솔시움(Dijon/le Consortium) 소장품전에 참여한 동유럽 출신작가 플라멘 데자노브 & 스외뜨라나 에제(Plamen Dehanov & Swetkana Heger)의 작품세계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국제 미술계를 위한 홍보 장소로 이용함과 더불어 젊고 패기 있는 우리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한국미술계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갤러리 현대를 국제 미술 시장에 선보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무대의 진출을 위하여 퐁피두 센터에 나선 갤러리 현대가 첫번째로 선정한 작가는 조용신&윤애영 이다.

조용신 & 윤애영 멀티 미디어 아티스트 비디오 설치작업 및 퍼포먼스

이 두작가는 결혼과 함께 88년 도블파리에서 파리국립보자르를 졸업하고 동시에 현재 비디오 설치와 행위예술가로서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중이며 불란서 화단에서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 역량있는 작가다.

조용신과 윤애영은 95년도 제10회 "클레르몽 페랑" 국제비디오 페스티벌에 한국의 '백남준', 미국의 '빌 비올라', 프랑스의 '피에릭 소랑'등 세계적인 대가들과 함께 비디오 아트 테크놀로지 설치전에 초대되기도 했다.

이두작가의 노력은 94년 프랑스 그리니시 주최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96년 보막쉐 재단이 수여하는 멀티부문상을 수상 함으로 화려하게 세계무대에 데뷔한게 된 것이다. 이들은 또 발표를 목표로 하는 비디오 영상의 입체적연출, 사운드 설치에의한 공간감 획득을 극대화시키는 설치 작업의 완성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CHO & YUN-"잃어버린 시간" (1998년작)

잃어버린 시간

조&윤이 내놓은, 이번 전시의 작품은 "Le Temps Perdu(잃어버린 시간)"이란 제목으로 지나간 많은 시간들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거나 변질되어가는 기억들을 다시 생성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는 비디오 설치 작품이다.

흘러간 시간들의 허무성의 상징으로 표현된 모래위에 노란 안료를 뿌려 기억의 변질을 나타내고 그위에 비스듬히 세워진 목조속에는 언제나 쉬임없이 흘러가는 현재의 시간과 그속에 설치된 비디오 화면을 통해 지난 과거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비스듬히 세워진 목조를 통해서 시계의 바늘도 문자판도 없지만 보는 이들은 시간의 소리를 듣게 된다. 이들의 작품속

에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여전히 일초, 일초 흐르고 있는 현재의 시간들을 함께 느낄수 있어 단순한 하나의 작품속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풍족함이 보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

조&윤은 이 전시가 끝나고 나면 '99년 1월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열리는 멀티미디어전에 참가, 그리고 4월에는 한일 현대미술전을 위해 오오사카를 돌아 5월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리용전을 준비할것이다.

파리 성석남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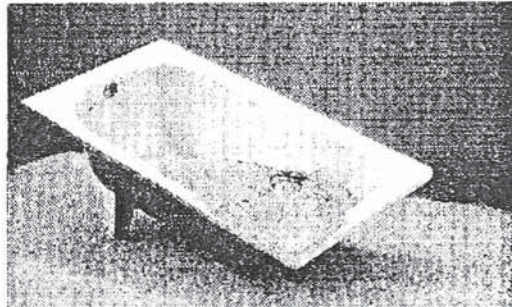
우리미술 세계무대 나선다

佛풍피두센터에 조용신·윤애영殿

갤러리 현대는 최근 파리 풍피두 센터의 디종-콘솔시
을 소장품전에 참여한 동유럽 출신작가 플라맨 데자
노브 및 외뜨라나 에제의 작품세계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국제미술계를 위한 홍보장소로 이용했다. 더불어 젊고
패기있는 우리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한국미술계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갤러리 현대를 국제미술 시장에 선
보였다.

이러한 세계무대의 진출을 위하여 풍피두 센터에 나선 갤
러리 현대가 첫번째로 선정한 작가는 조용신과 윤애영이다.

이 두작가는 결혼과 함께 지난 88년 프랑스로 건너와, 파리
에서 파리국립보자르를 졸업한 후 현재 비디오 설치와 행위
예술가로서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동중이다.



◇ 조용신
과 윤애영씨
의 작품 「잃
어버린 시
간」.

조용신과 윤애영은 지난 95년 「제10회 클레르몽 페랑」 국제
비디오 페스티벌에 한국의 백남준, 미국의 빌 비올라, 프랑스
의 피에릭 소랑 등 세계적인 대가들과 함께 비디오 아트 테
크놀로지 설치전에 초대되기도 했다.

이 두작가의 노력은 지난 94년 프랑스 그리니시 주최 공모
전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96년 보막쉐 재단이 수여하는 멀티
부문상을 수상함으로써 화려하게 세계무대에 데뷔했다.

이들은 또 발표를 목표로하는 비디오 영상의 입체적 연출,
사운드 설치에 의한 공간감 획득을 극대화 시키는 설치작업
의 완성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두 작가가 내놓은 이번 전시의 작품은 Le Temps Perdu
(잃어버린 시간)이란 제목으로 지나간 많은 시간들 속에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거나 변질되어가는 기억들을 다시 생성시
키는 듯한 느낌을 주는 비디오 설치작품이다. 흘러간 시간들
의 허무성의 상징으로 표현된 모래위에 노란 안료를 뿌려 기
역의 변질을 나타내고 그 위에 비스듬히 세워진 육조속에는
언제나 쉽없이 흘러가는 현재의 시간과 그 속에 설치된 비디
오 화면을 통해 지난 과거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보는 이
들은 시계바늘과 문자판도 없이 비스듬히 세워진 육조를 통
해서 세월의 흐름을 느꼈다. (프랑스=성석남)

AUSSTELLUNG

L'Illusion en 3D

Aiyoung Yun, Jacques Robin,
Patrick Bailly-Maître-Grand

Eröffnung:
Samstag, 31. März,
17 Uhr, im Ifs

Dauer der Ausstellung:
bis 28. April

Öffnungszeiten:
Mo-Mi 14–18.30 Uhr
Do 10–12.30 Uhr und
14–18.30 Uhr
Und nach Vereinbarung

Eintritt: 5 DM

In Zusammenarbeit mit dem
Musée Carnavalet Paris und
dem schweizerischen Gene-
ralkonsulat in Stuttgart

Mit freundlicher
Unterstützung von
PowerCom-elektronics GmbH



← Abyss, Aiyoung 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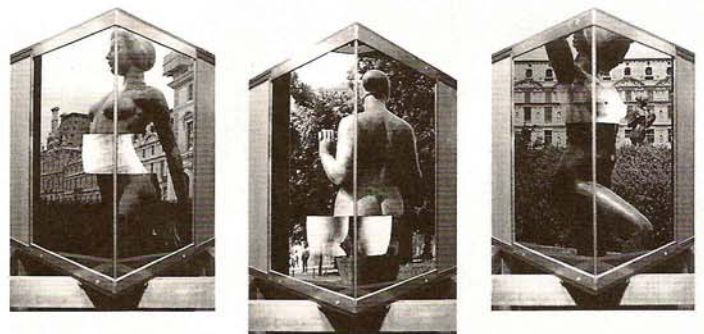
»Maschine für Perifotographie« vermittelt er uns mit der berühmten photographischen Serie *Formol's Band* (erstaunliche Bilder von ausgestopften Tieren) eine unvorstellbare und spielerische Vision der Realität.

Das Publikum kann auch an Computern interaktiv, virtuell und reliefartig die wichtigsten Pariser Museen Paris aufsuchen.

Drei Spezialisten für Sinnestäuschungen (und der 3D) stellen im Institut außerordentliche Werke aus, die zum Teil in der Ausstellung *Paris in 3D* (Musée Carnavalet, 2000) präsentiert wurden. Die Videomacherin Aiyoung Yun (geb. 1964) arbeitet mit ihrem Lebensgefährten Cho an den Bewegungen des Bewusstseins gegenüber den Grenzen der Existenz und der materiellen Welt, wie zum Beispiel in der Installation *Abyss* (einer schwebenden nächtlichen Wanderung durch Paris mit dreidimensionalen Brillen) gezeigt wird.

Der Bildhauer Jacques Robin (geb. 1964), der das Spiel mit der Wahrnehmung und den entlarvenden Effekten der »unsichtbaren Spiegel« vervielfacht, hat zwei Maschinen geschaffen, um Paris zu besuchen: in *Jeux de balle* folgt man dem Ball eines Mädchens durch die Stadt und in *Jeux*, eine Reflexion über Skulpturen und Architektur, spielt man mit den Bronze-Statuen von Maillol.

In den Arbeiten von Patrick Bailly-Maître-Grand (geb. 1945), einem großen Fachmann der Daguerreotypie, wurden Poesie, Humor, ästhetische Untersuchungen, wissenschaftliche Strenge und Technologie engstens miteinander verknüpft. Dank seiner



Jeux, Jacques Robin

Das Institut Français zeigt die Ausstellung „Illusion en 3D“

Die ganze Stadt in einer Kugel

Das Kino ist das beste Beispiel: Der Mensch lässt sich gerne blenden, der schöne Schein der Lichtbilder hat enorme Verführungskraft. Auch Künstler spielen gerne mit der Sinnestäuschung. Früher malten sie Trompe-l'oeils, heute stehen ihnen raffinierte technische Mittel zur Verfügung.

VON ANDREA KACHELRIESS

Das Spektrum von der alten Stereoskopie bis zur neuen virtuellen Realität deckte im vergangenen Jahr eine Ausstellung im Pariser Musée Carnavalet ab. Nun sind Teile von „Illusion en 3D“ im Institut Français in Stuttgart zu sehen, mit den Künstlern Aiyoung Yun, Jacques Robin und Patrick Bailly-Maitre-Grand sind drei Spezialisten für Sinnestäuschungen am Werk.

Die Videomacherin Aiyoung Yun erzählt vom Fremdsein – in der eigenen Haut, in einer anderen Stadt. Wer eine Spezialbrille aufsetzt und in einen Trog schaut, sieht die nackte Künstlerin, die plastisch wie ein Stein vor der vorbeiziehenden Kulisse von Paris schwebt. In einem dunklen Raum lässt die Koreanerin einen winzigen Videomann über einen echten Stein robben – ein Sisyphus, der nicht vom Fleck kommt.

Der Bildhauer Jacques Robin hat altertümliche Apparate konstruiert, die über ein effektreiches Spiel vieler Spiegel Fotos und

Skulpturen so übereinander projizieren, dass surreale Räume entstehen und man sich wirklich mitten in Paris wähnt. Patrick Bailly-Maitre-Grand, ein Fachmann der Daguerreotypie, holt mittels einiger mit Wasser gefüllter Glaskugeln die ganze Stadt in den Ausstellungsraum. Und dank seiner Maschine für Perifotografie hat er aus den Präparaten des Pariser Naturkundemuseums ein Monsterkabinett gemacht. Beim Anblick von „Formol's Band“, so heißt die Fotoserie, wird klar: Der schöne Schein, „L'illusion en 3D“, muss nicht immer schön sein.

■ Bis zum 28. April, Diemershaldenstraße 11, Mo–Mi 14–18.30 Uhr, Do 10–12.30 Uhr und 14–18.30 Uhr

Ⓞ www.kultur-frankreich.de/ff/Stuttgart/

Drall und prall

Ausstellung „L'illusion en 3D“

Was ist denn mit dem Hinterteil der Dame? In den Gärten des Louvre platzierte der Bildhauer Aristide Maillol einst drei allegorische Frauenstatuen, jetzt hat der französische Künstler Jacques Robin den formvollendeten Figuren einfach ein paar der besten Stücke aus dem Bronzekörper geschnitten. Natürlich nur virtuell, in den Fotomontagen, welche die Kulisse für ein die Sinne verwirrendes, stereoskopisches Spiegelspiel abgeben. Setzt der Betrachter die altertümliche Glas- und Holzapparatur per Kurbel in Bewegung, schwebt ein Damenpo oder ein Busen an ihm vorüber. Alles drall und rund wie zum Anfassen, wäre es nicht in der plastischen Illusion des Hologramms. Im Rahmen einer Ausstellung des französischen Kulturinstituts mit dem Titel „L'illusion en 3 D“ haben wir jetzt auch Gelegenheit, die Nase in Robins optisch-interaktive Spaßmaschinen zu stecken.

Ebenfalls räumliche Trugbilder sind es, die uns in den Videoinstallationen der gebürtigen Koreanerin Yun Aiyoun narren – sofern man die dazugehörige 3D-Brille aufgesetzt hat. Die Wahlpariserin geleitet uns bei Nacht durch die französische Hauptstadt, doch vor die Impressionen aus der erleuchteten Seinemetropole schiebt sich die Künstlerin selbst bzw. ihr Ehemann. Als dreidimensionale Nackedeis schwimmen die beiden vor dem Arc de Triomphe durch die Dunkelheit. Patrick Bailly-Maître-Grand dagegen täuscht nichts vor. Der gelernte Physiker hinterfragt nur die naturwissenschaftlichen Funktionsgesetze des Sehens, indem er gigantische „Fliegenaugen“ (Titel) vor die Fenster stellt. Die glubschigen Glaskugeln inszenieren den weiten Panoramablick auf Stuttgart als kurviertes Netzhautbild. lei

■ Bis 28. April, Diemershaldenstr. 11. Mo–Mi 14–18.30, Do 10–12.30, 14–18.30 U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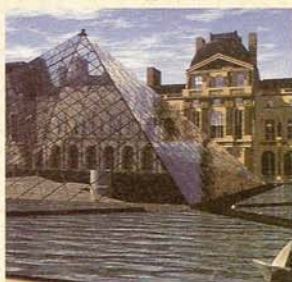
INSTITUT FRANÇAIS DE STUTTGART

**Haltestelle 8: Eugensplatz**

„I love Paris“ - so geht es nicht nur Cole Porter. Wer seine Sehnsucht nach der französischen Hauptstadt mal wieder nähren möchte: In der schönen alten Villa des Institut Français ist die Ausstellung „Illusion in 3 D“ zu bewundern und Paris spielt dabei eine große Rolle. Die Videokünstlerin Aiyoung Yun, der Fotograf Patrick Bailly-Maitre-Grand und der Bildhauer Jacques Robin zeigen spektakuläre und verblüffende Stadtansichten. Die drei Künstler arbeiten mit Perifotografie, Stereokopie und Video-Perforances und erweisen sich so als Spezialisten der Illusion. Das Publikum der Langen Nacht kann auch Hologramme betrachten und die wichtigsten Museen von Paris virtuell besuchen.

✦ **Das Restaurant Flam's sorgt für die Bewirtung mit Crêpes und Cidre. Institut Français de Stuttgart, Diemershaldenstr. 11**

Wegbeschreibung: von Haltestelle bergauf in Diemershaldenstraße

Videokunst von Aiyoung Yun**Promenade virtuelle dans Paris**



art

IN CULTURE

special feature

한국 사진의 선구자 임응식

emerging artist 윤애영

world art 런던 특별전 홀로코스트

column 이태호의 문화 가로지르기

2001·3

Emerging Artist

윤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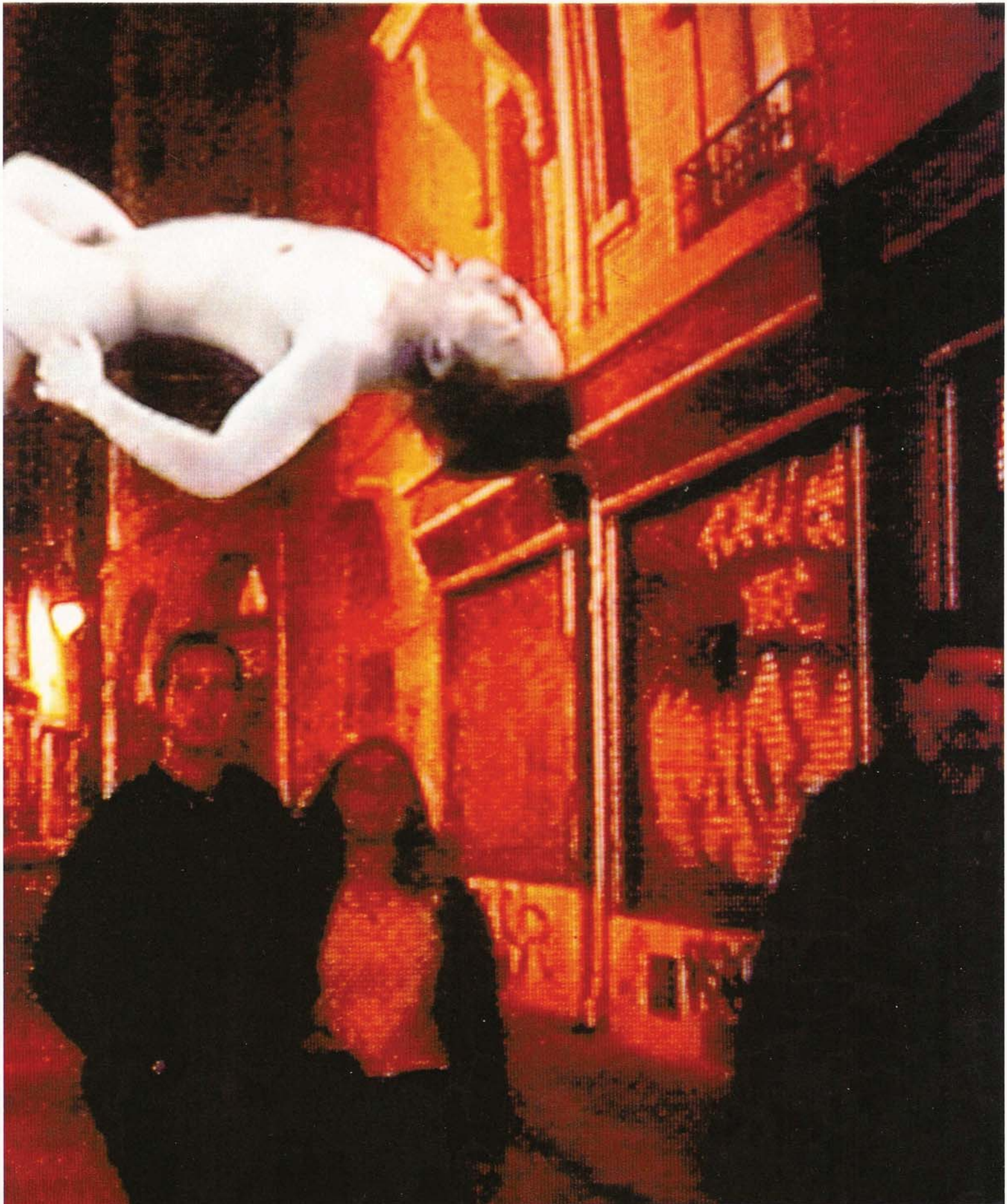
AIYOUNG YUN

윤애영은 94년부터 조용신과 함께 '조&윤'의 이름으로 비디오를 동원한 멀티미디어 설치 작업을 하다가 최근 단독 작업을 시작한 재블 작가다. '조&윤' 공동 작업에서는 주로 인간 존재의 한계에 저항하는 고뇌에 찬 육체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윤애영은 단독 작업의 결과물로 <심연>과 <교차>를 선보였다. 재블 평론가 김애령은 이 작업을 꿈에 대한 관심으로 읽는다. 단일한 의식적 공간이 아닌 수많은 무의식적 공간을 표현함으로써 닫힌 공간으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인간의 모습을 비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한 멀티미디어 작업을 통해 관객과의 적극적 소통을 모색하는 점도 작업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덧붙인다. 파리 제8대학 교수인 장 폴 파르지에는 윤애영이 '조&윤'의 작업에서 단독 작업으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목격한 '빈 자리'를 주제로 작업해 왔으며, 그것은 존재의 확인 과정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지적한다. 그 결과 윤애영은 정신 세계의 진정한 형상화 작업을 이루어 내었으며, 존재는 육신도 영혼도 아닌 이들의 교차라는 해답으로 귀착된다.

<심연> 입체 비디오 설치 2000

윤애영은 이화여대 서양화과와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파리 에콜 데 보자르) 및 파리 제8대학 조형예술학과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 동안 파리 국제아트페어 피악(FIAC), 제2회 광주비엔날레, <한·일 현대미술전>, 제10회 인터내셔널 비디오 & 테크놀로지 아트 페스티벌 등 다수의 국제전에 참가했으며, 파리·런던·마드리드 등에서 5회의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현재 랑스의 레 피유 뒤 칼베르 갤러리(Galerie Les Filles du calvaire) 전속 작가로 활동 중이다.





AIYOUNG YUN

몽상과 멀티미디어

글 | 김애령 | 미술평론가

94년부터 본격적으로 비디오를 동원한 설치와 퍼포먼스를 '조&윤'의 공동 작업으로 발표해 온 윤애영은 최근 단독 작업을 시작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간의 작업에서 나타났던 실존주의적 담론은 보다 시적인 몽상 속에 희석되어, 관객과 나누는 시공 체험으로 전개된다.

'조&윤' 작업에서는 인간 존재의 한계에 저항하는 고뇌에 찬 육체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초기 비디오 설치 작품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1994)에 등장한 걸어가는 나체와 고통스런 얼굴은 여러 해 동안 '조&윤' 작품의 주된 이미지를 형성했다. 쓰러지면 일어나 다시 걸어도 제자리걸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벌거숭이 인간의 이미지가 98년에 발표된 <흔적>에서는 인간 한계에 대해 더욱 분명한 메시지로 표현되었다. 돌덩어리에 투영된 나신은 열심히 전진하고자 하지만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의 표면을 벗어나지 못해 마치 돌에 갇힌 듯 보인다.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행위는 시지프스의 신화에 버금가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비극성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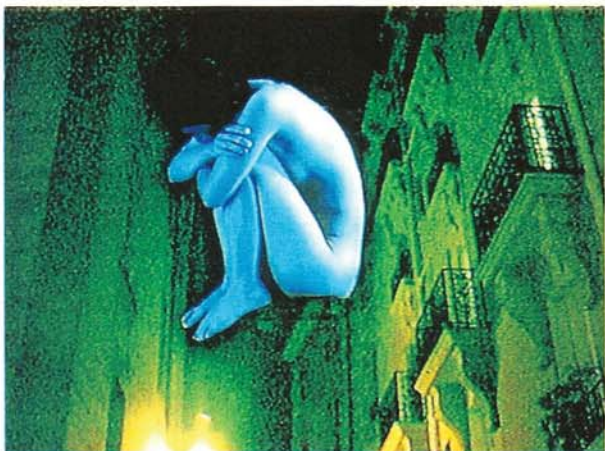
그런가하면 일군의 나체들이 정해진 틀이나 <타임큐브> (1998), 벗어날 수 없는 사슬 관계 <균중> (1998) 속에서 몸부림치는 장면도 있고, <저항하는 인간은 아름답다> (1995)나 <코마(Coma)> (1995) 등의 비디오 퍼포먼스에서는 삶의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거부 혹은 수긍하는 모습을 작가가 직접 전라로 연기했다. <침대> (1995)의 웅크려 누워 뒤척이는 나체와 <만드레이크의 노래> (1999)에서 인간의 숙명을 저주하는 식물 '만드레이크'를 의인화한 나체는 <심연> (2000)에서 도시에 안주하거나 즐기지 못하며 떠도는 이방인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입체 영상으로 처리된 <심연>의 나체는 배경을 이루는 도시 풍경에서 더욱 격리되어 위치를 설정할 수 없는 공간을 떠돈다.

원초적 인격의 표상으로서의 나체

여기 등장하는 벌거벗은 육체들은 이상화된 인간이나 욕망의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개성이나 사회적 신분이 제거된 원초적 인격의 표상으로서의 나체인 셈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만의 꿈과 생각에 잠겨 있으며, 영상을 동반하는 거친 숨소리나 신음과 심장의 고동은 타인의 시선을 향해 제공된 나체가 아님을 더욱 분명히 한다. 이런 나체 이미지는 계속해서 윤애영 작업의 재료가 되고 있으나 기억이나 꿈·몽상 혹은 무의식 같은 현실과 평행한 다른 세계 속에서 등장한다.

윤애영의 꿈에 대한 관심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만질 수 없지만 생생한 경험이고 한 번 깨어나면 다시 갈 수 없는 꿈의 세계는 오래 전부터 그를 사로잡았다. 꿈을 포착하는 방법으로 깨어나는 즉시 메모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꿈에 집착하는 것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속을 헤엄치는 신기한 경험과 놀라운 이미지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은 동시에 여러 공간을 산다는 암시가 꿈속에 담겨 있기 때문인 듯 싶다. 꿈을 통해서 작가는 '지금 여기'가 존재 방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현실과 평행한 혹은 현실과 공명하는 다른 세계들을 예감하는 것이다. 편제에 대한 몽상은 자기 확대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시공 속에 분리되어 어디에서나 불완전하고, 어디서나 이방인이라는 의식 상황과 관련이 있다. 비디오는 이런 꿈을 시각화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동원되며, 꿈 특유의 이미지 창출 수법인 연상 작용·몽타주·중력과 시간의 법칙 초월이 그의 어법이 되었다.

윤애영에게 있어 도약판이 된 <교차(Intersection)>는 2000년 2월 마드리드 아트페어 아르코(ARCO)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그의 새로운 방향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었다. 안개진 숲,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 수증 풍경이 중첩되는 프로젝션을 배경으로 6개의 투명한 스크린에 즐겁게 뛰노는 벌거벗은 아이의 영상이 투사된다. 중첩되는 영상, 환경과 인물의 분리와 교차, 흑백의 영상 등은 현실과 평행한 어떤 세계, 현실의 무게가 없는 세계를 시사한다. 윤애영의 비디오 영상들은 현실에서 채집한 것이지만, 작가와 현실 세계를 매개하기보다는



<심연> 입체 비디오 설치 2000

오른쪽 페이지
<교차> 비디오 설치 2000

현실과 평행한 비물질의 세계를 가시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파편들에 불과하다. 마치 꿈이 현실을 단서로 구성되듯이,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영상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미 다른 작품에서 쓰여지기도 한 단편들이(아이의 이미지는 <잃어버린 시간>에서 따왔다) 새롭게 조합되고, 또 다른 영상과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그것은 현장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완결된 환영(illusion)의 공간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유령스러운 빛과 그림자들이 관객과 교차하기를 기다리는 열린 상황이라 하겠다.

<3차원의 파리전>(2000. 10. 3~12. 31 파리 까르나발레 미술관)에 출품한 <심연(Abysses)>은 파리의 밤 풍경 위를 떠도는 남녀의 나체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드림통 속에 넣어 놓고 관객이 통 속을 들여다보도록 한 작품이다. 일체 안경을 끼고 보면 허공을 떠도는 혼령같이 그 하얀 색 나체는 선명한 입체가 되어 배경에서 더욱 격리된다. 작가는 "단한 공간으로부터의 탈출과 자유에 대



운애영은 현실의 시간뿐 아니라 기억의 시간, 심리적인 시간, 잃어버린 시간들을 움직임과 소리를 통하여 작업하면서 관객과 영상이 "같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결국 작품과 관객, 전시 공간 자체가 하나가 되어 전시를 통해 제시한 시간 속으로의 여행에 동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한 일종의 집착을 상징한다."고 제작 의도를 피력함으로써 과거의 실존주의적 어휘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기실 나체 영상들은 <만드레이크의 노래>나 <침대>, 혹은 '조&윤'의 여러 퍼포먼스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시된 것 못지 않게 보는 행위가 고려된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작가의 극히 주관적 경험을 제시하면서 관객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새롭다. 관객이 통 속을 들여다볼 때, 그 속에 펼쳐지는 풍경의 지평은 관객이 서 있는 현실의 지평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 속의 도시를 현실의 연장으로 볼 수 없게 되며, 관객은 마치 부유하는 듯한 위치에 있게 된다. 제목이 말하는 '심연'은 어느 공간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물의 혼수 상태 같은 의식이기도 하지만, 관객의 시점에서는 소설점을 넘어 무한히 계속되는 하나의 도시이기도 하다.

멀티미디어를 통한 관객과의 만남

관객과의 만남을 위한 설치는 윤애영의 작업에 나타난 새로운 국면이다. 어디에서나 느끼는 이방인으로서의 소외감, 한계 지워진 존재의 고독, 현실과 평행한 세계를 사는 분리된 '나'들, 남과 나눌 수 없는 몽상의 시공을 전시라는 상황 속에 환기시켜 놓고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소외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2001년 10월 바르셀로나의 메트로놈 재단 초대 개인전을 위시하여, 2003년까지 예정된 스페인의 알리칸테 대학 미술관과 러시아의 세인트 피터스부르크 국립 현대미술관의 개인전을 비롯, 프랑스 내의 여러 멀티미디어 아트를 위한 장소에서 예정된 4~5개의 개인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모두 관객과 함께 꾸기 위한 꿈을 위한 영상과 소리 설치 작업들이다. 부분적으로는

작가 개인의 꿈과 몽상을 재현하는 것도 있으나 앞서 지적했듯이 개개의 영상보다는 그것이 조합되고, 교차하고, 어긋나는 방식이 하나의 언어가 된다. 그러한 언어 구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비디오·레이저·입체 영상·디지털 편집 등의 테크놀러지이다.

멀티미디어 작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지간에 시간 작업이며, 작업 과정 상 시간에 대한 의식이 불가피하다. 회화나 사진 같은 이미지에서도 시간을 읽을 수 있으나 그것은 늘 공시적이며 상징적으로 제시된다. 멀티미디어 작품은 통시적이며, 작업 과정에서 시간은 저장되고 분해되고 재조립되며, 반복하고 역행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작업을 기다리는 재료이다. 윤애영은 현실의 시간뿐 아니라 기억의 시간, 심리적인 시간, 잃어버린 시간들을 움직임과 소리를 통하여 작업하면서 관객과 영상이 "같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결국 작품과 관객, 전시 공간 자체가 하나가 되어 전시를 통해 제시한 시간 속으로의 여행에 동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윤애영에게 멀티미디어는 그녀가 평면 작업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재료의 투명성과 통시적 서술성, 시간의 울림을 작업 속에 포함시키려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었다. 그것은 이제 전시라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녀가 예감하고 몽상하는 동시적인 세계들을 객관화하는 통로가 되었다. 사실과 가상의 경험들을 교차시키는 방식이 테크놀러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영상 테크놀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도 하다. 멀티미디어 작업이 기술과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나름대로 극복해 가면서, 90년대 중반부터 열심히 뛰어나다며 실험하고 만들어 본 탄탄한 경험 속에서 윤애영은 한 작가로서의 개화를 기다리고 있다. ㉔

AIYOUNG YUN

떠도는 영혼

글 | 장 폴 파르지에(Jean Paul Fargier) | 파리 제8대학 영상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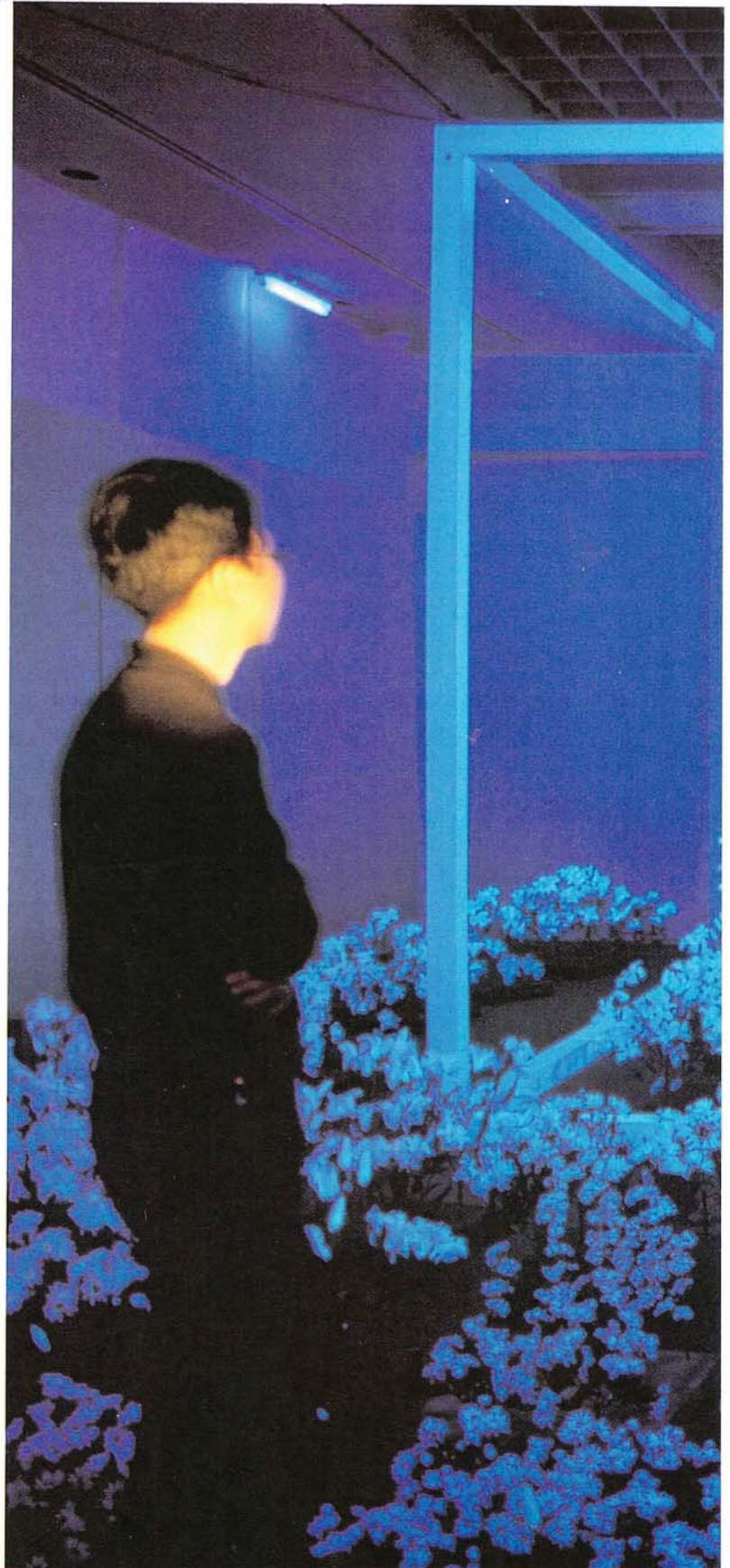
그들은 두 사람이었다. '조&윤'이라 불리던, 그 두 이름 가운데 어느 것이 여자 이름이고 남자 이름인지 모른 채 우린 그냥 그렇게 부르는데 익숙해졌다. "여자가 '조' 예요?" "아니에요, '윤' 이에요!" "아,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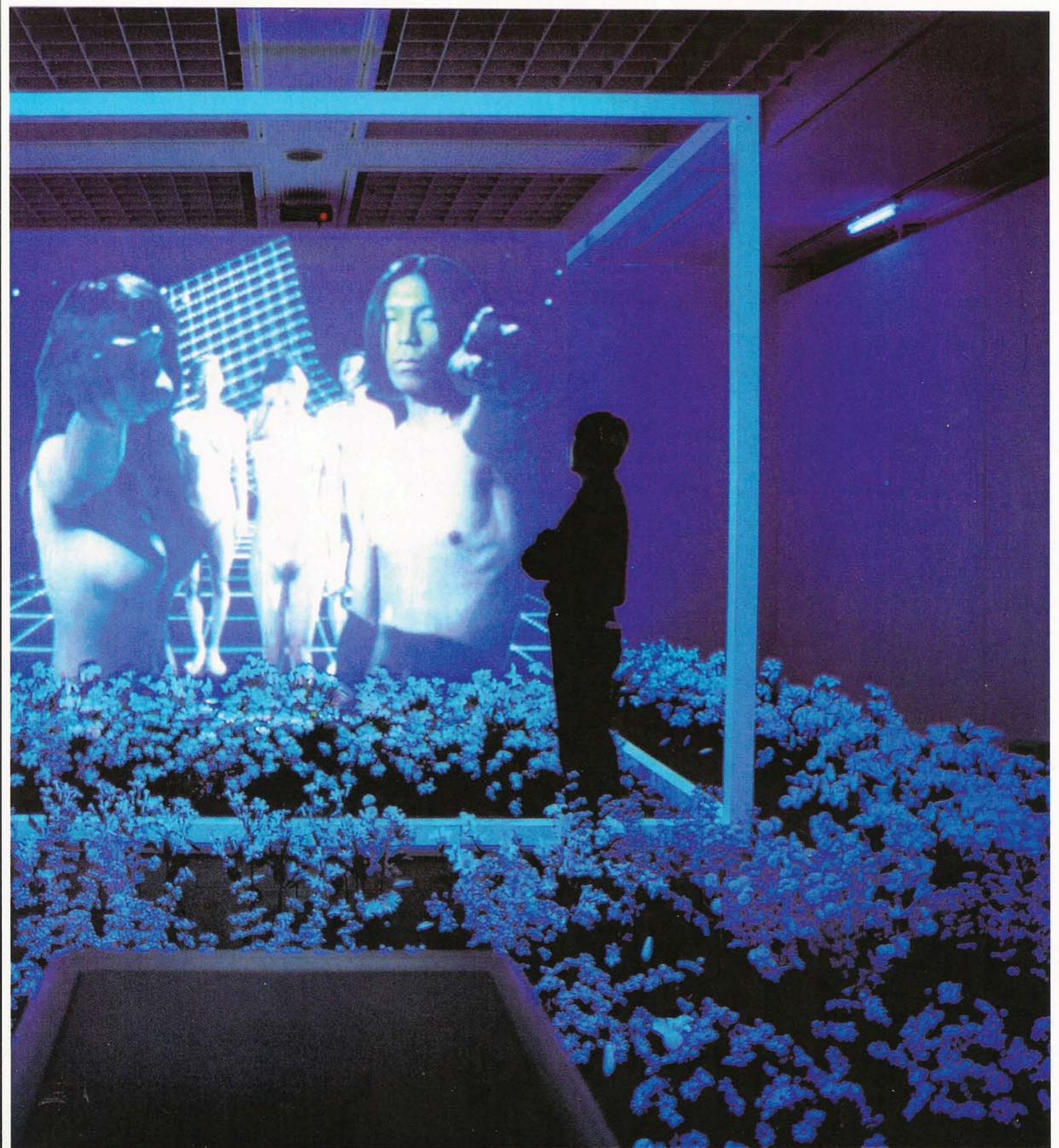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더 쉬워졌다. 이제 윤과 조가 각각 혼자서 작품 활동을 한다. 이 '&(공동)' 부호가 없어지고 멤버 각각이 원자로 분해되어 그들의 공동 작업은 없어졌다. 새로운 출발이다. 그러나 '&' 부호 자리가 비어 있을 뿐 제로가 된 것은 아니다.

3차원 세계에서 서 있는 윤애영은 최근 작품에서 이 빈 자리를 주제로 삼아 표현했다. 이 빈 자리의 공허함은 <심연>이라는 작품의 타이틀에서부터 이미 아주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 깊은 바닥의 알 수 없는 깊이를 가늠해야 한다. 200리터 짜리 통, 뭐 그다지 대단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윤애영은 그 작품을 작은 찻잔을 사용해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통 밑에 가려진 빛과 어둠, 작품 영상까지의 빈 공간과 공허함이 그것을 표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 통은 무심코 지나가려는 관람객의 주의를 끌고 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데, 몸을 굽혀 저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신비하고 아주 특수한 영상을 보는 동안 관람객들은 그 깊이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게 된다.

입체 안경을 코에 걸고 보면 보이는 것은 또 무엇인가? 또 다른 두 개의 인체가 파리 시내 위를 떠다니고 있다.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어딘지 모르게 걸맞지 않지만 그냥 그대로이기를 주장하는 묘한 현상. 충격적인 기습이다.

오른쪽 · 조&윤 <타임 큐브> 입체 비디오 설치 1998
아래 · 조&윤 <혼적> 비디오 설치 1998





영혼이란 존재의 회귀

남자와 여자가 차례차례 세느강과 파리 골목골목을 기묘한 방식으로 맴돌고 있다. 아주 불안정한 모습이다. 인물들은 최소한 배경과 조화를 이루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은 채,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세상이라는 배경 위에 자신들의 존재를 새긴다. 그들의 자세나 몸집 색다른 빛들은 그들을 조화롭게 꾸며진 배경 속에 덧붙여진 거북한 군더더기처럼 보이게 할 뿐, 우리에게 익숙한 여느 행인들의 모습은 아니다. 현실이라는 배경 위에 그들이 실제로 날아오른다는 인상을 주고자 노력한 흔적은 전혀 없고 단지 입체 비디오를 사용함으로써 빈 자리를 더욱 더 최대한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것은 육체와 배경이 분리됨으로써 만들어지는 빈 자리인 셈이다. 이 두 이방인의 육체들이 외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같은 영상에 단 한 번도 동시에 같이 등장할 수 없도록 짜여진



세례받지 못한 아기들의 영혼이 간다는 '해소'를 연상시키는, 안개 자욱한 풍경을 배경으로 한

아기들의 모습은 커다란 스크린 앞에 걸린 투명 천 표면에 투사되어 비물질성의 흔적을 다양한 농도로 찍어 낸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몽타주에 의해 다시 분열되는 두 존재는 마치 공허의 침상에서 잠을 자는 듯하다. 심연의 저 끝, 한없이 깊지만 한 심연의 나라에...

이 육체들과 세상 사이에는 무상함만 있는가? 아니다. 잊혀졌던 인물, 바로 영혼이란 존재의 회귀가 있다.

파리라는 도시 위에 덧입혀진 이 육신들은 자신들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단지 이제부터는 현실 안에서 현재를 함께 했던 그들의 결합 저 너머로 운명이 이어져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일 뿐이다. 이제 하나의 핵으로 자유로워진 윤애영은 3차원 작품 구성에 대한 주문을 받고(까르나발레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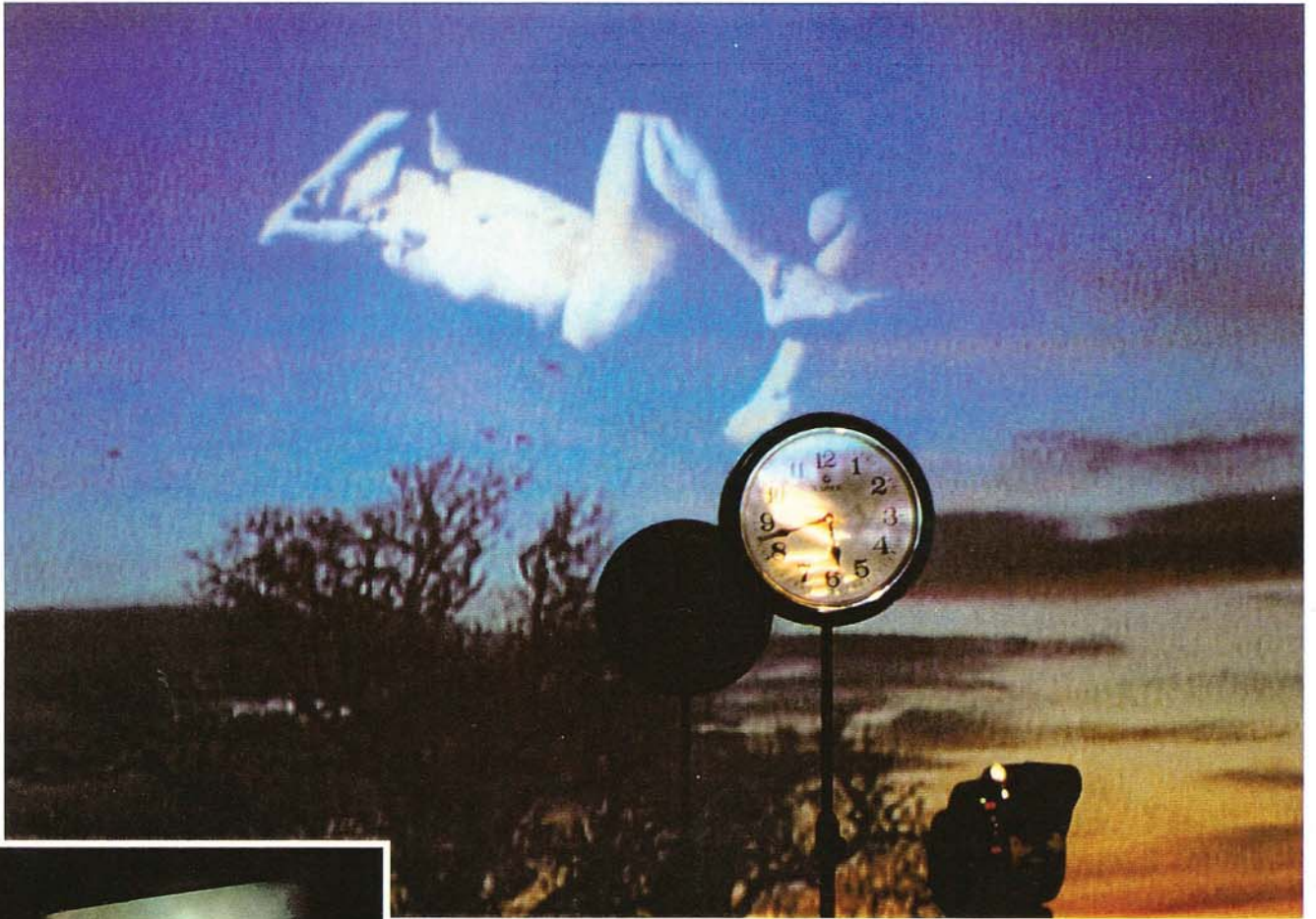
에서 열리는 <3차원의 파리>라는 단체전에 출품해야 하는 작품의 테마) 무엇보다 먼저 영혼의 상태를 구체화시켜 표현해 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윤애영이 이번 작품에서 4차원적으로 부각시킨 영혼이란 존재는 어쩌면 육체에 대해 떠벌이는 수많은 언어들로 인해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몇 십년 전 이래 줄곧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그러나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했던 존재다.

이번 전시에 마련된 소책자에서 이 작가는 이 <심연>이란 작품을 구상하게 된 의도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존재의 확인'에 대한 표현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 존재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이 작가에게는 이중적으로 유배당한 느낌으로 혼란스럽게 작용하고 있다. 파리에서도 서울에서도 자신의 안식처를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연유로 그녀는 자신의 동반자와 함께 이방인이 되어 파리의 하늘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혼이란 육신에 들어 있던 생명이 제로가 된 상태, 즉 영혼이다. 그러나 이렇게 진부한 영혼 해석에 만족한다면 큰 실수다. 이 작품에서 실현해 내고자 하는 것은 정신 세계의 진정한 형상화 작업인 것이다. 3차원으로 구성된 육신들이 관념화되었고, 이 탈육체화 작업은 일종의 창조적 외형화를 통해서 입체적 영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컴퓨터 몸체들과 도시의 불빛들 사이에 놓인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넓은 간격 안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고, 이 길을 통해 섬세한 존재의 감성이 울리는 것을 보게 된다. 존재는 육신도 영혼도 아니며, 그 둘 사이인 것이다.

이중화된 분신과 현실의 창조

바로 이 '그 둘 사이'란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의미를 통해, 손으로 만져 볼 수 없는 현실이 미래 윤애영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2월 마드리드의 아르코에서 윤애영이 설치했던 작품 <교차>는 두 개의 구체 형상간의 교전이라는 형식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세례받지 못한 아기들의 영혼이 간다는 '해

소'를 연상시키는. 안개 자욱한 풍경을 배경으로 한 아기들의 모습은 커다란 스크린 앞에 걸린 투명 천 표면에 투사되어 비물질성의 흔적을 다양한 농도로 찍어 낸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순간순간 하나의 매체에서 또 다른 매체로 넘어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공백의 자리에서 왔을까. 그들이 밟고 지나가는 풀들은 관람자들의 눈에서만 자랄 뿐이며, 나무들은 연

조순윤 <만드레이크의 노래> 비디오 설치 1998

왼쪽 페이지

위 · 조순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비디오 설치 1994

아래 · 조순윤 <코마> 퍼포먼스 1996

약한 그 풀들을 실제로 건드리지도 못한 채 그 위를 스칠 뿐이며, 아기들은 실제로 숲 속에 있지도 않은 채 숲 속을 달린다. 그들은 모든 현실적 집착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그 현실 자체를 창조해 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이중화된 분신을 통해서다.

그 동안 파리에 거주하며 유럽 전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윤애영은 두 사람이 공동 작업한 작품 유산들을 훌륭하게 잘 유지해나가고 있다. 그녀는 발표 작품들을 통해 지워진 '&' 부호의 빈 자리에서 새로운 불꽃을 밝혀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존재 확인이 윤애영이란 작가 자신의 깊은 곳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 낸 '&' 부호의 획득으로 귀착된 것이다. ㉔

Aiyoung Yun est une des premières artistes coréennes installées en France à avoir utilisé le médium vidéo. Elle est diplômée du département Arts Plastiques de l'Université Ehwa à Séoul (Corée), de l'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à Paris et de la faculté d'Arts Plastiques à Paris VIII. Son travail a été présenté dans le monde entier, et notamment au MUSEE NATIONAL RUSSE (St-Petersbourg), à la FONDATION METRONOM (Barcelone, Espagne), au MUSEE NATIONAL D'ART CONTEMPORAIN DE SEOUL, (Corée), au MUSEE NATIONAL OSAKA (Japon) et au MUSEE D'ART MODERNE D'OSAKA (Japon). Elle prépare actuellement sa prochaine exposition personnelle au WHARF, centre d'art contemporain de Basse Normandie.

Aiyoung Yun

par Véronique Sapin

Vidéoformes 2000, m'a permis de rencontrer Yun. Elle y présentait avec Yongshin Cho deux installations vidéo, *La chanson de Mandrake* et *Trace*. Chaleureuse et discrète telle m'est apparue Yun. Par la suite, nos rencontres lors de mes passages en France, m'ont confirmé ces premières impressions. Yun est une personne fort sympathique dotée d'une grande délicatesse. J'étais enchantée de la retrouver pour lui consacrer cette rubrique.

Véronique Sapin : Yun, peux-tu m'expliquer dans quelles circonstances tu es arrivée en France début 1989 ?

Aiyoung Yun : Je venais de terminer les Beaux Arts en Corée. Mon ex-mari souhaitait s'installer en France. Moi j'aurais préféré aller à New-York, mais je l'ai suivi. Je ne parlais pas un mot de français. J'ai donc pris des cours de langue pendant 4 mois et j'ai finalement trouvé ça amusant. J'enregistrais les cours aux Beaux-Arts et quand je ne comprenais pas je demandais à des coréens de me confirmer ou de répéter tel ou tel mot. Je n'ai bénéficié d'aucune bourse particulière pour m'installer en France ; j'ai reçu le soutien de ma famille pendant quatre ans. Au début, voir des visages très différents et ne pas parler la langue, me donnait le sentiment d'un grand isolement.

Turbulences vidéo . juillet . 200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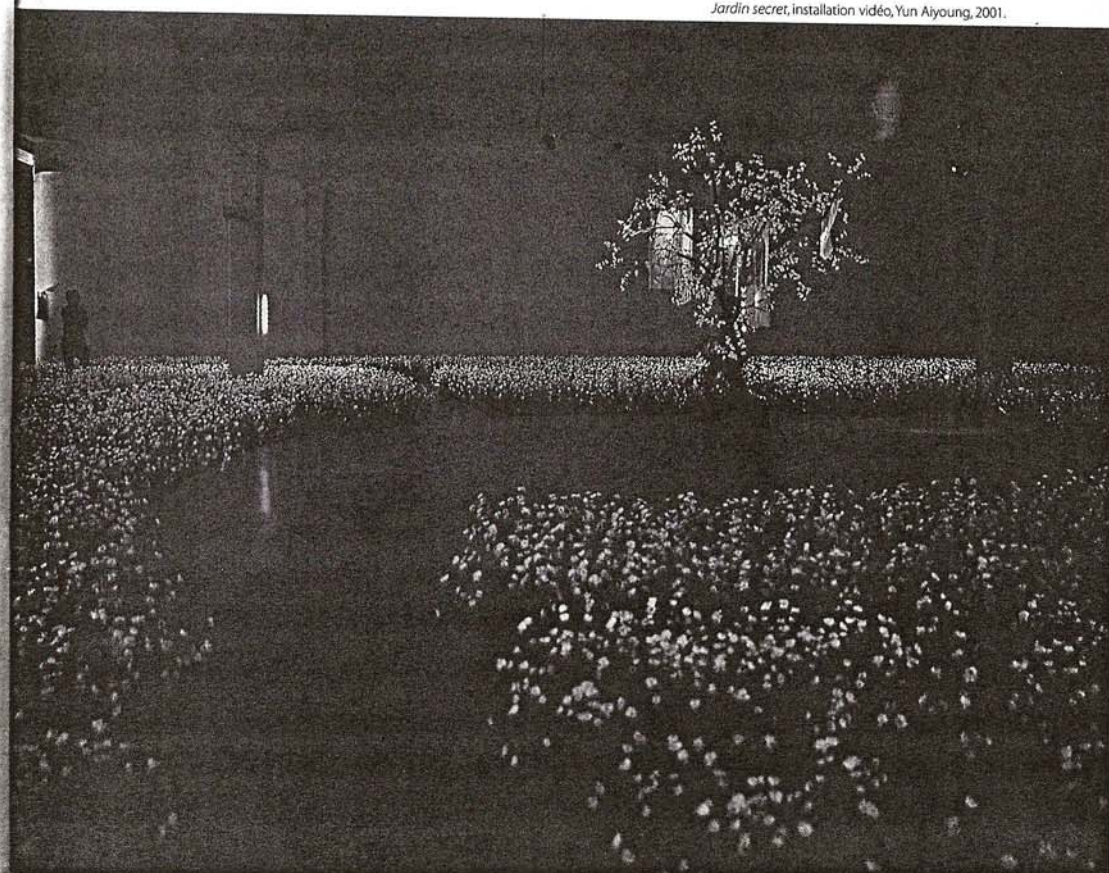
Est-ce que tu as pu établir un réseau d'amis coréens en France ?

Jusqu'en 2001, je fréquentais des amis coréens, on s'entraidait. Puis, j'ai eu un passage à vide et maintenant je préfère rester seule. Avec les français, ça se passe bien mais c'est difficile de se faire des amis. Il faut toujours prendre des rendez-vous, même pour aller au cinéma. Moi je préfère l'imprévu. La langue a peut-être été un blocage au départ, mais pour en avoir discuté avec d'autres étrangers, les français ne sont pas faciles d'accès autrement que superficiellement. Pour moi, ce n'est pas un problème, car je peux facilement faire la fête avec des gens que je ne connais pas. Je m'intègre et je m'amuse. J'ai la chance d'avoir un caractère très gai. Quand on est dans son pays d'origine, on peut se faire des amis très rapidement, tandis qu'à l'étranger il faut du temps. J'ai rencontré un artiste coréen qui vivait en France mais qui est reparti car il pensait que l'énergie qu'il dépensait en France lui suffisait en Corée pour faire son travail deux fois plus vite.

Dès ton arrivée, tu t'es inscrite aux Beaux-Arts de Paris.

Oui, en lithographie, sérigraphie, photogravure. A ce moment là, j'étais peintre mais mon objectif en France, n'était pas de faire de la peinture ; je voulais découvrir quelque chose de nouveau.

Jardin secret, installation vidéo, Yun Aiyoung, 2001.



Qu'elle a donc été le déclencheur ?

En fait, je connaissais la vidéo uniquement avec les oeuvres de Nam June Paik. Et puis en 1992, j'ai lu une petite publicité pour des projections vidéo dans le 11^e arrondissement, j'y suis allée et ça a été une révélation. J'ai acheté une caméra et j'ai commencé à travailler avec ce médium. A ce moment là, je ne connaissais personne aux Beaux-Arts qui soit intéressé par la vidéo. J'ai donc débuté seule.

Je faisais le montage manuellement car je n'avais pas d'ordinateur. C'est à dire que je choisissais les images qui m'intéressaient dans ce que j'avais déjà filmé, je les passais sur un moniteur et je les refilmais. Je faisais des cuts de cette façon. J'ai perdu beaucoup de temps. Mais parfois encore je réutilise cette méthode. Depuis 1994, je ne fais que de la vidéo. J'expérimente avec les objets, la lumière...

Tu pratiques aussi de la performance ?

Oui, je joue avec l'image de mon corps. Je cherche à parler de mes sentiments avec les mouvements du corps; c'est mon écriture. Je ne suis pas danseuse mais j'aime la danse. J'ai découvert la performance en même temps que la vidéo. Je préfère être actrice plutôt que spectatrice; c'est vrai pour le sport comme pour la performance artistique. Avec la vidéo, je peux manipuler les couleurs, le rythme mais aussi le son qui pour moi est comme l'âme de l'image. J'enregistre dans la rue et je bricole le son obtenu. En fait, j'aime beaucoup le bricolage.

Tes premières expositions sont venues très vite après ta nouvelle orientation artistique.

En 1994, il y a eu le festival vidéo de Gentilly. L'année suivante j'ai contacté le directeur du festival. Il est passé me voir dans mon atelier et m'a invitée à Gentilly. En 1995, c'est aussi à VIDEOFORMES que j'ai pu montrer mes vidéos. A partir de ce moment, j'ai trouvé à exposer mon travail régulièrement.

Je sais que tu retournes souvent en Corée pour ton travail

C'est vrai, j'y retourne assez souvent mais uniquement pour des expositions; en fait je n'ai pas encore pu y prendre de vacances depuis quatre ans. Ce sont des coréens venus sur Paris qui m'ont contactée. Je leur ai montré mon travail vidéo et ils ont été emballés. Ma plus récente expo a eu lieu au musée national d'art contemporain de Séoul. Je suis allée ensuite exposer au Japon. Depuis, j'ai rencontré d'autres artistes coréens vivant à Paris qui ont démarré la vidéo.



Est-ce que tu irais t'installer dans d'autres pays ?

Oui, cela me plairait. Je garderais un pied à terre à Paris mais je partirais bien aux Etats-Unis ou dans un pays que je ne connais pas... J'aimerais voyager un an ou deux. Par contre, je sais que je ne retournerais pas vivre en Corée. Je ne peux pas me concentrer à Séoul, car je connais trop de monde. Je préfère la solitude.

Est-ce que le fait d'être étrangère est un plus dans ton travail ?

Tout à fait. Je me sens flotter entre deux pays. Je ne suis plus en Corée et pas vraiment en France. Dans mon travail, j'essaie de transmettre ce sentiment avec des personnages qui flottent par exemple sur un arbre, sur l'eau. De me sentir étrangère partout me permet de vivre dans une sorte de temps parallèle. C'est pourquoi je travaille avec le rêve. Quand on me demande si je me sens française ou coréenne je réponds que je suis une extra-terrestre. Quand je suis dans un café par exemple, j'observe les personnes autour de moi, et j'ai l'impression d'entrer dans une réalité virtuelle. Mon corps est là, mais personne ne me connaît. Je prends des notes, je fais des dessins. Même à Séoul, j'aime aller dans des endroits que je ne connais pas pour me retrouver dans cet état de transparence pour les autres. J'observe et j'essaie de comprendre où vont les gens que je croise, à quoi ils pensent. Maintenant je me sens bien partout parce que les nuages sont les mêmes partout.

La solitude me pèse parfois mais elle est plus féconde lorsque je suis en France que lorsque je suis en Corée. Les plantes qui vivent dans le désert sont plus fortes que celle d'un jardin tempéré. C'est un peu pareil pour moi, depuis que j'habite en France je me sens plus forte.

© Propos recueillis par Véronique Sapin, Turbulences vidéo # 44, juillet 2004.

Images et problème d'image

MANIFESTATION 5^e rencontres vidéo européennes de jeunes artistes.

L'ASSOCIATION Imagespassages a organisé, cette semaine, ses 5^e Rencontres vidéo européennes, afin de promouvoir l'art vidéo en particulier et l'art contemporain par la même occasion.

Annie Aguetaz, la directrice de l'Association avait déjà signalé la difficulté à s'imposer en France et surtout à Annecy dans ce créneau assez méconnu encore du grand public.

Une difficulté, assortie à une reconnaissance plus grande à l'étranger qu'en Haute-Savoie,

qui n'a pas rebuté Imagespassages. Plus de cinquante artistes sont venus ou ont présenté leurs œuvres durant ces rencontres, notamment au centre Bonlieu. Parmi ceux-ci, on notera l'idée originale du vidéoclub des Ollières « qui part en tournée à la manière d'un spectacle forain et qui montre la vidéo d'artiste comme à travers la lucarne d'une lanterne magique... »

Emotion interactive

En vedette, l'artiste coréenne Yun Aiyoun présente son instal-

lation vidéo au Musée-château jusqu'à fin mai. Après des études d'art à l'Université de Ehwa et à l'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Paris, cet enfant prodige de l'art vidéo explique son travail: « *Je trace une sorte de chemin à suivre, une notion de la vie dans le chemin de vie que nous devons tous emprunter dans le temps. On ne sait pas ce qui se passera sur ce chemin, mais il y a une seule certitude, l'aboutissement. L'exposition est interactive et permet un échange entre ce que je présente et le visiteur.* » Quant à savoir si cela va réduire l'écart entre l'art vidéo et le grand public, c'est un autre problème.

**ANNECY (74)
MUSÉE CHÂTEAU**

Place du Château - 04.50.51.84.69 -
renseignements 04.50.51.84.69 -
imagespassages@wanadoo.fr

02/05 - 31/05 : Installation vidéo. images-
passages avec le soutien des Musées
d'Annecy présente : «Intersection», de
Yun Aiyong, installation vidéo sur trois
vidéoprojecteur proposé dans le cadre
des rencontres vidéo européennes.
Vernissage en présence de l'artiste le
mercredi 2 mai à 19h au Musée-Château.

아르코 2000에 참가한 윤애영

스페인의 현대미술 국제 아트 페어 '아르코(ARCO) 2000' 에 윤애영 씨의 비디오 영상설치 <교차(Intersection)>가 초대되었다. 올해로 19번째인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9일부터 보름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루앙 카를로스 전시장에서 개최됐으며, 총 28개국 2백58개 갤러리가 참가했다. 현재 파리의 레 피이드 칼베르 화랑의 전속작가로 활동중인 윤씨는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서 초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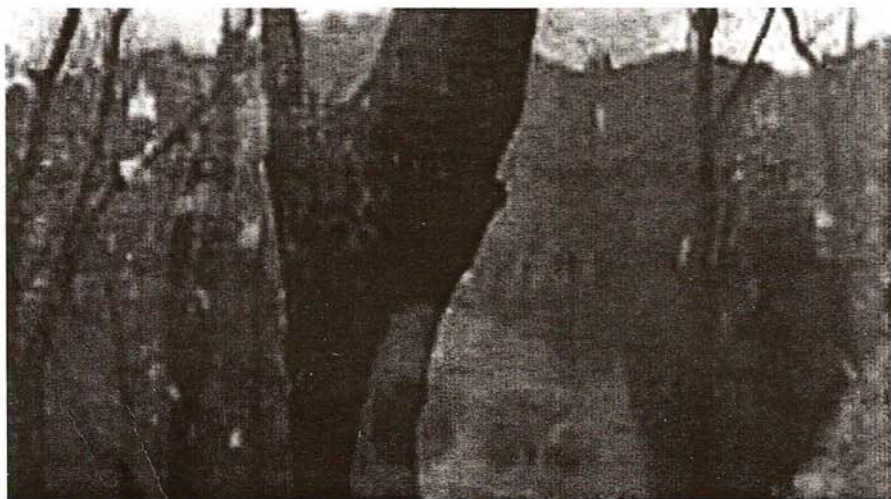
윤애영 <교차> 아르코 2000 출품

Aiyoung Yun au Musée-Château :
Sensibilité à fleur de peau pour deux
installations dans la magnifique salle
des colonnes. *Intersection* de Aiyoung

Yun nous introduit dans un espace
intime où la mélancolie est le senti-
ment dominant. La projection princi-
pale est un assemblage de vues très
diverses qui représentent une même
impression de désolation, d'étouffe-
ment, de doute. Des paysages vides,
quelques plantes vertes, un individu
nageant sous l'eau. La séquence com-
mence par un travelling au milieu
d'une rangée d'arbres ; le visiteur
entre dans l'espace d'exposition en
reproduisant un travelling similaire
entre les colonnes de la salle du même
nom. La répétition est troublante car
elle permet au spectateur de ressentir
plus profondément l'impact de cette
œuvre déroutante et subtilement
dérangeante de par le léger malaise
qu'elle peut provoquer.

Face à *Intersection*, *Trace (la pier-
re)*, installation de petite taille qui met
en scène un corps masculin et nu ten-
tant d'avancer vers on ne sait quel
but. L'image est projetée sur un
rocher disposé au sol. Les irrégulari-
tés de la surface du caillou créent
vaguement une illusion de relief, mais
la matière minérale renforce surtout
l'aspect vain de l'entreprise de ce
petit personnage.

© Thomas Zoritchak,
mai 2001,
Turbulences vidéo # 33,
Octobre 2001.



Page de gauche et droite: *Intersection*, (détails) installation vidéo, Aiyoung Yun. 2001.

NEWS vidéo

Jardin secr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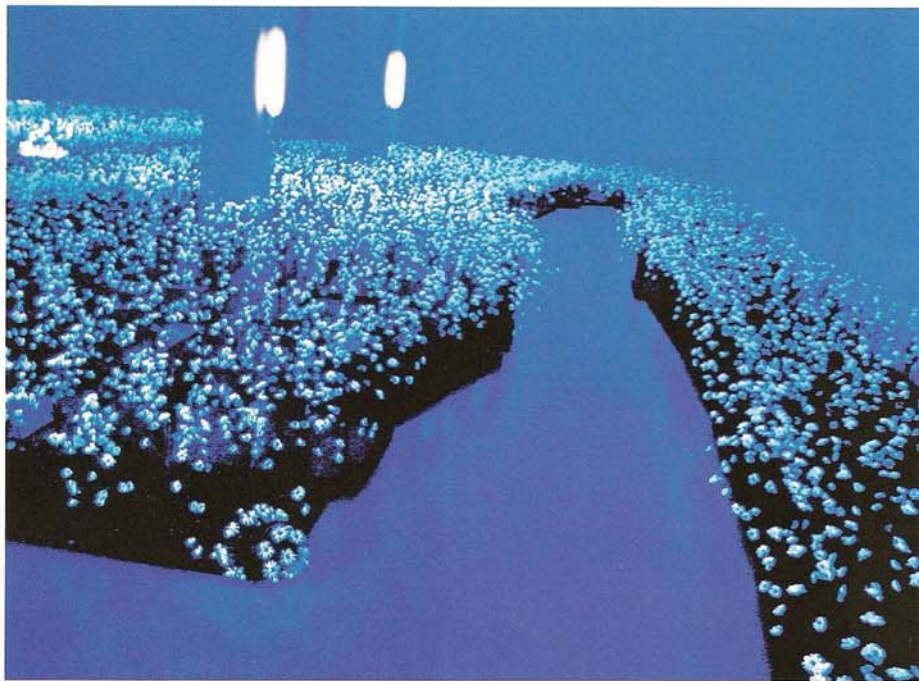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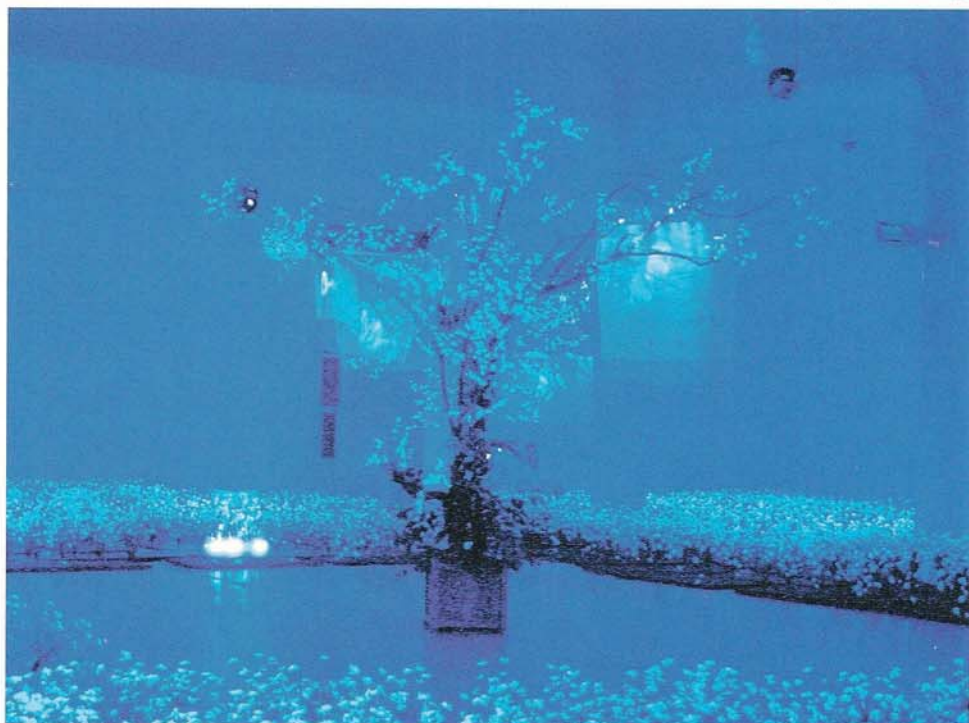
de YUN Aiyoung

Installation vidéo et son constituant le point de rencontre entre le spectateur, l'oeuvre et l'espace d'exposition.

Le spectateur pénètre une salle sombre au centre de laquelle sont placées des arbres artificiels en plastique de 2,5 mètres de haut. Ces arbres ne sont pas couverts de feuilles mais de fleurs artificielles blanches. Ils sont éclairés par des lumières noires, placées au sein même des arbres sous formes d'ampoules et par des néons accrochés au plafond de la salle. Sur arbres sont placés des voiles (environ 50 x 50 cm), qui sont accrochés à une branche, où se projette l'image vidéo d'un homme en position fœtale, recroquevillé.

Le son émis évoque à la fois le bruissement des arbres dans le vent et le ruissellement de l'eau. Cette installation est une confrontation de l'espace conscient, symbolisé par l'arbre, et de l'espace inconscient, symbolisé par l'eau.

Le spectateur pénètre dans une salle sombre dont le sol est parsemé de fleurs blanches. Parmi les fleurs se dessinent des chemins au détour desquels le spectateur découvre des images. Sur différents objets, placés entre les fleurs, sont projetées des représentations de rêve. Des rêves de l'artiste □



Yun Aiyoung, artiste coréenne résidant à Paris depuis plus de dix ans, a participé à de nombreuses foires, expositions et biennales internationales comme la FIAC, l'ARCO, la Biennale de Kwangju, en Corée, le Festival International de Vidéo and Technologie de Clermont-Ferrand, ainsi que des expositions collectives telles que Paris en 3 D au Musée de Carnavalet à Paris. Elle a récemment réalisé cinq expositions à Madrid, Londres, et enfin à Paris à la Galerie des Filles du Calvaire.



cinéma, t.v., vidéo
par jean-paul fargier

Cho et Yun

Etabli à Paris depuis trois ans, ce couple d'artistes coréens a vite su se faire une place dans les manifestations d'art vidéo, grâce à des installations subtiles, des performances osées, des sculptures simplement évidentes. On les a remarqués à Gentilly, applaudis à Clermont-Ferrand, loués à Bourges. Ils viennent de gagner un prix leur permettant d'exposer à Séoul. En janvier, à Paris, la galerie Bernanos accueillait leur nouvel environnement : *Traces du temps*. Une vraie voiture immobilisée dans la neige (bel effet de plâtre), habitée par deux ou trois mini vidéo-projecteurs tapissant le tableau de bord, les sièges, de réminiscences indéchiffrables. Une vraie douche, et sur ce rideau liquide, un homme qui crie. Pourquoi ? La réponse est-elle dans la voiture ? Cho et Yun manient des énigmes. Dont il faut chercher le secret dans les oppositions plastiques qu'ils mettent en place avec raffinement. Flux/gel, lumière/obscurité, cri/chuchotement...

Pierre Philosophale

Jean-Paul Farg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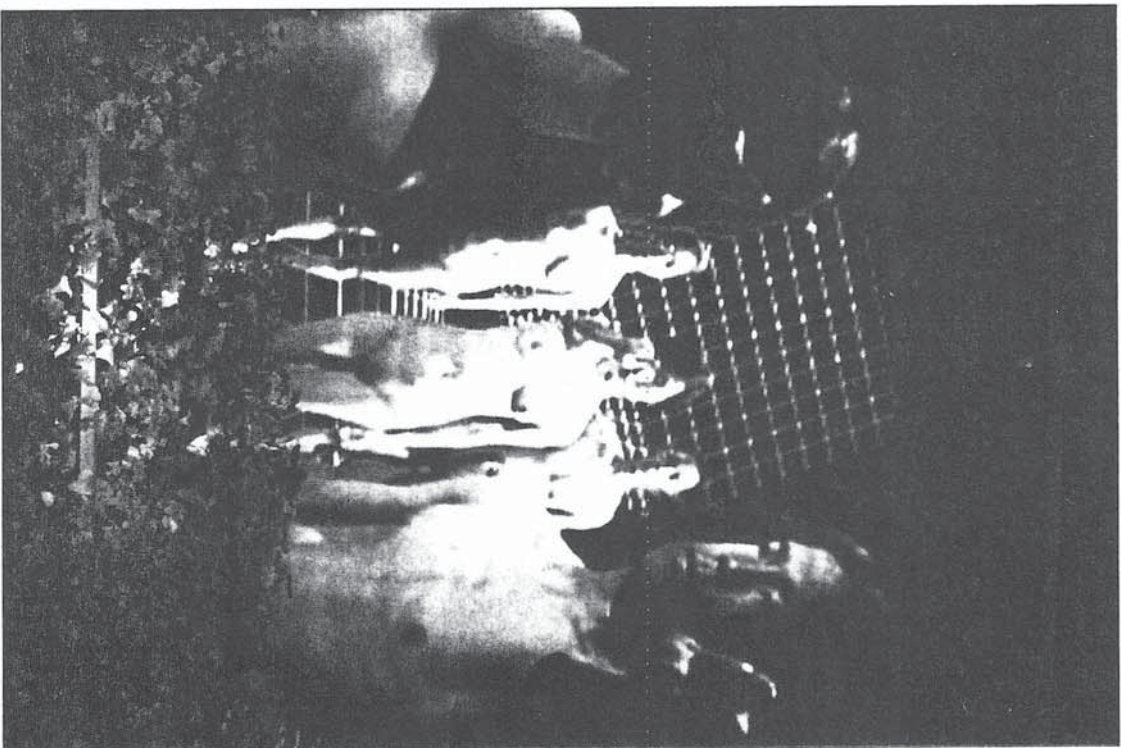
Cho et Yun, on les a vus, nus, enfermés dans une cage de verre cherchant à se joindre sans y arriver. Elle, nue, seule, plutôt, et lui dehors, de l'autre côté, la traquant avec sa caméra, la répandant en morceaux dans les petites vitrines nommées télé, placées tout autour. Ils citaient Camus après leur performance. Humanisme gagnan, avons nous pensé, mais bon, ils ont des excuses, ils viennent de loin. Exotisme bon enfant, sympathique. La Cortè n'a pas encore fini de digérer Sartre et l'existentialisme. Effort méritoire. Arrivé ? Comme une importation exportée. Sincérité touchante. Et puis c'est quand même très beau, non ? Matière translucide, ombres vertes, peau à fleur de pois, sueur perlante, yeux clos, seins offerts, cuisses enroulées, fesses bombées, dos saillant, nuque engageante. Ah ça alors, ils ont réussi un beau nu ! Un nu insidieux, un nu de contrebande. Le sujet le plus difficile en peinture, donc le plus obstinément tenté au long des siècles passés. Le plus fermement refoulé par le nôtre, par l'art dit moderne, puis contemporain, toutes tendances confondues, conceptuel en tête. Auto-réflexif en diable, même le body art ne s'occupait pas du Nu.

Imbus de notre modernisme déconstructeur, nous avons bien failli les rater, Cho et Yun, à Clermont-Ferrand (Vidéo formes 1994), rater leur déploiement tranquille dans le paradis perdu des formes figuratives. Ils ont bien fait d'insister. De remettre un coup d'entfer humaniste par ci par là (à Gentilly, en 95 ; à Paris, Galerie Georges Bernanos, en 96) pour masser dans quel eden ils se mouvaient tranquille-

ment. Ne le répétez pas, chut ! on pourrait leur couper leurs bourses, leurs subventions, rayer leur notoriété naissante. Samsung les sponsorise, comme Nam June Paik ! Ils étaient invités à Kwang Ju pour la Deuxième Biennale, comme Nam June Paik ! Ils jouent dans la cour des grands... Chut ! Nam June Paik a donc vu leur travail ? Oui. Et qu'est-ce qu'il en a pensé ? Du bien, du bien, mais chut !

Les voici de retour, plus forts que jamais, ne se cachant plus beaucoup donc, à Paris, Galerie des Filles du Calvaire. Putains de Saintes Femmes ! Avec un nom pareil pour exposer, un artiste digne de ce nom ne peut que rentrer en transes au souvenir de toutes ces crucifixions que ce label convoque.

Quatre installations, au fond d'une cour, sous une verrière voilée. On est accueilli par un groupe de danseurs, nus évidemment, et en relief (lunettes obligatoires, prothèse magique, oculaire supplémentaire infailible qui vous projette dans le tableau, vous pose en sujet de tous les mouvements, nommons les caresses à venir. Vous n'aimez pas la palpation grossière ? C'est de l'imaginaire ! Symboliquement, vous pensez à quoi ? Dante, l'Enfer, mais quel cercle ? Le premier, peut-être. Multiplier Adam et Ève par dix, par cent, c'est plus le paradis, c'est l'enfer, exactement. Pas grave, il est virtuel. Pire, vous voulez dire. Ou le meilleur ? Mwouais... Certes pour le savoir, il fallait essayer. Tripatouiller dans les tripes de la technologie pour y chercher en vain de la figuration nouvelle : un coup de "zéro un" jamais n'abolira le hasard d'un génie capotant la beauté d'un corps d'un trait de plume, d'un coup de crayon, d'un clic clac



Time cube, Cho & Yun - Installation vidéo-3D, 1998

Défillement de l'histoire de l'humanité comme un film hyper-court, condensé. De l'ivresse du silicium inventant le feu au délire du germanium imprimant des milliards de zéro-un, il y a quoi ? Quelques poignées de siècle ! Autant dire rien, une paille. Lascaux peut recommencer. Electroniquement. Retour au rupestre. L'art des Cyclades est revenu. Et aussi l'art de Pan-p'o, l'art de Nara, l'art de Baedecq et de Silla. Formule lapidaire, mon beau souci.

Montage, tiens ça aussi, souci beau, bien sûr Godard, sautons quelques siècles. Et les Robots de Paik, ultimes avatars de la Figure, mais allégés, réduits à leur plus simple expression. Tout est là, dans cette pierre. Philosophale en quelque sorte. Transmutation réussie de l'art de reproduire l'homme et de le soustraire à la mort.

S'il n'y avait pas cette petite pierre dans le grand jardin électronique de Cho et Yun, le parcours qu'ils nous forcent à suivre, de grande installation virtuelle en vaste fresque immatérielle, aurait beau briller par ses velléités de résistance à la dissolution, il finirait par se perdre dans les eaux des plâtitudes ambiantes. Art et technologie, écologie et politique, morale et sciences, bla bla bla... Mais notre marche, conduite par ces deux alchimistes, s'achève face à un trou dans la matière, donc ne s'y achève pas, s'y poursuit, entraîne la perçue à creuser plus avant. Le degré zéro de l'image, répercutée par l'une d'elles (une seule suffit, comme dans une voûte il suffit d'une seule pierre pour en être la clé) sauve toute image environnante du néant de la signification forcée, convenue. Elle est retrouvée ! Quoi ? L'icône inaltérable. Pierre de lune, pierre d'angle, pierre de feu, de Paradis, pierre atomique, qu'aucun enfer jamais ne pourra abolir. Limon premier.

© Jean-Paul Fargier,
Turbulences [vidéo / art actuel] # 22
janvier 1999

modélage de l'image-temps. Et ils parviennent ainsi à produire des figures vraiment belles, ciselées d'éternité moderne, fragiles mais tenaces, émouvantes : résistant contre leur élimination programmée, nous appelant à les tenir en vie, criant au secours.

Spectateur, tu sais maintenant ce qu'il te reste à faire. Avancer plus lo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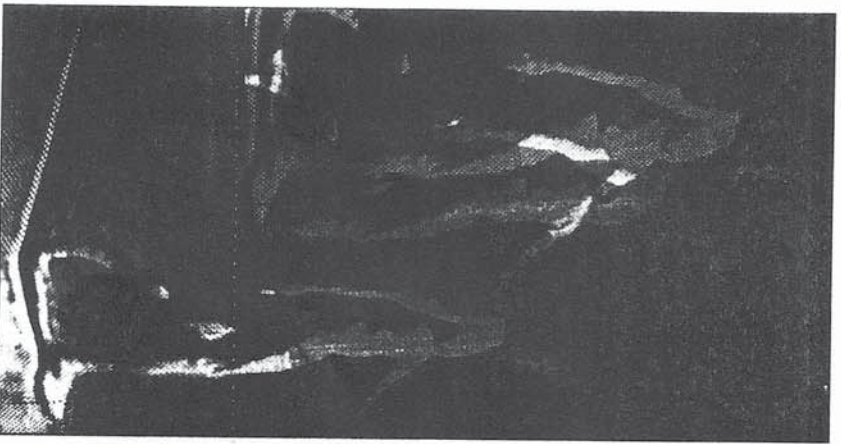
Plus loin, c'est à côté. C'est toute la galerie, c'est le fond comme écran géant, et les deux murs avec. Un U monumental parcourent par des nus monumentaux. Sans fin, marchant, se doublant, se foulant, se superposant à l'infini, dans le cercle brisé (le U n'est pas un O) de la répétition d'un même acte fondamental, marcher, mettre un pied devant l'autre. Origine du cinéma : la chronophotographie. Cho et Yun ressuscitent l'aventure de Marey, de Muybridge, mais sans nostalgie des commencements, en vue plutôt de projeter dans le présent l'avenir d'une cathédrale d'images. D'une image capable de s'ériger à la hauteur des cathédrales. Nam June Paik déjà avec sa tour de 1.003 monticuteurs (The more, the better) avait réussi à donner cette impression. Eux, les disciples du grand pionnier, ils posent la première pierre - immense - d'un nouveau château de formes capable d'accueillir l'élan spirituel (rationnel si vous voulez) de l'homme tourné vers l'immensité du monde, ébloui d'être là, et de pouvoir se penser, dialectiquement, plus grand que le cosmos, par sa capacité même de représentation du Tout (et de tout, à commencer par lui-même) dans la plus infime graine de visible calculé comme double.

Graine infime, la dernière installation, nous plonge, au terme du parcours, au cœur du cœur de la figure et de l'être. Une pierre, grosse comme un poing, posée à même le sol, reçoit la projection d'une silhouette en marche... La projection déborde de la pierre légèrement, coupe l'image, si bien que le bonhomme, nu, semble escalader une montagne, l'aborder par une face, la dévaler par une autre. Nous y sommes. Comme au commencement. Le vrai. Quand nous nous appelions Adam, roi des singes. Et tous le sommes toujours restés.

la pénétration dans le temple des mystères. Voici trois sites à déchiffrer.

En haut de l'escalier - toute exposition vidéo a son parcours, sa scénographie fléchée, il faut s'y conformer sinon l'on rate tout - une allée de velums translucides, fines gazes suspendues formant une série de écrans où s'impriment des corps en train de marcher vers vous, tentant de traverser les voiles de la représentation, pris au piège de la presque immatérialité du support voué à leur fragile apparition. Mais ce n'est pas tout : un rayon laser, rouge, traverse violemment, donc sans peine, lui, les gazes enduies d'incertaines figures. Oeil de Méduse, il vous interdit de fixer ce qui se dévoile dans l'ombre, dans les fumeroles qu'une machine à fumée de théâtre répand entre les gazes. Hou la la ! ça rigole pas, en enfer ! Toujours l'humanisme sartrien ? Oui, on dirait, ou quelque chose du même tabac métaphysique. Sur le plan de l'installation, que j'ai trouvé à l'entrée de la galerie, les artistes ont tenu à préciser : ligne laser, ça veut dire notre destination (destin, quoi !) ; image : visage et corps humain résistant contre la limite spatio-temporelle dans sa vie. Et s'il s'agissait d'une autre résistance ? Celle de l'artiste contre la mise au rencart de la figuration humaine. Contre la limite spatio-temporelle de son art. Contre les interdits bornés.

Cho et Yun se débattent dans ce cercle d'interdits et brisent pas mal de tabous. Sous couvert de peindre le destin des hommes, il restaure le corps et le visage dans l'art de représenter, en conquérant toutes sortes de supports spatio-temporels. Étendue dans la peinture après Picasso (peut-être, c'est pas sûr, y a qu'à voir de Stael, Bacon, Martial Raysse), la figuration, au sens profond du terme, renait dans les arts visuels (sans que le Cinema y ait jamais renoncé, notons-le, sinon couic ! pour lui, on peut pas dire que le cinéma expérimental soit vraiment du cinéma, ce qui le sauve c'est d'être de l'art vidéo par défaut) en s'emparant de tous les supports nouveaux : Cho et Yun se placent d'emblée dans l'au delà de la fixité picturale, ils explorent à tout va les possibilités du



Aube Cho & Yun - Installation vidéo & son

merci kodak, d'un "silence on tourne". Mais le relief, au moins, a cet avantage - laborieux, déprimant - d'une évidence palpable : dupliquer les corps ne suffit pas ; il faut aussi les mettre en scène.

Allons voir plus loin, là haut, sous la verrière.

Au premier étage, tout change. Le message s'inverse. La dramaturgie est patente. La première installation s'offrait donc comme une anti-chambre, une pro-pédeutique, un rite d'initiation nécessaire à

World Artis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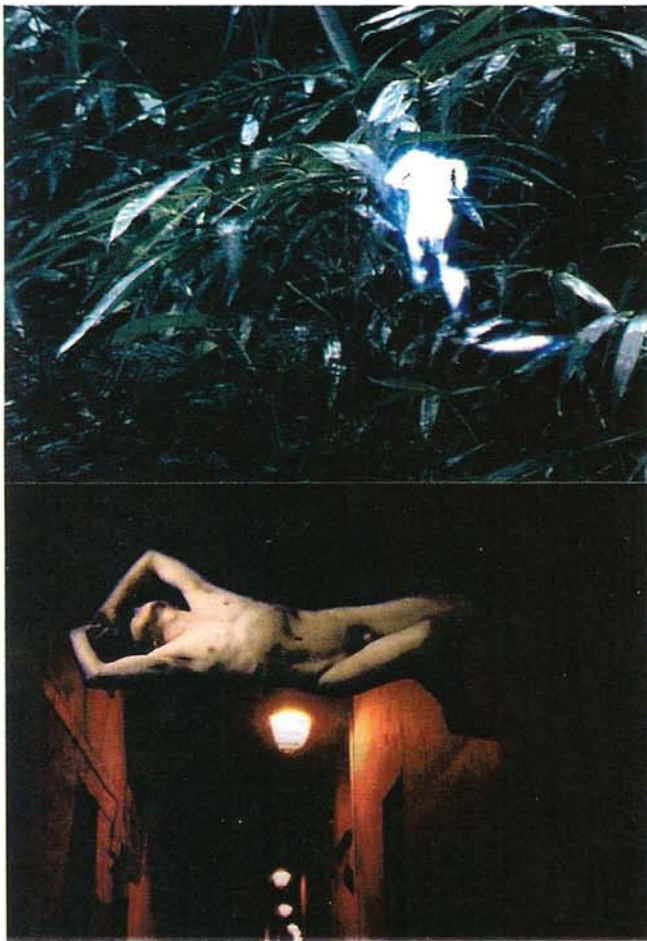
존재와 근원을 향한 여정

- 윤애영 (Yun Aiyoung)

글/ 이지연(파리 통신원)

11월 중순, 가을의 끝이라고 그렇다고 겨울의 시작이라고도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계절과 계절의 중간 지점에서 작가 윤애영을 만났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 생성과 소멸, 시작과 끝, 혹은 그 세계의 영원한 중간지대, 이러한 시간의 변함없는 대순환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작업을 통해 끊임 없이 시도하는 하나의 영혼을 이 계절의 문턱에서 만났으니 말이다.

현재 윤애영은 프랑스의 레 피 뒤 칼베르갤러리(Galerie les filles du calvaire) 전속작가로 활동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카르나발레미술관(Musee Carnavalet)에서 열리고 있는 삼차원의 파리(Paris en 3D)전에 초대되어 「심연」이라는 제목의 비디오 작업을 전시하고 있다. 한때 조&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두 사람의 존재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식의 표현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테마로 단독 제작한 「어비스(Abysses, 심연)」는 그 동안 묻혀있던 영혼이란 존재의 회귀를 통해 육신도 영혼도 아닌, 그간의 존재의 탐구에서 때로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영원한 합일을 꿈꾸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2000년 마드리드의 국제아트페어에 설치했던 「교차(Intersection)」와 1998년 현대갤러리에 의해 발표된 「잃어버린 시간(Le temps perdu)」의 단독 작업과 비디오와 사운드 설치 작품이었던 「맨드레이크의 노래(Chanson de Mandrake)」, 입체비디오 영상 사운드 설치작 「타임큐브(Time cube)」, 「흔적(Trace)」등 조&윤이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들이 있다.



위 「교차(Intersection)」 비디오 설치 2000
아래 「심연(Abysses)」 비디오 설치 2000

프랑스에서 작업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 그리고 현재의 비디오 작업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건가?

파리에서 작업을 한 지 10년이 되었고, 초기에는 다른 유학생들처럼 학교를 다녔다. 파리에 폴 드 보자르를 94년도에 졸업했고, 파리 8대학에서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비디오 작업은 보자르 졸업 후 영국에 잠시 있을 때 우연한 계기를 통해 시작하게 되었다. 이전에 그림을 그리면서도 뭔가 허전하고 약간의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그건 아마도 내 기질이 지금하는 작업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작업실을 봐서 알겠지만 그림을 한다는 사람의 작업실이 아니라 무슨 전파사에 온 것 같지 않은가? 뭔가 내 작업을 볼 요량으로 오셨던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나는 이런 게 좋다. 오죽했으면 한국에서 처음 이곳으로 유학을 올적에 다른 건 몰라도 공구란 공구는 모두 챙겨왔겠는가. 비디오 작업 초에는 환경 설치와 사진, 포토 프리뷰와 함께 퍼포먼스를 많이했고, 그리고 조&윤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작업을 했었다. 지금처럼 혼자 단독으로 떨어져나와 작업을 한 지는 얼마 안되었다.

자신에게 있어 테크놀러지를 이용한 작업은 어떤 의미가 있나?

원래 오브제나 기구들을 이용한 작업들을 선호해왔다. 아까도 말했지만 평면 작업을 하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고, 작업 방식을 전향하면서 그 부분들이 채워졌다. 지금 현재로서는 비디오라는 매체에 만족하는데 퍼포먼스를 그만둔 것도 영상 자체가 주는 매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비디오 작업이라는 건 필요 불가결하게 시간성을 간과할 수 있는 건데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관심들이 이 방법과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데도 선택 동기가 있을 수 있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분들은 모두 잘 알겠지만 비디오는 촬영부터 시작해서 편집, 마무리, 그리고 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작품에 포함된다. 물론 관람자들이 그 작업을 감상하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고 그림과는 반대로 전시 후 완벽하게 재현, 보존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단점이라기보다는 비디오 작업의 특성이라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본다. 그렇기때문에 전시했던 작업을 철수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약간의 허무한 감정에서 다시금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영역 안으로 결집시킬 수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은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가? 흘러가는 구름처럼 혹은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근원을 향해 끊임없는 여정을 멈추지 않고 반복해 움직이는 물처럼 모든 것들은 생성과 소멸의 순환 속에 놓여있다. 만지는 제스처가 있되 만질 수 없는 것, 보여지되 보여질 수 없는 것, 한마디로 레이저(비디오 아트)는 시간의 길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비디오 작가로만 한정짓지는 않는다. 테크놀러지를 이용한 비디오 작업은 내가 몸담고 있는 시대의 특성과 함께 선택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작업을 하면서 나는 즐겁고 재료로서의 비디오가 내게 보여준 가능성은 언제나 나를 매료시킨다. 시대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미술도 변화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지나 앞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방식의 테크놀러지가 대두, 발전하는가에 따라 내 작업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될 것이다. 단지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붙는다면 내가 취하는 그 방법이 내게 자연스럽고 또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와 작업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감상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개인적 의견이 있다면?

작업이라는 것은 작가의 마지막 손길을 거친 후에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작업에 임할 때 내가 가진 생각들이 있고 분명히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 순간을 떠나 작품들이 관람자들 앞에 섰을 때, 감상자가 느끼는 그것이 바로 작업, 작품이며 진정한 의식의 표현이며 그것을 의도하는 것이다. 나는 관객에게 모든 것을 다 던져주고 싶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열렸던 마드리드의 국제아트페어 아르코(ARCO)에 출품했던 「교차」 작업을 보면 여러 개의 화면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관객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설치되었다. 간혹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내 작업이 홀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작업으로 오해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내 작업은 공간작업이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각하고, 결국 작품과 관객, 전 시공간 자체가 하나가 되어 전시를 통해 제시한 시간 속으로의 여행에 동참하는... 물론 그들이 느끼는 것은 내 작업이라는 하나의 오브제를 통해 유추해내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들이겠지만 그건 우리 모두가 다르듯이 당연한 것이다. 예술가들의 역할이란 건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표적은 있지만 그 표적은 관객 스스로가 짚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작가와 작품, 그리고 관객의 역할이며 목적이고 그들 상호간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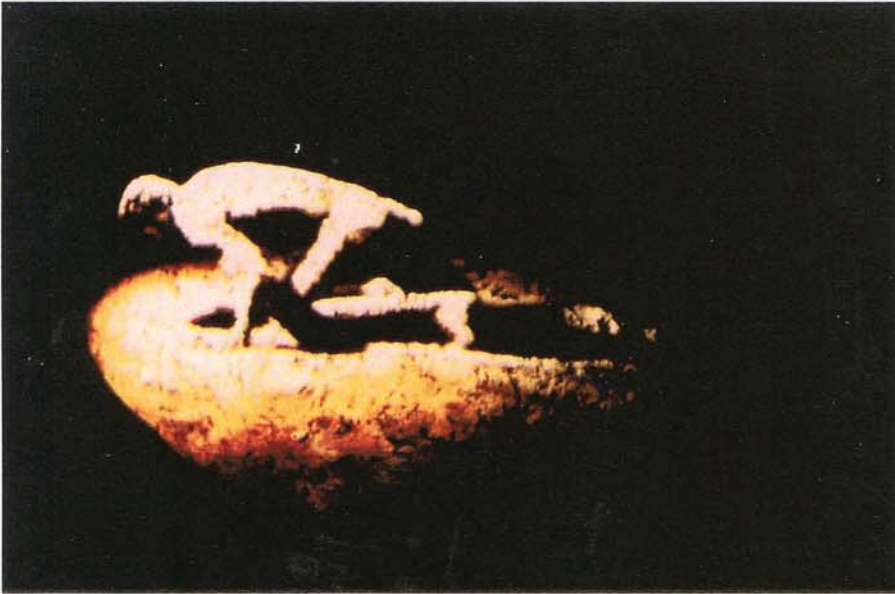
작업에서 보여지는 시간성에 결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나?

이전에는 근원에 대한 것을 균중의 모습에서 그리고 내가 언제나 벗어나고 싶었던 시간 안에서, 어떤 한계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 표현에 앞서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던졌었다. 그리고 그것은 균중들 안에서 낯선 타자에서 심지어는 내가 태어난 모국에서조차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이라는 감정을 낳았고, 이것은 가상현실에 대한 일종의 관심을 불러오게 했다.

그것이 관심이든 혹은 확신이든 어쨌거나 만화같은 영화같은 세계 속에 혼자 들어가 있는 듯한 이방인으로서의 동떨어진 느낌을 작업으로 옮겼다.



「잃어버린 시간(Le temps perdu)」 비디오 설치 1998



『흔적(Trace)』 비디오 설치 1999



나는 이러한 시간의 흔적들이 조각이 되어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떠돌고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시각에서 본 것이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형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는 시간을 한계가 아닌 무한대로 펼쳐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약간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안에 어딘가 평행선 상에 존재하고 있을 나의 또다른 모습을 찾고싶은 것이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일상에 대한 내 주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작업의 철학적 근원에 대한 사상가나 사조들이 있다면?

한때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구루였던 오쇼 라즈니쉬의 신지학의 아버지인 크리슈나무르티의 정신세계에 빠져있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신비주의자들이나 명상가들의 가르침을 채워주었고 어쩌면 작업에 등장하는 끊임없이 어디론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인간 형상들에 대한 뿌리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삶과 죽음의 연장선 상에서 지칠 줄 모르며 걷고 또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작가라면 누구든지 마치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이 세상에 내놓는 자신의 모든 작업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타인에 의해 어떤 평가를 받든지 스스로에게 진실되었다면 말이다. 그래도 굳이 예를 들자면 아마도 나는 조와 함께 작업했던 흔적을 말해야 할 것 같다. 작품의 완성도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치더라도 그 안에는 내가 바라보기만해도 좋았던 돌이 오브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나는 여행을 할 때마다 돌아오는 길에 무언가를 집어오는 습관이 있는데 그 돌도 언젠가 여행지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웬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돌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1998년에 제작되었던 '조&윤'의 이 비디오 설치작업은 프랑스의 평론가 장 폴 파르지에에 의해 차가운 테크놀러지와 고대 동굴 예술을 연상케하는 일중

의 인간적 따스함을 절묘하고 완벽하게 일치시켰다는 극찬을 받은바 있다)

비디오 작업 안에 소리가 주는 의미는?

영상 작업에 있어서 소리는 작품에 하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 작업과 함께 하는 소리들은 언제나 직접 만든다. 내가 듣고싶고 내가 원하는 소리들을(주로 사람이 내는 소리나 자연에서 파운 소리들을) 스튜디오 녹음과 컴퓨터 작업을 거쳐 제작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브제의 공간을 이용한 작업들을 조금 더 하고싶고 내년에 바르셀로나 폰나시옹메트로놈(Fondation M tronom)과 알라칸데의 미술관(Musee Universit d'alacant)에서 초대 개인전이 있을 예정이다. m

작가 윤애영은 이화여자 대학교 서양화과와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파리 에콜 드 보자르 E.N.S.B.A) 및 파리 제8대학 조형 예술학과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동안 파리국제아트페어 피악(FIAC), 제2회 광주비엔날레, 한·일현대미술전, 제10회 인터내셔널비디오&테크놀러지아트페스티벌 등 국제전에 참가했으며 파리, 마드리드, 런던 등에서 5회의 개인전을 가진바 있다. 현재 당스의 레 피 뒤 갈레르갈러리(Galerie les filles du calvaire) 전속 작가로 활동 중에 있다.

글쓴이 이지연은 성신여자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 제8대학에서 조형 예술을 전공하고 있다.

Cho et Yun

La chanson de Mandraïke

Trace

installations vidéo

Cho et Yun

par Jean-Paul Fargier

1. Leur duo homme / femme, plusieurs fois mis en jeu et en scène, introduit des résonances symboliques riches de sens et d'émotion. Ils savent jouer de leur présence physique pour casser la froideur du médium électronique et ils provoquent par-là, chez les spectateurs de leurs œuvres, une projection d'identité qui les met en question au moment même où ils voudraient, peut-être, se retirer, se sentir irresponsables.

2. Les valeurs de lumière et d'ombre, dont ils habillent les espaces qu'ils investissent, apportent une complexité au spectacle de leurs actions. Verticales, horizontales, nappées, striées, ces traces luisantes, ces masses obscures et teintes (le vert d'Un bel homme) renforcent la beauté plastique de leurs œuvres, les rendent plus désirables.

3. Les symboles archaïques et les signes modernes, mis en réseau, dans tout ce qu'ils montrent et font entendre, tracent un ensemble subtil de sens. Le temps et l'espace sont donnés à voir à la fois dans leur immuable densité et dans une toute moderne distance infranchissable. Le corps et l'esprit, la société et l'individu, le souffle et l'inertie, le sexe fort et le sexe faible (mais qui est l'un ? qui est l'autre ?), la Technique et la Pensée, changent leur puissance dans une danse sans fin ambiguë et transparente.

© Jean-Paul Fargier,
Turbulences vidéo # 27
avril 2000

Yongshin Cho et Aiyoung Yun sont nés en Corée. Ils vivent et travaillent à Paris. Diplômés des Beaux-Arts de Séoul, ils ont réalisé de nombreuses installations vidéo depuis 1993. Ils ont obtenu la Bourse de la Fondation Samsung en 1997 et la XIIIème Bourse d'art monumental à Ivry sur Seine en 1999.

La chanson de Mandraïke et Trace, du 14 mars au 1er avril à la galerie du Trésor



La chanson de Mandraïke



Trace

윤애영(비디오 설치작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국제 아트 페어 (아르코 2000)에 참가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 소재 레 피이 뒤 칼베르(les filles du Calvaire) 화랑의 전속 작가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다. 출품작은 〈교차 (Intersection)〉.

비디오설치작가 조용신부부

‘삼성아틀리에’ 첫 입주자 선정

삼성문화재단은 해외에서 활약하는 유망한 한국출신의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 국제예술가촌(Cite)에 ‘삼성 아틀리에’를 만들고 첫 입주자로 재발 작가 조용신, 윤애영 부부(사진)를 선정했다.

삼성 아틀리에에는 작가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경제형편이 어려운 예술가에게 안정된 작품활동 공간을 제공,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64년간 장기 임대조건으로 이 예술가촌을 만들었다.

멀티미디어와 비디오 설치작가인 이들 부부는 10여년 동안 프랑스에 거주하며 한·불간 새로운 예술분야에서 의욕적인 활동을 벌여왔는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작업의 협력성과 작품에 대한 성실성을 보여줘 첫 입주자로 선정됐다. 조용신씨(38)는 홍익대 서양화과와 파리8대학 조형예술학과, 윤애영씨(33)는 이화여대 서양화과와 파리8대학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했다. 삼성 아틀리에 입주 예정일은 2월3일. 【이민주기자】

**在佛화가 조용신-윤애영씨 부부
파리국제예술가촌 입주작가 선정**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화가 조용신(38) 윤애영씨(33)부부가 파리국제예술가촌의 입주작가로 선정됐다.

파리시가 운영하는 이 예술가촌은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에게 작업장과 숙소를 제공, 예술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곳. 이들이 사용할 아틀리에는 삼성문화재단이 올해부터 64년간 파리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한국 출신 미술가들에게 제공하는



것. 조용신씨는 홍익대와 파리 8대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윤애영씨는 이화여대 출신이다.

..... *Space Interview*

Multimedia Artist Cho & Yun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조 & 윤

Interviewed by
Yoo Jae-Kil
.....
Art Critic

Since the end of 1994 Cho Yong-Shin and Yun Ai-Young have worked together under a new name, Cho & Yun. At the 9th Gently Video Festival in 1994, with their epoch-making video installation work projected on multi-screen, they began to draw attention from France's art community. They were invited to the 10th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Video Festival in 1995 and participated in the Video Art Technology Installations with Paik Nam-June, Bill Viola and Pierric Sorin. Their production of the opening ceremony performance in the festival attracted the attention of Jean-Paul Fargier, a leading video art critic of France, and they had an interview with him. Soon, they were nominated for the '96 Whan-Ki Art Prize. They presented a water screen video installation which transcended two-dimensional video art in the exhibition, in which leading young artists from France and America participated.

Cho & Yun won a Prix de foundation Beaumarchais-Mixte Competition of France in 1994 and also received the Multi Prize from Prix de foundation Beaumarchais-Mixte in 1996.

On April 5th they presented a video performance, 「COMA」, with Maria Faustino, a French modern dancer, and Acquava, an avant-garde musician to commemorate their winning of the Buaumarchais Prize. In November they will present a video performance in the Lisbon National Art Museum.

Since they moved to France, they have actively worked as video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artists in Paris. Their main them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body and nature, and conflicts between people and organized society. Since 1990 they have experimented with video image installation expressing an extreme realism.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one of their early works, expressed the painful death of Cho's father and her loneliness in a foreign country. In the performance they buried themselves in sand late at night in the cold weather of late April.

「Bed」 and 「Resisting human beings are beautiful」, other works, indicate the passive existence of human beings in the overpowering world of mass media and information media. Cho goes into a capsule expressing human beings who passively deal with social conflicts, and she breaks it representing the awakening of passive people. In 「A Story of a Human Being」, a project produced by experts in every field, 15 performers took part, and the leading character was a beggar. The work reflects the reality of Korea meditating on how people feel happy or unhappy, what beggars think when they receive money, and if it is possible for all people to enjoy a fair and happy life.

In 「The Vestige of Time」, the nominated work for the Whan-Ki Prize, an image is projected on a dropping water screen. The three-dimensional visual effect dramatically shows the reality of human beings. What is more interesting is the appearance of a car from the darkness and the two video image of people in the car talking.

As we can see in the titles of their work, Cho & Yun explore the human condition. What makes their work more attractive is that they do not use two-dimensional means, but use body, action and video image.

They say that they wish to present video performances in Korea if they are given an opportunity. They think that their role is to recognize and digest a problem, and to express it in forms so as to awake spectators and let them share in the problem.

In this interview with critic Yoo Jae-Kil, Cho & Yun show that their art philosophy is the recovery of humanity. As an interview with Korean artists working in foreign nations, this article gives young artists an opportunity to learn from the experiences of Cho & Yun who are leaders in integrating various fields. (Translated by Lee Soo-Ok)



.....
Above:
Cho Yong-Shin
(right) &
Yun Ai-Young
(left)

.....
Below:
Yoo Jae-Kil





Left: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Installation Video,
1994

유 재길 : 파리에 활동하고 있는 부부작가 조용신, 윤애영氏は 이번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 지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은 비디오 설치미술과 퍼포먼스 등 신체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으로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디오 영상 제작과 퍼포먼스는 두 분이 같이 제작하는 공동작업으로, 다양한 매체와 행위를 결합시키는 독특한 표현방법으로 인간의 삶을 호소력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은 8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는 평면회화 위주로 작업을 하셨는데, 파리에 가서 작업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동기와 초기 작업의 성격을 들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조용신 : 학교를 졸업하던 85년 그 당시의 상황, 여전히 비정당한 것들이 악순환되었던 사회 속

에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인 참여로 풀고 싶었습니다. 캔버스에 인체를 주로 그리다가 파리에 간 것은 졸업하고 1년 후의 일이지요.

윤애영 : 학교 때는 오브제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실험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진행할 수록 웬지모를 답답함과 구속감들이 느껴지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유롭게 찾고 눈도 넓히고 다른 작가들도 만날겸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유 : 파리에 가서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조 : 우선 미학적 가치관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 곳 작가들의 우연적 의도에 표현되는 작업을 접하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라앉은 듯한, 갈색톤 내지 분명한 색조가 없는 유럽 특유의 구태의연함에서 활기를 볼 수 없었

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회화에서의 시각적인 효과가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자극을 원하던 저에게는 미흡하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유 : 결과적으로 평면회화에 만족을 못하고 새로운 매체, 즉 비디오 영상과 신체를 직접 이용하는 작업으로 전환하게 되셨군요. 윤애영氏의 경우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와 신체를 이용한 작업이 초기에 자신에게 결정적인 영향과 충격을 준 것은 무엇인지요?

윤 : 처음에는 우리가 찾던 것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갈등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우지 않은 새로운 것을 원했습니다. 보자르에서 석판화, 실크스크린을 이용한 공간설치를 시도하던 중 우연치 않게 영상실험 작업을 하는 비디오 그룹 포스터를 보고 찾아가게 되었지요.

거기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 : 90년 초부터 비디오 영상작업을 하시게 되었는데 가장 초기에 만든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르네 위그의 「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의 모색이다. 마치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 그림에서 우리가 더욱 중요시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이야기, 즉 알레고리나 상징, 상상의 세계 등 보이지 않는 세계이다」라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 : 그 작업을 하기 일년 전에 아버지의 임종을 맞았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문제, 프랑스라는 의지에서 활동하는 외로움 등이 한데 겹쳐 힘들었지요. 표면적으로는 안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작품은 그런 제 내면의 모습을 움직이는 액션 그대로 영상으로 투사해 본 것입니다.

유 : 이 작업은 서쪽 도빌이라는 바닷가에 가서 4월 말쯤 촬영했는데, 빛이 없어야 하므로 밤 12시쯤 하였는데, 너무 추워 얼어죽는게 아닌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추위에 바다 모래 속에 파묻히면서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유 : 저도 파리에서 그 작품을 보았습니다. 큰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보여주셨지요. 거기에서 비쳐지는 느낌은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소리, 마치 인간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아주 단순화시킨 듯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화된 것이 아니라 마치 원시인이 걸어가는 듯이 비치더군요. 개성 있는 인간의 얼굴 표정이라기 보다는 몸 전체로 말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공동 작업은 아니었나요?

조 : 그 작품까지는 따로 작업을 했습니다. 공동작업은 95년 3월에 에스파스 종메라는 언더 그라운드 작가들이 파리 인접 지역인 메리 드 몽트 외의 큰 창고에서 기획한 전시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획전에서는 파리에 있는 비디오 협회들이 모여 전시도 하고 필름도 서로 보여주기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당시 저희는 「익스 인 아트」라는 비디오 클럽에 있었는데

이 때 같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공동작업을 하게 되었지요.

유 :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공통점을 갖게 된 것은 「망점」이었습니다. TV의 망점, 신문을 복사할 때 생기는 망점들 같은 것이 사실은 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희 둘은 우연치 않게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작업을 하기 전에 저는 TV를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이용한 실크스크린 작업이나 석판화를 망점을 이용해서 하고 있었는데 조용신氏도 그것에 대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학적인 공통점을 얻게 되었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 둘이서 더 가깝게 작업을 하게 되었지요.

유 : 두 분의 공동작업인 비디오 영상과 설치작업들을 보면, 예술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또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삶을 표현하려는 주제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테크놀로지는 비인간적인 매체와 기술을 이용하면서 인간의 존재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작업 이후 작품주제와 비디오 공동작업에 관하여 듣고 싶습니다.

유 : 「침대」와 「저항하는 인간은 아름답다」를 작업하면서 진실은 알고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소극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무수한 매스컴, 정보매체들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항해 보고 싶습니다. 그 작품에서 저는 사회의 모순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인간을 조용신氏는 캡슐 안에 들어가 그것을 제 3자에게 인식시키거나, 소극적인 인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 : 비디오 아트 등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작품이 특히 그렇겠지만, 현대미술에서의 공동작업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아니지요. 공동작업의 장단점이 있을텐데요.

조 : 서로 토의를 거쳐 하다보니 보다 나은 것이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설치, 비디오 영상 작업을 할 때 공동작업이 유리하지요. 퍼포먼스의 경우 제가 보여주고 싶은 「사회」라는 조직체를 「자기와 타인」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사회구

조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협력 뿐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생각을 교환, 공감하면서 보다 명확하게 작업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유 : 퍼포먼스나 작업을 할 때는 부부라는 것을 떠나 하나의 사회 개체 개념을 가지고 친구처럼 일할하니 좋은 점도 있지만, 간혹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고를 때 다툼 때도 있지요.

유 : 「한 인간의 이야기」의 작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 : 「한 인간의 이야기」라는 작품을 저희가 주도한 적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 15명 정도의 performer들이 참여했습니다. 중심은 우리와 마리아 포스티노였고 전위음악가가 직접 전기기타 연주를 했으며 나머지는 파리 8대학 비디오 클럽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물이 거지였는데 저희가 작품을 착상한 동기도 거지를 보고서 느낀 것들이었습니다. 한국거지보다야 낫겠지만 파리에도 거지가 있다는 사실, 그들이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지, 한푼을 적선받는 그 이면의 근본적인 의식구조는 어떠한지, 동등하게 좋은 삶을 누릴 수는 없는지 등을 생각하면서 한국의 현실까지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유 : 저희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동질감을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르겠지만, 집 없이 떠돌게 된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유 : 두 분의 공동작품 제목들에서도 느꼈지만 한 인간을 너무 직접적으로 시각화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유 : 작품 속의 인간은 저희를 표현해본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넓게는 사회의 이야기까지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은 암시적으로 많은 것들을 포괄할 수 있으니까요.

유 : 그것을 평면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와 행위, 영상을 통해 보여준다는 데에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실 예정이십니까?

조 : 지금으로서는 행위보다는 공간 내에 작품으로 설치되는 비디오 영상을 많이하고 있습니



Left:
「Resisting human
being are
beautiful」,
Performance,
1995

다. 소리의 경우 목음으로서의 소리, 또는 의도된 소리를 포함해서 실제로 채취된 실존적인 소리 모두를 비중있게 다루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적 변화나 병폐들을 상징적, 암시적으로 다룸으로써 훨씬 사실적인 느낌을 주는 것들을 담고 싶습니다.

유 : 윤애영氏의 작품은 올 해 동아갤러리에서 기획한 「프랑스 젊은 작가 초대전」에서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지요. 그 때 보여준 「침대」라는 작품의 주제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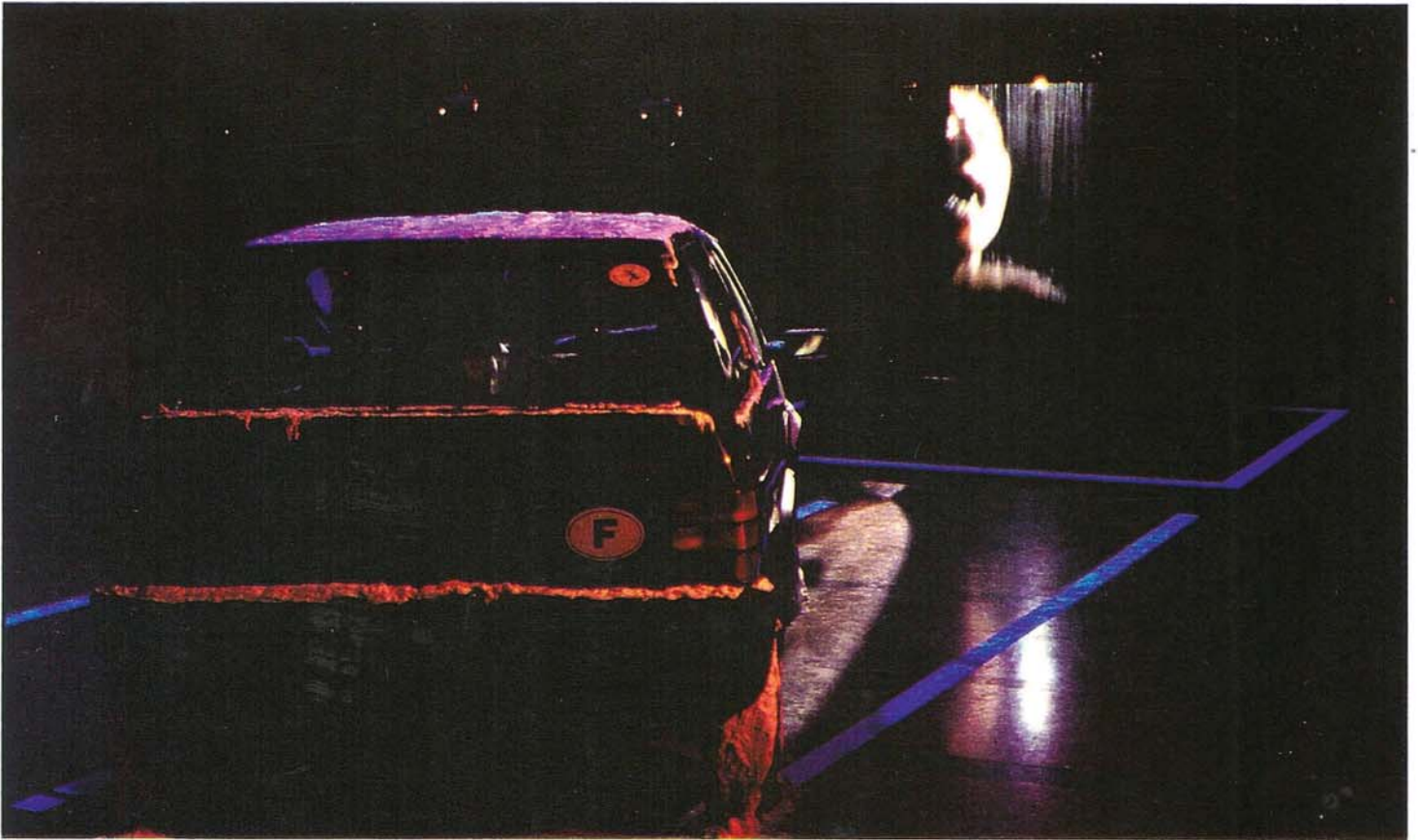
윤 : 파리에서는 그 작품을 퍼포먼스와 같이 했습니다. 조용신氏와 함께 했던 그 퍼포먼스는 인간의 내면을 폭로해 버리자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한편 볼록한 배개의 영상 위에 그 형체를 다시

투사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와 허상의 내가, 이중적인 내가 같이 존재하는 것을 표현했지요. 그 퍼포먼스가 끝난 후 침대는 저희에게는 탄생과도 같은 의미를 주었습니다. 탄생이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에게는 지나온 것들을 되돌아 보는 시간여행과도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비디오 설치 등이 평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시선을 아래에 놓게 하거나 볼록한 입체 속에서 이미지가 왜곡되도록 하는 등 인간의 내적 고통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도록 의도했지요.

유 : 둥근 자막이나 여러 겹의 투명한 자막으로 움직이는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비추는 작품들과, 이번 환기미술관에서는 물을 위에서 떨어뜨리고 그 물에 영상을 비추는 작업을 시도하셨

는데요, 그 입체감 속에 인간의 원초적인 리얼한 모습이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효과를 거두셨다고 보입니다. 환기상에 초청된 이 「시간의 흔적」이라는 작품의 동기와 기술적인 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조 : 그 작품은 영상의 실체성과 입체성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선 상공의 샤워꼭지에서 물이 쪽 나오면서 입자들은 부피감을 갖는데 거기에 영상을 비추면 그 영상들이 물방울마다 잡혀서 홀로그램과 같은 착시효과를 주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평면에 부착했을 때보다 강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래에 조그만 폴장을 만들고 모터펌프를 이용해서 샤워기로 물을 끌어올리면 다시 떨어지고 하는 식으로 순환시켰고, 그 뒤에서 관객 쪽으로 비디오 프로젝트를 투사시킴으로써 앞에서 투사시키는 것 보다 물 입



자 내의 이미지를 확대시키고 선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로 비춘 것은 고통으로 괴로와 하는 제 얼굴인데 그것을 물의 서정성과 결합시켜서 어떤 모순된 희망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유 : 『낙하되는 수많은 분사의 물방울 입자에 비디오 영상이 투영됨으로써 원래의 영상이 평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대단한 입체적 전달을 가져오고 있다. 그 입체적 효과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의 벽, 반항하고 절규하는 몸짓의 역동성과 강렬함을 더해 주고 있다』라고 쓰셨는데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작가들 중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윤 : 물에 영상을 비추는 작가는 못 보았고 백남준 선생님의 부인 시계꼬 구보타씨가 물을 떨어뜨려 비디오로 설치를 했었지요.

유 : 이 작품에서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동차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배경 속의 그 자동차는 마치 눈이 쌓여있는 듯하고 차 안에는 역시 영상으로 비추어진 두 분이 앉아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윤 : 저희는 말을 못 알아듣도록 의도적으로 웅얼거리는 소리로 표현을 했는데, 이방인으로서의 괴리감, 지나온 과거 등 단순한 생활 얘기였습니다. 그런 것을 눈 속의 차 속에 고립된 상황으로 나타낸 것이지요.

유 : 두 분께서는 이번 1996년 4월 파리 콩폴리앙스 극장에서 『COMA』라는 작품을 발표하고 프랑스 보 막쉐재단에서 주는 혼합매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COMA』는 비디오 설치와 퍼포먼스, 안무, 소리 등을 혼합시킨 일종의 총체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탄생 된 경위와 내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조 : 그 작품은 96년 3월에 발표했는데 우리와 안무가 마리아 포스티노, 음악가 프레드릭 아쿠 아비바가 주요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순, 독설, 죽음 등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피에르 기요타의 일부 문장을 도입했습니다. 그 작가의 「살을 잡아 먹어라. 피를 마셔라」와 같은 섬뜩한 문장은 로트 레아몽의 「말도르르의 노래」를 연상시켰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같이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이 죽어간 사람의 욕망을 되살리고 간직할 수는 없을까 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윤 : 이 작품의 특징은 네명의 공동작품이라는 것입니다. 『COMA』는 한국말로 하면 假死 상태라고 번역되지만, 저희는 삶도 죽음도 아닌 상태



.....
 Left:
 「COMA」,
 Video
 Performance ,
 1996

Opposite:
 「The vestige of
 Time」, Installation
 Video, Sound,
 1996

에서 인간이 겪는 이야기를 몸이라는 신체언어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 꿈에서 환상적인 이야기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저희는 그 꿈 속에 등장하는 두 현상으로 행위를 했습니다.

유 : 두 분의 작업은 점점 종합예술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 비디오, 행위 등 미술의 여러 분야가 포괄되는가 하면 음악, 무용 등을 망라하고 계신데 미술에 역점을 두실 것인지 더욱 장르를 넓히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윤 : 지금으로서는 하고 싶은 주제에 맞는다면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응용해 보고 싶습니다.

유 : 국내에서는 어떤 작품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언제부터 활동하실 예정이십니까?

조 :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디오 퍼포먼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입체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영상을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관객에게 어떤 물체를 강요하고 싶지않고 다만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될 때 입체영상을 자유롭게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내년엔 완성할 예정입니다.

유 : 미술작품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누드로 등장하는 퍼포먼스 작품의 경우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었고 영상 작품인 경우도 때로 거부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 :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은 민중 미술이겠죠. 저 역시 그런 작품들을 좋아합니다만 그 보다는 작가 자신이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소화한 상태에서 형상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발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공감대를 만들고 재인

식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 대중적인 저변 확보까지는 어렵지만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기술적인 미비 등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앞으로 저는 제가 추구해온 주제 외에 가벼운 자유로움이 주는 아름다움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유 : 새로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젊은 작가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디오 설치와 영상작업 등 테크놀로지 미술은 작업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주먹에 가까운 여건 속에서도 두 분의 열정적 활동에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